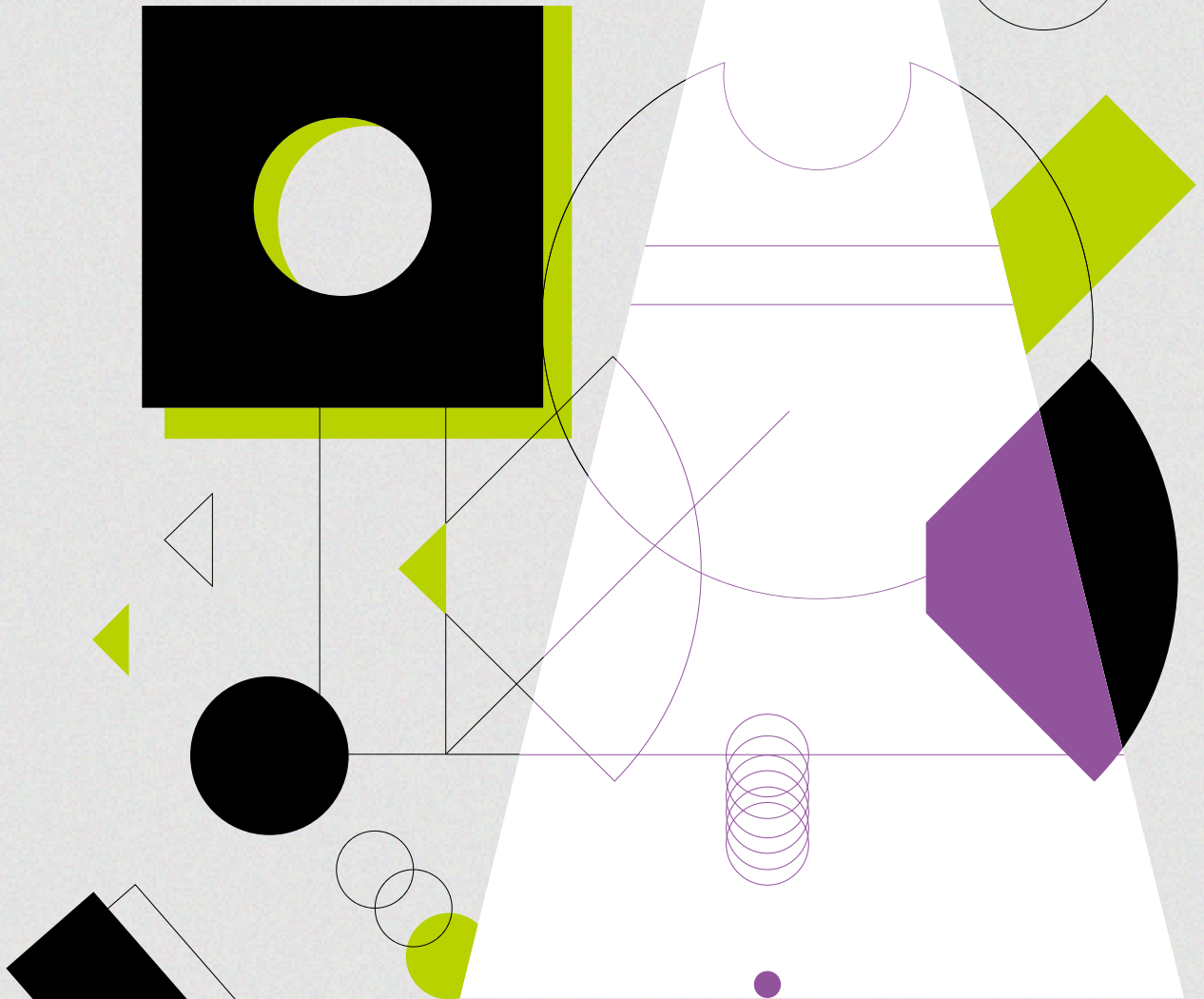


2021 문학주간 백서

다시 ON 문학, 우리를 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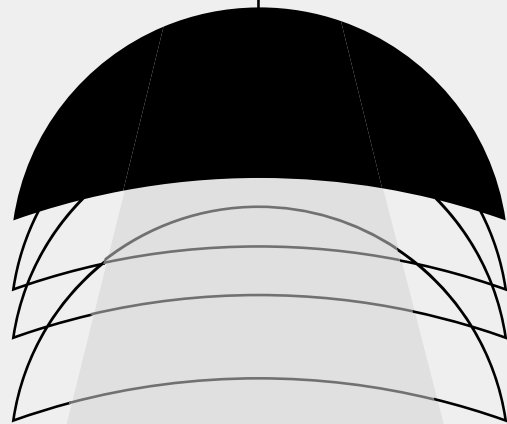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문학주간 백서

다시 ON 문학, 우리를 켜다



C o n t e n t s

2021 문학주간 백서

다시 ON 문학, 우리를 켜다



01 사업개요

1. 개요	06
2. 추진 체계	08
3. 추진 결과	09

02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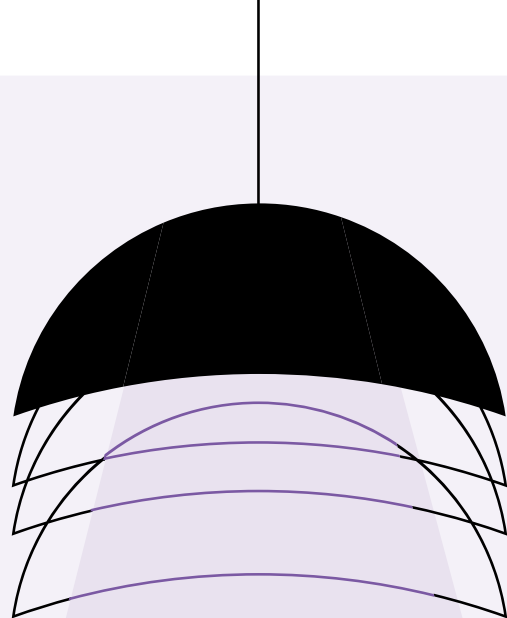
1. 개막식	16
2. 작가 스테이지	18
3. 문학서점 스테이지	65
4. 기획 프로그램 “문학주간 ON”	83
5. 제3회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87
6. 협력 및 연계 프로그램	92

03 홍보

1. 홍보물 제작	114
2. 운영	120
3. 이벤트	137
4. 언론	142

04 결과 및 제언

1. 만족도 조사	148
2. 평가 및 제언	153
3. 모니터링	164



Literature Week

2021 문학주간 백서

다시 ON 문학, 우리를 켜다

01 사업개요

개요
추진 체계
추진 결과



1. 개요

사업 목적

- | 전국 규모의 국민 참여형 문학축제 개최로, 문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
- | 문학과 향유자, 매개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소통하고 공유하는 문학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문학계에 활력 제고 및 지속적인 문학 붐 조성
- |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은 문학인들의 창작활동 긴급지원 확대 및 문학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국민들의 상처 치유와 단절된 소통의 해법 제시

행사 개요

행사명	2021 문학주간
주제	다시 ON 문학, 우리를 켜다
기간	9월 17일(금) ~ 12월 10일(금) 85일간
플랫폼	ARKO 유튜브, 네이버TV 외 참여자 채널
사업 내용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펼쳐진 비대면 시대의 문학 향유 제안 -온라인 개막식 -작가 스테이지 -문학서점 스테이지 -기획 프로그램 “문학주간 ON” -제3회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협력 프로그램(아르코 및 외부 유관기관 등)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주관	국제PEN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관협회,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작가회의
협력	EBS, 한국문학번역원
참여 작가 수	259명
조회수 (12월 30일 기준)	35,954회



주제 설명

다시 ON 문학, 우리를 켜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일상은 많은 것이 달라졌다. 거리두기와 비대면이 조금씩 일상의 보편적 관계방식으로 되어온 이 시점에서 문학 또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할 때다. 목직한 사회적 이슈만이 아니라, 지금도 어디선가 소소하게 문학을 즐기려는 독자(들)의 모임까지 아우르는 주제가 필요하다. ‘다시 온(ON) 문학’은 기존의 방식 또는 제도로서의 틀에서 벗어나, 위기와 극복을 통해 새롭게 제시되어야 할 관계 모드를 향한다. 작가와 독자, 아울러 작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문학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이며, 이 위기를 바탕으로 하여 조금은 더 나은 문학을 고민해야 한다. 또 ‘우리를 켜다는 것’은 그간 가려져서 아니면 애써 보려 하지 않아서 생긴 우리 주변의 사각지대를 밝힌다는 의미다. 왜 우리는 문학을 하려는가? 결국 그 답을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려는 몸짓과 마음이 문학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줄 실마리가 될 것이다.

키워드 | 공감, 공동체, 다양성, 돌봄의 문학, 미래의 문학, 새로운 매체, 인권, 코로나 극복, 쿼어, 탭탭(Tab-tab), 페미니즘, 플랫폼 문학



2. 추진 체계



조직위원		
연번	성명	소속
1	김경식	국제PEN한국본부 사무총장
2	김남혁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상임이사
3	김성달	한국소설가협회 상임이사
4	김지현	한국시인협회 사무총장
5	신현수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6	전보삼	한국문학관협회 회장
7	표중식	한국문인협회 사무총장
8	이시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위원(문학)

기획위원회		
연번	성명	소속
1	신지영	동화작가
2	이영주	시인
3	정재훈	문학평론가
4	차경희	독립문학서점 ‘고요서사’ 대표
5	최창근	극작가, 연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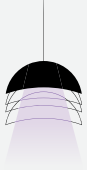
3. 추진 결과

날짜	시간	구분	프로그램	플랫폼	조회수
9월 4일(토) 9월 18일(토) 10월 2일(토) 10월 16일(토) 11월 6일(토)	14:00	작가 스테이지	지역 아동과 함께 하는 신나는 동화읽기와 글쓰기	Zoom	12
9월 6일(월) 9월 30일(목) 10월 31일(일) 12월 2일(목) 12월 20일(월)	10:00	작가 스테이지	침 튀겨도 괜찮았었지	팟빵 (엄마작가모임)	1,903
9월 17일(금)	15:00	작가 스테이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낭송	유튜브(마당재)	39
	18:00	개막식	문학주간 프로그램 안내	ARKO 유튜브, 네이버TV	10,919 50
9월 18일(토)	14:00	영상 콘텐츠 제작 [문학주간 낭독 ON]	낭독 ON “지금은 우리가” 박준	ARKO 유튜브, 네이버TV	-
9월 19일(일)	14:00	영상 콘텐츠 제작 [문학주간 낭독 ON]	낭독 ON “쓸 수 없는 문장들” 안리타	ARKO 유튜브, 네이버TV	-
9월 20일(월)	14:00	영상 콘텐츠 제작 [문학주간 낭독 ON]	낭독 ON “책의 말들” 김겨울	ARKO 유튜브, 네이버TV	-
	19:00	작가 스테이지	단편소설의 메시지를 춤으로 이야기하다 - 문학과 현대무용의 융합 퍼포먼스	ARKO 유튜브	266
9월 21일(화)	14:00	영상 콘텐츠 제작 [문학주간 낭독 ON]	낭독 ON “밝은 밤” 김하나	ARKO 유튜브, 네이버TV	-
9월 25일(토) 10월 2일(토) 10월 9일(토)	17:00	작가 스테이지	포토문학극장	ARKO 유튜브	2,091
9월 25일(토)	17:00	작가 스테이지	시로 워크하다	Zoom	50
9월 30일(목)	19:30	협력 프로그램 (내부 협력)	월간 읽는 극장 “움직임, 움직임, 움직임”	ARKO 유튜브	-
10월 1일(금)	15:00	작가 스테이지	한국문학의 새로운 영토를 찾아서	유튜브 (한국작가회의)	574
10월 2일(토)	10:00	작가 스테이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동화 산책	Zoom	20
	14:00	작가 스테이지	하이퍼링크로 연결되는 미스터리 추리게임! <시인 K 자살사건>	웹진 <아는사람>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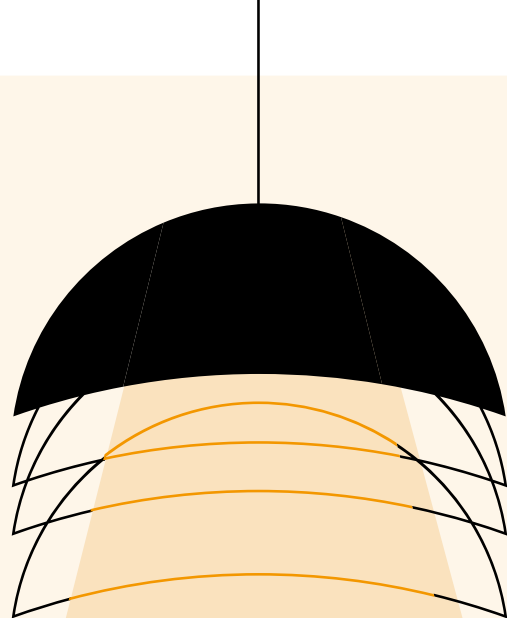
날짜	시간	구분	프로그램	플랫폼	조회수
10월 4일(월) ~ 10월 13일(수)	18:00	협력 프로그램 (제작 협력)	EBS 「김새벽 황인찬의 시로 만난 세계」 문학주간 특집방송	팟빵, 오디오e지식, EBS FM 오디오천국	693
10월 5일(화)	14:00	영상 콘텐츠 제작 [문학주간 낭독 ON]	낭독 ON “그것은 가벼운 절망이다 지루함의 하느님이다” 황인찬	ARKO 유튜브, 네이버TV	-
10월 8일(금) 10월 29일(금)	10:00	작가 스테이지	곳곳 프로젝트	ARKO 유튜브	492
10월 8일(금)	18:00	작가 스테이지	나의 첫 책 출간기	ARKO 유튜브	141
10월 8일(금) ~ 10월 24일(일)	-	협력 프로그램 (홍보 협력)	제10회 서울국제작가축제	축제 홈페이지	-
10월 15일(금)	10:00	협력 프로그램 (홍보 협력)	제39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	유튜브 (문학광장)	-
	19:00	협력 프로그램 (내부 협력)	<문장의 소리> 공개방송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 특집”	유튜브 (문학광장)	-
10월 15일(금) 10월 18일(월)	18:00	작가 스테이지	우리를 다시 켜다	유튜브 (JUST LIVE)	140
10월 16일(토) 10월 23일(토) 11월 6일(토)	15:00	작가 스테이지	나의 삶이 당신에게 이야기가 될 때	Zoom	210
10월 16일(토)	15:30	작가 스테이지	비평 덕후들의 웹툰, SNS문학 비평 설명서	Zoom	8
	19:00	문학서점 스테이지	가을 밤, 우리 곁에 시	인스타그램 (사이시웃)	332
10월 17일(일)	14:00	작가 스테이지	카를 차페크 <로봇> 100주년 기념 - 2021년에 읽는 1921년의 SF 희곡	Zoom	31
10월 19일(화)	18:00	작가 스테이지	삶의 심표가 되는 음식 소통 토크쇼 감정맛집	ARKO 유튜브	193
10월 21일(목)	15:00	작가 스테이지	문학으로 할머니들다	ARKO 유튜브	207
10월 21일(목) ~ 12월 16일(목)	18:00	협력 프로그램 (제작 협력)	해외 한인작가 9인 릴레이 인터뷰	ARKO 유튜브	386
10월 22일(금)	19:00	문학서점 스테이지	우리가 사랑한, 사랑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자들	인스타그램 (나비날다 책방)	181
10월 23일(토)	15:00	작가 스테이지	캠의 캠핑 바이로그 & 낭독회	ARKO 유튜브	461
	17:00	작가 스테이지	동백이 연꽃에게 - 너븐숭이에서 하미마을까지, 당신과	인스타그램 (만춘서점)	554

날짜	시간	구분	프로그램	플랫폼	조회수
10월 24일(일)	19:30	작가 스테이지	아근하면서 읽는 시	ARKO 유튜브	303
10월 24일(일) 11월 14일(일)	10:00	작가 스테이지	제주 문학 팟캐스트	팟빵(시웃서점)	8
10월 27일(수)	19:00	문학서점 스테이지	『은둔기계』 김홍중 저자 강연	인스타그램 (진부책방스튜디오)	335
10월 28일(목)	19:30	협력 프로그램 (내부 협력)	월간 읽는 극장 “홀로, 함께”	ARKO 유튜브	-
10월 29일(금)	-	협력 프로그램 (내부 협력)	2021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참여 작가 8인의 추천도서	ARKO 유튜브	-
10월 30일(토)	11:00	협력 프로그램 (제작 협력)	남북문학예술연구회 2021년 가을 학술대회	유튜브 (문학광장)	148
	14:00	작가 스테이지	빔프로젝트 - 그림책 작가들의 작당	인스타그램 (멜로우빔)	158
11월 1일(월)	15:00	협력 프로그램 (홍보 협력)	제35회 시의 날 - 서울 시민, 시의 날개를 날다	문학의 집 서울, 유튜브 (문학tv Silk road)	-
11월 2일(화) ~ 11월 4일(목)	-	협력 프로그램 (홍보 협력)	제7회 세계한글작가대회	유튜브 (세계한글작가대회)	-
11월 2일(화)	-	협력 프로그램 (내부 협력)	2021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분야 작품 낭독회 “휴대용 낭독회”	ARKO 유튜브	-
11월 6일(토)	14:00	작가 스테이지	그녀의 스트립쇼 혹은 ‘너’라는 악령 쫓기	유튜브 (Mihee Yoon)	217
	19:30	기획 프로그램	[문학주간 ON] 제3회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네이버 쇼핑라이브	1,872
11월 7일(일)	14:00	작가 스테이지	독자에게 전하는 예술 선물 <다채>	ARKO 유튜브	103
	19:30	기획 프로그램	[문학주간 ON] 문학주간 시선집	네이버 쇼핑라이브	3,268
11월 8일(월)	17:00	작가 스테이지	문학, 회진(回診)가다 - 마동덕, 詩로 쓰는 레시피	ARKO 유튜브	98
	18:00	작가 스테이지	한마음문학회	ARKO 유튜브	181
	19:30	기획 프로그램	[문학주간 ON] 영화로 만나는 한국소설, 조해진	네이버 쇼핑라이브	2,881
11월 11일(목)	11:00	작가 스테이지	가까워 톡 - 나의 고양이가 되어주렴	유튜브 (북스피리언스)	192



날짜	시간	구분	프로그램	플랫폼	조회수
11월 16일(화)	18:00	작가 스테이지	포스트 코로나 희망의 시 콘서트	유튜브 (문학tv Silk road)	163
	19:30	작가 스테이지	시, 내 삶에 입맞추다	ARKO 유튜브	116
11월 17일(수)	16:00	문학서점 스테이지	생방송 북트레일러	인스타그램, 유튜브(책과아이들)	145
	20:00	작가 스테이지	38분 동안 지구멸망소설 릴레이 쓰기	Zoom	57
11월 19일(금)	16:00	작가 스테이지	비평의 새로운 영역과 기능	Zoom, ARKO 유튜브	41
	17:00	작가 스테이지	캣츠아이세이	오디오클럽 (고양이를 사랑한 두루미)	134
	19:30	협력 프로그램 (제작 협력)	춤으로 만나는 한국소설, 김숨	유튜브 (문학광장)	226
11월 19일(금)	20:00	작가 스테이지	재즈피넛 블렌딩 메타버스 팝업 스토어	게더타운	75
11월 20일(토)	14:00				
11월 21일(일)	14:00				
11월 20일(토)	22:00	문학서점 스테이지	김현 시인 초청 낭독회	Zoom	22
11월 21일(일)	16:00	문학서점 스테이지	완서학, 비서구 젠더 이론을 위하여	인스타그램 (책방 한타)	202
	18:00	작가 스테이지	그림책 사회학 - 그림책과 그래픽노블 안에 갇든 문화다양성 이야기	유튜브 (우리나비책들)	71
11월 23일(화)	09:00	작가 스테이지	시로 소통하는 멀티컬처(MultiCulture)	ARKO 유튜브	520
	19:00	문학서점 스테이지	몸이 보이는 라디오	인스타그램 (문학살롱 초고)	30
11월 24일(수)	19:30	문학서점 스테이지	소설가 최진영의 『비상문』 낭독회	인스타그램 (책방오늘,)	355
11월 25일(목)	19:30	협력 프로그램 (내부 협력)	월간 읽는 극장 “헛되지 않다”	ARKO 유튜브	-
11월 26일(금)	19:00	작가 스테이지	어흥! 부산 랜선 여행	유튜브 (막동심이)	37
	19:30	협력 프로그램 (제작 협력)	영화로 만나는 한국소설, 하성란	유튜브 (문학광장)	262

날짜	시간	구분	프로그램	플랫폼	조회수
11월 27일(토)	13:00	협력 프로그램 (제작 협력)	평화통합문화회의 온라인 세미나	유튜브 (문학광장)	213
	14:00	협력 프로그램 (내부 협력)	문장의 소리×소소살롱 “최진영&강아솔의 소소살롱”	예술의전당 인촌아트홀	-
	16:00	문학서점 스테이지	<우리 유니버스> 이토록 풍부한 여성영화의 세계	인스타그램 (이스트씨네)	10
11월 29일(월) 12월 3일(금) 12월 6일(월)	19:00	문학서점 스테이지	키워드로 맛보는 한국문학 (キーワードで読む韓国文学)	유튜브(책거리)	652
11월 30일(화)	16:00	작가 스테이지	신동엽, 별들과의 대화	ARKO 유튜브	256
	17:00	작가 스테이지	산지등대 제주詩지	ARKO 유튜브	202
12월 1일(수)	19:30	문학서점 스테이지	Anne Carson Day! : 짧은 이야기들과 유리, 아이러니 그리고 신	인스타그램 (위트 앤 시니컬)	578
12월 2일(목)	19:00	문학서점 스테이지	선명한 산책	유튜브 (커피는 책이랑)	68
12월 4일(토)	12:00	협력 프로그램 (내부 협력)	2021 글틴캠프	게더타운 글틴월드	-
12월 7일(화)	11:00	작가 스테이지	언어의 맛 : 복수의 문학, 언어의 이합집산	ARKO 유튜브	242
	19:30	문학서점 스테이지	애욕의 한국소설	인스타그램 (이후복스)	863
12월 8일(수)	19:00	문학서점 스테이지	진심을 밝히는 문학들	인스타그램 (고요서사)	477
12월 9일(목)	21:00	문학서점 스테이지	미래 산책 연습 <한국문학 산책>	유튜브(삼요소)	148
12월 10일(금)	14:00	협력 프로그램 (내부 협력)	<문장의 소리> 공개방송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분야 선정자 특집”	유튜브 (문학광장)	-
	18:30	협력 프로그램 (내부 협력)	<문장의 소리> 공개방송 “굿바이 2021, 굿바이 문소음감회”	유튜브 (문학광장)	-



Literature Week

2021 문학주간 백서

다시 **ON** 문학, 우리를 **켜다**

02 프로그램

개막식
작가 스테이지
문학서점 스테이지
기획 프로그램 “문학주간 ON”
제3회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협력 및 연계 프로그램

1. 개막식

개요	
프로그램명	[2021 문학주간] 개막식
공개 일시	2021년 9월 17일(금) 18:00
플랫폼	ARKO 유튜브, 네이버TV
내용	- 2021 문학주간 주제 소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개막 선언 및 인사말 - 조직위원들의 릴레이 축하 - 작가들의 2021 문학주간 세부 프로그램 소개 및 도서 추천
출연자	- 개막 선언 :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축하 : 조직위원 6인 - 프로그램 소개 작가 : 김겨울, 김하나, 박준, 안리타
조회수 (12월 30일 기준)	10,969회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내용	출연자	장소
오프닝	- '2021 문학주간' 주제 소개	박준	아르코미술관
개회	- 개회사 및 인사말	위원장	
축사	- 릴레이 축하	조직위원회	
작가 스테이지 & 문학서점 스테이지	- 작가 스테이지 프로그램 소개 - 문학서점 스테이지 프로그램 소개	김하나	요산문학관 (부산)
제3회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 제3회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소개 - 온라인 전시내용 안내	안리타	이후복스 (제주)
기획&협력 프로그램	- 아르코 및 유관 기관들과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 소개 - 기획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쇼핑 라이브' 소개 및 참여 안내	김겨울	구산동도서관 마을(서울)
클로징	- '2021 문학주간' 일정 및 참여방법 안내	박준	아르코미술관

출연 작가		
프로그램	출연자	프로필
사회 (오프닝, 클로징)	박준	- 시인, 작가 - 2008년 『실천문학』 으로 등단 -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계절 산문』, 그림책 『우리는 안녕』 - 2013 제31회 신동엽문학상, 2017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문학 부문, 2019 제29회 편운문학상 시부문, 제7회 박재삼문학상 등 수상 - CBS 「음악FM 시작하는 밤 박준입니다」 진행 중
작가 스테이지 & 문학서점 스테이지	김하나	- 작가, 진행자, 카피라이터 - 저서 『당신과 나의 아이디어』, 『말하기를 말하기』,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공저)』, 『힘 빼기의 기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농담』, 『15도』 - 예스24 팟캐스트 『책읽아웃-김하나의 측면돌파』 진행
제3회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안리타	- 작가, 독립출판물 제작자 - 독립출판물 『이, 별의 사각지대』, 『사라지는, 살아지는』, 『구겨진 편지는 고백하지 않는다』, 『모든 계절이 유서였다』, 『우리가 우리이기 이전에』, 『사랑이 사랑이기 이전에』, 『리타의 정원』, 『잠들지 않는 세계』 외
기획&협력 프로그램	김겨울	- 작가, 유튜버, DJ, 작곡가 - 저서 『책의 말들』, 『독서의 기쁨』, 『활자 안에서 유명하기』, 『유튜브로 책 권하는 법』 외 - 유튜브 겨울서점 채널 운영 중 - MBC FM 「라디오 북클럽 김겨울입니다」 진행 중



‘2021 문학주간’ 주제 안내 - 박준



환영사 및 인사말 - 박종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작가 스테이지 & 문학서점 스테이지 소개 - 김하나



제3회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소개 - 안리타



2. 작가 스테이지

개요

프로그램명	[2021 문학주간] 작가 스테이지
공개 일시	2021년 9월 4일 ~ 12월 20일
플랫폼	- 선정 작가 및 단체의 SNS 채널(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 ARKO 유튜브
내용	- 독자와의 교류를 위해 프로그램 기획부터 출연까지 작가가 직접 제안한 무대를 문학주간을 통해 선보임 -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하게 창작 또는 독자와의 소통 활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 작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독자와 만나는 On/Off 스테이지 구성
조회수 (12월 30일 기준)	10,638회 (총 39개 프로그램)

공모 내용

신청대상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문학 분야 작가라면 누구나(팀참여도 가능)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우대
신청내용	- 문학작품을 통해 독자와 소통하고 향유할 수 있는 50분 내외 자유형식의 프로그램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권고 및 우대
모집기간	- 1차 자유주제방식: 6월 16일 ~ 7월 7일 15:00까지 - 2차 주제지정방식: 8월 2일 ~ 8월 16일 15:00까지
발표	- 1차 자유주제방식: 7월 23일 - 2차 주제지정방식: 9월 2일
지원규모	프로그램별 최대 2,000,000원 이내 지원
운영방법	- 프로그램 제안서 검토/심사평가→약정 체결→프로그램 진행→결과보고서→프로그램 예산 지급(사후) - 오프라인 프로그램 시 관객 참가비는 무료 운영 권고 - 프로그램 운영 최소 2~3주 전 홍보 진행 ※ 문학주간 공식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 포함 - 프로그램 운영 후 결과보고서 제출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 예정
지원신청 방법	- 프로그램 제안서 1부 이메일 제출
선정 방법	- 문학주간 기획위원회에서 서류검토를 통해 적격 여부 평가 ※ 선정기준: 독자 유입을 위한 대중성(40%), 참신성(20%), 기획력(30%), 위기관리방안(10%)

추진절차





작가 스테이지 프로그램 공모 심사 총평

1차 자유주제방식

2021년 작가 스테이지 자유주제방식 프로그램 심사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실시간 화상 회의로 진행하였다. 올해 들어온 프로그램 제안서는 총 107편이었으며 아동문학작가, 시인, 극작가, 독립문학서점 대표, 문학평론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먼저 각각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였고, 이를 수합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2시간 30분 이상의 강도 높은 실시간 회의를 진행한 것이다. 전체 제안서들이 선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재차 따지면서 순차적으로 좁혀나가 30개 프로그램을 정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선정 기준은 ‘대중성’, ‘참신성’, ‘기획력’, ‘위기관리방안’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심사위원들끼리 상의하여 심사하였다. 개별 점수들을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프로그램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될 시에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진행 과정에 영향이 없는지를 살폈고, 기준을 충족한 선에서 지역, 장르에 대한 균형 있는 안배 또한 고려하였다. 일반적인 강연이나 낭독회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프로그램, 홍보성이 짙은 제안서는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선정된 개인 또는 단체에게는 축하와 당부의 말을, 선정되지 못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한다. 선정된 이들은 앞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문학’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행사 목적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작가는 작가이기 전에 독자이며, 책 속에서, 책을 가로지르며 살아간다.”라고 리베카 솔닛이 말한 것처럼 부디 더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고, 그렇게 서로서로 감정을 함께 나누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곳곳하게 이겨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2차 주제지정방식

2021년 문학주간 작가 스테이지(주제지정방식) 주제는 ‘다시 ON 문학, 우리를 커다’이다. 이 주제는 ‘코로나’라는 제한적 상황 속에서도 문학을 통해 서로 감정을 나누고, 아울러 우리 모두가 ‘공동체’나 ‘공감’, ‘다양성’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모색하도록 마련되었다.

총 41건의 지원서 가운데 부적격 및 신청 철회를 제외한 나머지 35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대중성, 참신성, 기획력, 코로나 위기관리를 기준으로 삼았다. 5명의 심사위원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를 먼저 하고, 이를 수합 및 정리하여 나온 것을 가지고 실시간 화상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선정하였다.

심사위원회에서 중점을 두었던 것은 제안된 프로그램들의 내용이 기존의 것들과 얼마나 차별화를 확보했는지 등이었다. 그리고 평가 점수가 상위권인 제안서들 가운데에서도 일부 지역으로만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안배하였다. 제안된 프로그램들 중에서 낭송이나 강연 일련도의 것들은 배제했다.

선정된 프로그램들은 제안서에 담긴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을 통해 ‘언택트’라는 낯선 환경에 유연하면서도 참신한 기획력을 보여주었다. 프로그램 자체가 주는 흥미뿐만 아니라, 전문성 또한 갖춘 프로그램들도 있었다. 아울러, 지나친 인건비 책정보다는 행사 본연을 위한 합리적 예산 편성도 주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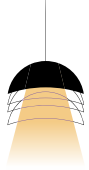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관계의 갈증’은 우리 모두를 외롭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만, 이번 작가 스테이지에 선정된 프로그램들을 계기로 보다 많은 이들이 서로 공감하고 교류하면서 더 나은 공동체를 꿈꿀 수 있었으면 한다. 선정된 이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그 책임감 또한 바라는 바다.



작가 스테이지 - 자유주제방식(32개)

날짜	시간	작가(참여 단체)	프로그램	진행 횟수	조회수
9월 4일(토) 9월 18일(토) 10월 2일(토) 10월 16일(토) 11월 6일(토)	14:00	창녕작가회의	지역 아동과 함께 하는 신나는 동화읽기와 글쓰기	5	12
9월 6일(월) 9월 30일(목) 10월 31일(일) 12월 2일(목) 12월 20일(월)	10:00	엄마작가모임	침 튀겨도 괜찮았는지	5	1,903
9월 17일(금)	15:00	박태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낭송	1	39
9월 20일(월)	19:00	김주옥	단편소설의 메시지를 춤으로 이야기하다 - 문학과 현대무용의 융합 퍼포먼스	1	266
9월 25일(토) 10월 2일(토) 10월 9일(토)	17:00	동인아시아	포토문학극장	3	2,091
9월 25일(토)	17:00	미소록	시로 윈크하다	1	50
10월 1일(금)	15:00	한국작가회의	한국문학의 새로운 영토를 찾아서	1	574
10월 2일(토)	10:00	명창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동화 산책	1	20
10월 2일(토)	14:00	아는사람	하이퍼링크로 연결되는 미스터리 추리게임! <시인 K 자살사건>	1	72
10월 8일(금) 10월 29일(금)	10:00	팀분리수거	곳곳 프로젝트	2	492
10월 8일(금)	18:00	폴앤니나	나의 첫 책 출간기	1	141
10월 16일(토)	15:30	부산인문문화예술연구소	비평 덕후들의 웹툰, SNS문학 비평 설명서	1	8
10월 17일(일)	14:00	과학회국 낭독모임	카를 차페크 <로봇> 100주년 기념 - 2021년에 읽는 1921년의 SF 희곡	1	31
10월 19일(화)	18:00	김준영	삶의 침표가 되는 음식 소통 토크쇼 감정맛집	1	193
10월 21일(목)	15:00	월화수랩	문학으로 할머니들다	1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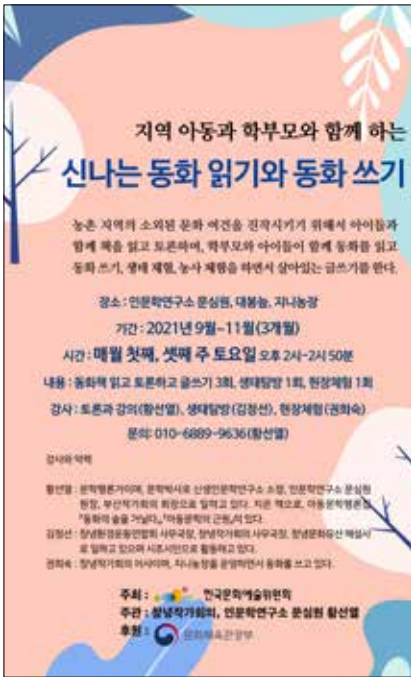
날짜	시간	작가(참여 단체)	프로그램	진행 횟수	조회수
10월 23일(토)	15:00	창작동인 컴	컴의 캠핑 브이로그 & 낭독회	2	461
	17:00	허은실	동백이 연꽃에게 - 너븐송이에서 하미마을까지, 당신과	1	554
10월 24일(일)	19:30	유현아	아근하면서 읽는 시	1	303
10월 24일(일) 11월 14일(일)	10:00	호라이즌	제주 문학 팟캐스트	2	8
10월 30일(토)	14:00	멜로우빔	빔프로젝트 - 그림책 작가들의 작당	1	158
11월 8일(월)	17:00	강회진	문학, 회진(回診)가다 - 마동덕, 詩로 쓰는 레시피	1	98
	18:00	소설창작동인 어	한마음문학회	1	181
11월 11일(목)	11:00	복스피리언스	가까워 톡 - 나의 고양이가 되어주렴	1	192
11월 16일(화)	18:00	(사)한국시인협회	포스트 코로나 희망의 시 콘서트	1	163
	19:30	신정민	시, 내 삶에 입맞추다	1	116
11월 17일(수)	20:00	모드4	38분 동안 지구멸망소설 릴레이 쓰기	1	57
11월 19일(금)	16:00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비평의 새로운 영역과 기능	1	41
	17:00	박진경	캣츠아이세이	2	134
11월 23일(화)	09:00	건양대학교 이주민사회통합연구소	시로 소통하는 멀티컬처(MultiCulture)	2	520
11월 26일(금)	19:00	창작동인 어홍	어홍! 부산 랜선 여행	1	37
11월 30일(화)	16:00	신동엽학회	신동엽, 별들과의 대화	1	256
12월 7일(화)	11:00	문학스튜디오 무시	언어의 맛 : 복수의 문학, 언어의 이합집산	1	242
총 합				47	9,620



세부 프로그램

창녕작가회의

프로그램명	지역 아동과 함께 하는 신나는 동화읽기와 글쓰기		
유형	강연형, 탐방형, 체험형	장르	동화
제작 일시	9월 4일(토)~11월 6일(토)	장소	작가 자택
공개 일시	9월 4일(토), 9월 18일(토), 10월 2일(토), 10월 16일(토), 11월 6일(토) 14:00	플랫폼	Zoom
주요 관람층	고학년 학생, 학부모		
참여자	김정선(시조시인), 권희숙(지니농장 대표), 황선열(아동문학평론가)		
참여자 소개	김정선 : 창녕환경운동연합 창녕작가회의 사무국장, 창녕문화관광해설사, 시조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권희숙 : 창녕작가회의 이사, 지니농장을 운영하면서 동화를 쓰고 있다. 황선열 : 신생인 문학 연구소 소장, 인문학연구소 문심원 원장, 부산작가회의 회장, 아동문학 평론집 『동화의 숲을 거닐다』, 『아동문학의 근원』이 있다.		
내용	농촌 지역의 소외된 문화 여건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며,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동화를 읽고 동화 쓰기, 생태 체험, 농사 체험을 하면서 ‘살아있는 글쓰기’가 진행된다.		
조회수	12		



엄마작가모임

프로그램명	침 튀겨도 괜찮았었지		
유형	대담형	장르	그림책, 정보책, 창작동화
제작 일시	9월 1일~12월 19일	장소	단팃스튜디오 흥대점
공개 일시	9월 6일(월), 9월 30일(목), 10월 31일(일), 12월 2일(목), 12월 20일(월) 10:00	플랫폼	팟빵(동화 작가와 함께하는 온가족 문화 토크, 침튀겨도 괜찮아..쓰었지...)
주요 관람층	전 연령대 어린이책 독자		
참여자	고정 작가 : 강정연(동화작가), 김혜정(동화작가), 유가은(그림책 작가), 이혜진(동화작가), 장희정(동화작가) 초대 작가 : 김준영(그림책작가), 보린(동화작가), 신현경(동화작가), 정이립(동화작가), 홍민정(동화작가)		
참여자 소개	<고정 작가> 강정연 : 『바빠가족』, 『초록눈 꼬끼리』, 『분홍문의 기적』 외 다수의 책을 출간하였다. 김혜정 : 2003년 신춘문예당선, 창작동화 『귀 뺨 맘 딱』 외 다수의 책을 출간하였다. 유가은 : 『행성-P』, 『연결-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외 다수의 책을 출간하였다. 이혜진 : 『번개 세수』, 『룰루 아저씨네 옛이야기 세탁소』, 『도서관 길고양이』 (공저)를 썼다. 장희정 : 『열세 살, 연애하고 싶어』, 『미움일기장』, 『열세 살, 불안해도 괜찮아』를 썼다. <초대 작가> 김준영 : 『난 남달라!』, 『할아버지와 손돌이는 닮았어요』, 『그럴 때가 있어』 외 다수의 책을 출간하였다. 보린 : 『한밤에 깨어나는 도서관_귀서각』, 『컵 고양이 후루룩』 외 다수의 책을 출간하였다. 신현경 : 『양말 마녀 네네치』, 『나의 강아지 육아일기』, 『쓰레기에서 레를 빼면 쓰기』 외 다수의 책을 출간하였다. 정이립 : 『닝컨 시대』, 『생쥐처럼』, 『방귀쟁이 할머니』 외 다수의 책을 출간하였다. 홍민정 : 『고양이 해결사 감냥』, 『모두 웃는 장례식』 외 다수의 책을 출간하였다.		
내용	0세부터 100세까지 책 수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책을 골라 이야기를 나눈다. 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책을 읽고 가족끼리 나누면 좋을 이야기 거리, 글감, 연계해서 읽으면 좋을 책들, 함께 해보면 좋은 활동, 체험, 여행 등 그야말로 책 하나를 매개로 온 가족이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 특별 방송 진행 - 1회: 정이립 『닝컨 시대』, 난별(김혜정) 『귀 뺨 맘 딱』 2회: 김준영 『그럴 때가 있어』, 유가은 『연결-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3회: 홍민정 『고양이 해결사 감냥』, 장희정 『열세 살 연애 하고 싶어』 4회: 신현경 『양말 마녀 네네치』, 강정연 『레인보우의 비밀 동시집』 5회: 보린 『앗! 난개초등학교』, 함지슬(이혜진) 『번개 세수』		
조회수	1,903		





박태건

프로그램명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 낭송		
유형	강연형	장르	시
제작 일시	9월 17일(금)	장소	전주 평화의 전당 세미나 2실
공개 일시	9월 17일(금) 15:00	플랫폼	유튜브(마당재)
주요 관람층	전북 도민 (전주시, 익산시)		
참여자	김성철(시인), 박태건(시인), 송현섭(시인)		
참여자 소개	김성철 : 생오지창작촌 시창작 교수이며, 2006년 ‘영남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 대표작으로 시집 『달이 기우는 비향』이 있다. 박태건 : 1995년 ‘전북일보’ 신춘문예와 ‘시와반시’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대표작으로 시집 『이름을 몰랐으면 했다』가 있다. 송현섭 : 1990년 ‘전북일보’ 신춘문예와 1992년 ‘문학사상’ 신인상에 당선되었다. 동시집 『착한 마녀의 일기』, 『내 심장은 작은 북』을 썼다.		
내용	시인과 독자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시대적 사건과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삶과 시대에 대한 고민을 문학 작품의 소재 혹은 주제로 표현한 작품을 이야기하며 시대적 위로와 공감을 전한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기원하는 시작품을 낭송하며 미안마의 폭력 사태가 한시라도 빨리 중지될 수 있도록 김성철 시인, 송현섭 시인, 박태건 시인이 문학을 통한 공감을 나눈다. -접수 및 도서 배포, 네트워킹 및 다과 -미안마 현황 및 민주주의와 문학의 관계 -김성철, 송현섭, 박태건의 시 낭송과 문학 이야기 -작가와 독자의 1문 1답		
조회수	39		



김주옥

프로그램명	단편소설의 메시지를 춤으로 이야기하다- 문학과 현대무용의 융합 퍼포먼스		
유형	문학토크 및 퍼포먼스	장르	소설
제작 일시	8월 28일(금)	장소	수색역 광장 / 청년마을예술창작소
공개 일시	9월 20일(월) 19:00	플랫폼	ARKO 유튜브
주요 관람층	문학과 무용을 좋아하는 성인		
참여자	김영애(미술가), 김주옥(소설가), 김형관(미술가), 모지민(무용가), 옥정호(미술가), 이지영(미술가)		
참여자 소개	김영애 : 1999년 초전박물관 주최 제1회 켄트 콘테스트에서 패브릭 패치워크 작품 <봄·여름·가을·겨울>로 수상하였으며, 2001년 제2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공예부문 패치워크·아플리케 기법으로 눈의 착시현상에 대한 3D 표현 작품 <Eye Space>로 수상하였다. 김주옥 : 장편소설 『표절』, 단편소설집 『미노타우로스』, 『허물』, 『핑크 몬스터』, 스마트 소설집 『그림이 내게 와서 소설이 되었다』 등을 출간했다. 2015 아르코 창작기금에 선정되었다. 김형관 : 2019 감로甘露, CR클렉티브, 서울 / 2014 별은 홀로 빛나지 않는다. 갤러리 버튼, 서울 / 2012 당신의 그림자는 건강하십니까?, 문래예술공장, 서울 / 2011 intersection, 통의동 보안여관, 서울 / 2008 trans展, 갤러리 도스, 서울 / 2007 before sunset, 아트스페이스 sadari, 서울 등이 있다. 모지민 : 안무가이자 뮤지컬 배우, 드랙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 시청 Amsterdam rainbow in seoul,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lotus land, 뮤지컬 라카지 (LG ART CENTER), 오페라 박쥐 (예술의 전당)가 있다. 옥정호 : 2018년 <미망한 세계>외 7회 국내외 개인전과 2020년 코리안 아이: 2020 'Creativity & Daydream: 창조성과 백일몽', 러시아 예르미타주 미술관, 2019년 <counterART: Aesthetics of South Korean Activism + Global Perspectives>가 있다. 이지영 : 기억의 리모델링전 2008을 시작으로 철거 직전 재개발지역에 들어가서 버려지고 부서진 물건들을 잘 정돈한 후 그 상황을 촬영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내용	소설가 김주옥은 현대무용가 모지민의 예술세계와 성장 과정을 소재로 2021년 한국소설 3월호에 단편 <생선 썩은내가 나지 않는 항구>를 발표했다. 소설을 위해 모지민과 성장 배경인 목포에 간 김주옥은 추억의 장소와 공간을 취재하여 서울과 목포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비교 연구한 다음 상황적 아이러니의 요소를 활용하고, 지구와 달 사이에 작용한 거대한 만유인력으로 인해 생선 비린내가 하나 나지 않는 항구를 은유하여 사람과 사람의 '아름다운 거리'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 소설의 메시지를 장르 간의 융합인 현대무용으로 재해석한 퍼포먼스 공연으로 독자에게 신선한 감동을 전달한다.		
조회수	266		



동인아시아

프로그램명	포토문학극장		
유형	낭독형 변사극	장르	소설
제작 일시	9월 11일(토)	장소	케니강 스튜디오
공개 일시	9월 25일(토), 10월 2일(토), 10월 9일(토) 17:00	플랫폼	ARKO 유튜브
주요 관람층	소설 독자와 사진작가 및 일반 청중		
참여자	김강(소설가), 박지음(소설가), 유희란(소설가), 케니강(사진작가)		
참여자 소개	김강 : 소설집 『우리 연젠가 화성에 가겠지만』, 『소비노동조합』이 있다. 박지음 : 소설집 『네바 강가에서 우리는』, 테마소설 『나, 거기 살아』가 있으며, 한국작가회의 소속되어 있다. 유희란 : 소설집 『사진을 남기는 사람』이 있다. 케니강 : 사진 최고위 과정 케니강 포토아카데미 원장이자 화이트 갤러리 스튜디오 대표이다.		
내용	사진작가와 소설가의 콜라보 낭독극, 언택트 시대 소설을 사진으로 보여준다. 길고 긴 코로나 시대 작품 전시회장을 잃은 사진작가에게 전시 기회를, 소설가에게는 소설을 낭독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김강, 박지음, 유희란 소설가가 자신의 소설집 속 소설 중 가장 재미난 이야기를 고른 후, 사진작가 케니강이 소설을 읽고 자신의 사진 작품 중 소설과 맞는 설정의 사진을 직접 선택해 준다. 김강, 박지음, 유희란 작가가 각 작품을 변사극으로 재미나게 읽음으로써, 독자들은 사진을 보면서 변사를 듣는다. 작품을 보러 갤러리에 갈 수 없는 지금, 유튜브로 사진도 감상하고, 이야기도 듣는 참신한 기획이다.		
조회수	2,091		



미소록

프로그램명	시로 윈크하다		
유형	강연형, 낭독형	장르	동시, 동화, 청소년 문학
제작 일시	9월 25일(토)	장소	천안 공금이 서점
공개 일시	9월 25일(토) 17:00	플랫폼	Zoom
주요 관람층	전 연령층		
참여자	김미희(시인), 소중애(동화작가), 유미희(시인), 이정록(시인)		
참여자 소개	김미희 :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도서관협력위원회위원장,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이사이다. 소중애 : 한국아동문학인협회 부회장, 눈높이아동문학회장, 충남아동문학회장이다. 유미희 :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이사이자 한국동시문학회 이사이며, 충남문학회 회원이다. 이정록 : 한국작가회의 시분과장, 충남작가회의 편집장, 만해문예학교장이다.		
내용	폰카시 <즉석백일장>을 연다. 지역 독서문화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어린이청소년 전문서점인 공금이 회원과 온라인 등 홍보를 병행하여 참가자(가족 단위 장려)를 모집한다. <폰카 시가 되다>를 쓴 김미희 시인의 시 쓰기 특강 후 글제 사진으로 시를 쓰고 즉석에서 심사 후 피드백과 함께 시상, 낭독한다. 수상작은 팟캐스트 동시메아리에서 나온다.		
참여자 수	50		





한국작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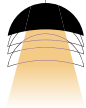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한국문학의 새로운 영토를 찾아서		
유형	대담형	장르	평론, 시
제작 일시	10월 1일(금)	장소	경의선 책거리 공간산책
공개 일시	10월 1일(금) 15:00	플랫폼	유튜브(한국작가회의)
주요 관람층	한국작가회의 회원, 일반인		
참여자	고영직(문학평론가), 김서령(소설가/사회), 남기택(문학평론가), 노지영(문학평론가), 민구(시인/기획), 최정진(시인), 황규관(시인), 홍기돈(문학평론가)		
참여자 소개	고영직 : 《내일을 여는 작가》 편집위원, 경희대학교 실천교육센터 운영위원, 50플러스캠퍼스 ‘인생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천상병 평론』, 『행복한 인문학』, 『경성에서 서울까지』, 『자치와 상상력』 등이 있다. 김서령 : 도서출판 <폴앤나> 대표이며, 소설집 『연애의 결말』 등이 있다. 남기택 : 강원대 교양학부 교수이며, 평론집 『지역, 문학, 로컬리티』 등이 있다. 노지영 : 《내일을 여는 작가》로 등단하여 김해자 시집 해설 등 다수의 활동을 하였다. 민구 : 한국작가회의 사무처장으로, 시집 『당신이 오려면 여름이 필요해』 등이 있다. 최정진 : 《실천문학》으로 등단하여, 시집 『버스에 아는 사람이 탄 것 같다』 등이 있다. 황규관 : 도서출판 <삶이 보이는 창> 대표이며, 시집 『호랑나비』 등이 있다. 홍기돈 : 가톨릭대 국문과 교수로, 평론집 『인공낙원의 뒷골목』 등이 있다.		
내용	한국작가회의는 거리두기의 내면화라는 시대적 의제를 반영하여 현재 한국문학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평론가’와 ‘시인’과 ‘지역문인’의 견해를 통해 들어보고자 평론분과 세미나 <한국문학의 새로운 영토를 찾아서>를 기획했다. 1부에서는 ‘평론가’와 ‘시인’과 ‘지역문인’의 각각 다른 견해를 통해 우리 작가들이 한국문학의 새로운 존재 형식을 재구하려는 도전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다룬다. 2부로 넘어가, 발표자와 토론자를 모시고 세대, 등단, 새로운 플랫폼 등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실시하여 독자와 소통하고 문학을 통한 공감을 나눈다.		
조회수	574		



명창순

프로그램명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동화 산책		
유형	강연형, 낭독형, 체험형	장르	동화, 동시, 아동문학평론
제작 일시	10월 2일(토)	장소	청주가로수도서관
공개 일시	10월 2일(토) 10:00	플랫폼	Zoom
주요 관람층	초등생		
참여자	명창순(동화작가), 오미경(동화작가), 이묘신(동화작가), 황수대(아동문학평론가)		
참여자 소개	명창순 : 장편동화 『개 동생 막둥이』, 『울어도 괜찮아』 등이 있다. 오미경 : 장편동화 『야옹아, 가족이 되어 줄게』, 『사춘기 가족』 등이 있다. 이묘신 : 장편동화 『강아지 시험』, 동시집 『눈물 소금』 등이 있다. 황수대 : 아동문학 평론집 『동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직관과 비유의 힘』 등이 있다.		
내용	1. 프로그램 소개 및 인사 2. 진행 작가와 주요작품 소개 3. 참여 어린이들이 키우는 동물, 또는 키우고 싶은 동물 발표 4. 진행 작가의 '반려동물 소재 동화' 소개 및 문장 낭독 - 진행 작가가 각자 반려동물을 소재로 쓴 자신의 동화작품에 대해, 쓰게 된 계기, 내용을 소개한 후, 작가가 뽑은 문장을 낭독한다. 5. 독서퀴즈 - 책을 읽지 못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포함시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손 동작으로 ①②③, OX표시로 답한다. 6. 체험활동-반려동물 문패 만들기 - 미리 배포한 나무 문패에 참여 어린이들이 키우는, 혹은 키우고 싶은 반려동물의 문패를 꾸며준다. - 반려동물에게 하고 싶은 말, 약속해 주고 싶은 내용을 넣는다. - 완성된 문패를 소개하고, 함께 감상한다. 7. 체험활동 소감 및 마무리 - 참여 어린이들의 소감을 발표하고, 진행 작가와 끝인사를 나눈다.		
참여자 수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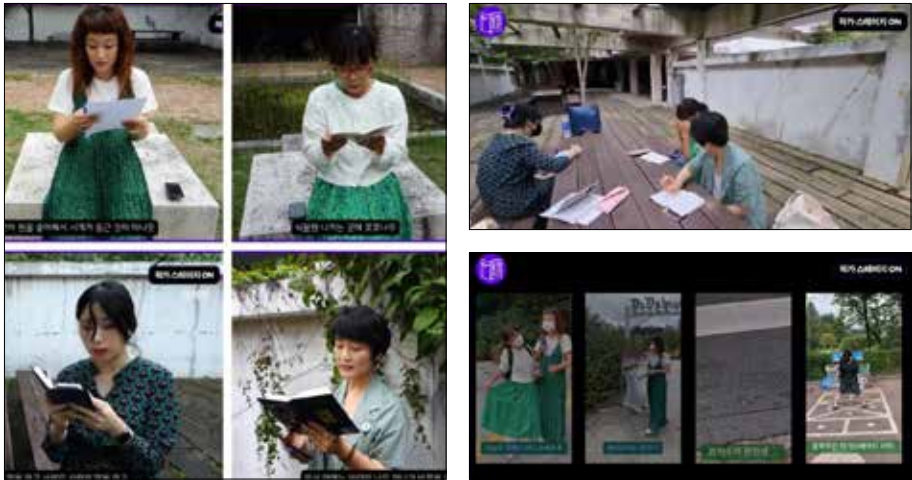
아는사람

프로그램명	하이퍼링크로 연결되는 미스터리 추리게임! <시인 K 자살사건>		
유형	참여형	장르	문화콘텐츠 기획, 시, 아트웍
제작 일시	9월 2일(목) ~ 10월 2일(토)	플랫폼	웹진 <아는사람>
공개 일시	10월 2일(토) 14:00		
주요 관람층	10~30대		
참여자	류희석(편집자), 전세은(SNS관리 운영자), 차도하(작가), 한소리(기획자)		
참여자 소개	류희석 : 전체적인 시나리오 편집 및 교정교열을 진행하였다. 전세은 : SNS 관리 및 홍보를 통해 대중/독자를 유입시켰다. 차도하 : 콘텐츠 시나리오 작업하였다. 한소리 : 웹진 <아는사람>을 운영 및 기획하고 있다. 2020 광명생각펼침 공모사업 최우수 사례 시상하였다.		
내용	하이퍼링크로 연결되는 미스터리 추리게임, 혼자서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미스터리 추리게임이다. 어느 날, 시인 K의 애인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와 어떤 사이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죄송하지만. 이것 좀 풀어주시겠어요?” 시체로 발견된 시인 K, 그리고 의문의 자살. 자살할 리가 없다는 시인 K는 어쩌서 시체가 된 채로 발견된 것일까? 어떻게 수 없이 사건과 엮여 사라진 시인 K를 찾아 나서는 ‘나’의 추리가 시작된다.		
참여자 수	72		



팀분리수거

프로그램명	곳곳 프로젝트		
유형	낭독형	장르	시
제작 일시	10월 4일(월), 10월 24일(일)	장소	식물원, 덕수궁
공개 일시	10월 8일(금), 10월 29일(금) 10:00	플랫폼	ARKO 유튜브
주요 관람층	전 연령대		
참여자	강혜빈(시인), 김은지(시인), 임지은(시인), 한연희(시인)		
참여자 소개	강혜빈 : 시집 『밤의 팔레트』가 있으며, 사진가 ‘파란피paranpee’로도 활동 중이다. 김은지 : 시집 『책방에서 빛소리를 들었다』, 『고구마와 고마워는 두 글자나 같네』가 있다. 임지은 : 시집 『무구함과 소보로』가 있다. 한연희 : 시집 『폭설이었다 그다음은』이 있다.		
내용	팀 분리수거의 시인 4명이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적인 순간을 만나본다. 캔, 플라스틱, 유리, 종이는 어떻게 감각하고 창작하는가? 우리 또 얼마나 다른지, 닮았는지 깨달아보는 본격 즉석 시 낭독회		
조회수	492		



풀앤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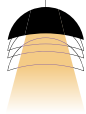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나의 첫 책 출간기		
유형	공연형	장르	소설
제작 일시	8월 29일(일)	장소	분당 이매문고 내 갤러리
공개 일시	10월 8일(금) 18:00	플랫폼	ARKO 유튜브
주요 관람층	작가지망생, 한국문학을 사랑하는 독자들		
참여자	규영(소설가), 김서령(소설가), 김하울(소설가), 송순진(소설가), 임혜연(소설가), 최예지(소설가)		
참여자 소개	규영 : 소설 『백번의 소개팅과 다섯 번의 퇴사』, 『빨강 없는 세상』, 『옥토』, 그림책 『땡스파파』, 『희망을 버려요』, 『당신의 열두달은 어떤가요』 출간하였다. 김서령 : 2003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해 소설 『작은 토끼야 들어와 편히 쉬어라』, 『어디로 갈까요』, 『티타티타』, 『연애의 결말』 등을 출간하였다. 김하울 : 2016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해 앤솔러지 『우리가 먼저 가볼게요』 참여하였고, 소설 『어쩌다 가족』, 『코스메로드』를 출간하였다. 송순진 : 앤솔러지 『언니 믿지?』에 참여하였다. 임혜연 : 앤솔러지 『언니 믿지?』, 『굿바이 마이 빌런』, 『서울은 그렇게』 등에 참여하였다. 최예지 : 2016년 『매일신문』 신춘문예로 등단, 현진건문학상 수상. 앤솔러지 『나는 그만두기로 했다』 등에 참여하였으며 소설 『애비로드』 출간하였다.		
내용	이제 소설가로 첫발을 내디딘 사람들, 아직 지망생이지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소설가가 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독자지만 작가들의 처음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나의 첫 책 출간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작가의 시작은 등단일 수도 있고, 독립출판일 수도 투고일 수도 있을 것이다. 각자의 방식으로 소설가로 살고 있는 젊은 작가 다섯 명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조회수	141		



부산인문문화예술연구소

프로그램명	비평 덕후들의 웹툰, SNS문학 비평 설명서		
유형	강연형, 대담형	장르	비평
제작 일시	10월 16일(토)	장소	부산외국어대학교
공개 일시	10월 16일(토) 15:30	플랫폼	Zoom
주요 관람층	대학생		
참여자	박형준(문학평론가), 서용태(문학평론가), 오현석(문학평론가)		
참여자 소개	박형준 : 문학비평가, 부산외대 조교수, 오늘의 문예비평 편집주간(전)이며, 『로컬리티라는 환영』, 『함께 부서질 그대가 있다면』 등이 있다. 서용태 : 문화비평가, 인문연구공동체 로두스 대표, 육군삼사관학교 강사, 민주시민교육원 부원장(전)이며, 『열린 사고와 표현』을 공저하였다. 오현석 : 현대문학 연구자,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해석과판단 비평공동체 대표(전), 오늘의 문예비평 편집장(전)이며, 『유토피아라는 물음』, 『1980년대를 읽다』를 공저하였다.		
내용	Chapter 1. 웹툰으로 사회비평하기(문학평론가 박형준) 『마음의 소리』, 『죽음에 관하여』, 『심연의 하늘』 등 웹툰을 통해서 인간의 삶, 생존, 죽음, 인간성에 대한 철학적 성찰 영역이 가능하고 이러한 영역에 대한 비평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Chapter 2. SNS문학으로 생활비평하기(문학평론가 오현석) SNS시, 디카시, SNS에세이 등을 예로 들어 문학의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으며, 기존 문학관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 이렇게 문학장의 변화에 대해 어떤 비평의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한다. Chapter 3. 문화현상으로 역사문화비평하기(문학평론가 서용태) 한류 현상, 특히 한국 전통음식, 한복, 한옥 등 한국적인 것이 진정 어떤 것이며, 무엇이 전통이고 사회문화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에 초점을 두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전통에 대한 시대를 통찰하는 시각으로 비평에 접근해야 한다.		
참여자 수	8		





과학희곡 낭독모임

프로그램명	카를 차페크 <로봇> 100주년 기념 - 2021년에 읽는 1921년의 SF 희곡		
유형	강연형, 낭독형	장르	비평, 연극
제작 일시	10월 17일(일)	장소	과학책방 갈다
공개 일시	10월 17일(일) 14:00	플랫폼	Zoom
주요 관람층	과학과 희곡에 관심있는 일반인		
참여자	김주연(평론가), 이미영(작가), 이지수(배우), 정대진(배우)		
참여자 소개	김주연 : 연극평론가, 연극학박사, 드라마터그이며, 저서 <우리 시대의 극작가> <페테르부르크, 막이 오른다>가 있다. 이미영 : 과학책방 갈다 총괄 디렉터/기획이사, 여행드로잉 작가, 저서 <어슬렁 어슬렁 여행드로잉>가 있다. 이지수 : 연극 및 뮤지컬 배우, 대표작 <안녕! 말판씨>, <에어포트베이비>, <아빠는 오십에 잠수함을 탔다> 등이 있다. 정대진 : 낭독공연 모임 '희곡읽수다' 대표, 연극배우이며, 대표작 <아웃 오브 러브>, <마른대지>, <하얀역병> 등이 있다.		
내용	세계 최초로 '로봇'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차페크의 희곡 <로봇> 창작 100주년을 맞아 100년 전 기술발전으로 인한 미래를 바라본 작가의 시선을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SF 희곡의 묘미를 낭독을 통해 소개한다. 1. 작가 및 작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줄거리 요약 카를 차페크는 체코가 자랑하는 가장 위대한 20세기 작가 중 한 사람이다. 현대의 모든 SF 작품들은 차페크의 <로봇>에 신세를 지고 있다고 많은 SF 작가들이 이야기했을 만큼, 디스토피아 문학의 선구주자이자 현대 문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작품이다. 2. <로봇>의 창작에 영향을 미친 두 가지 배경 - 제1차 세계대전: 기술 발전이 인류에게 가져온 참상 - 골렘 전설: 체코 유대인들의 전설 3. <로봇> 중 주요 부분 발췌 낭독 후 해당 테마에 대한 토론과 대답 - 로봇의 발달이 가져올 계급화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구 감소 -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위협 - 인간과 로봇의 차이, 로봇에 대한 윤리		
참여자 수	31		



김준영

프로그램명	삶의 심표가 되는 음식 소통 토크쇼 감정맛집		
유형	대담형	장르	에세이
제작 일시	9월 26일(일)	장소	스페이스청
공개 일시	10월 19일(토) 18:00	플랫폼	ARKO 유튜브
주요 관람층	전 연령층		
참여자	김준영(작가), 임재형(PD), 정용실(아나운서), 홍진윤(작가)		
참여자 소개	김준영 : 21년 차 방송작가로 KBS 「한국인의 밥상」, 휴먼다큐 「사미인곡」, 저서 『구해줘, 밥』, 『언젠가 사랑이 말을 걸면』 등이 있다. 임재형 : OBS 프로듀서다. 정용실 : KBS 아나운서로 저서 『공감의 언어』, 『서른, 진실하게 아름답게』, 『도시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 등이 있다. 홍진윤 : KBS 「한국인의 밥상」, KBS 「즐거운 책 읽기」 등을 작업하였으며, 저서 『언젠가 사랑이 말을 걸면』 을 공저하였다.		
내용	우리는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지겨울 때 음식을 먹는다.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할 때도 음식을 먹는다. 누군가와와 행복한 시간 속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음식이며 누군가가 그리울 때도 그와 함께 나누었던 음식을 떠올리며 그 시절을 추억한다. 음식은 누군가와와 소통, 관계의 기억을 품고 우리의 가슴에 남는다. 4년여 동안 KBS 「한국인의 밥상」 작가로 활동한 에세이 『구해줘, 밥』의 저자 김준영과 KBS 아나운서로 관계와 소통에 대해 오래 고민해 온 『공감의 언어』 저자 정용실 아나운서가 1시간 동안 우리가 잊고 살아온 감정을 음식이란 테마로 관계와 소통,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조회수	193		





월화수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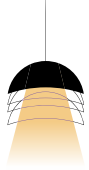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문학으로 할머니들다		
유형	대담형, 낭독형	장르	소설, 신문
제작 일시	9월 13일(월)	장소	제주 유수암리 돌집
공개 일시	10월 21일(목) 15:00	플랫폼	ARKO 유튜브
주요 관람층	전 연령층		
참여자	남정미(서평가), 백이원(소설가), 정신지(에세이스트)		
참여자 소개	남정미 : 출판 서평가, TV책방 북소리, 저서 『복툽카툽』, 2018 서점발전 공헌상을 수상하였다. 백이원 : <실천문학> 등단으로 2012·20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사업(AYAF) 선정되었으며, 소설 『소설 부산』을 공저하였다. 정신지 : 제주할망 전문 인터뷰어이며, 저서 『할망은 희망』이 있다.		
내용	할머니의 사랑은 한국 대중문화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서사였지만 최근 영화 ‘미나리’ 등으로 힘을 얻으며 국경을 넘어 더 크게 주목받고 있다. TV 드라마 ‘나빌레라’에서도 일흔여섯의 나이에 발레에 도전하는 할아버지가 등장했다. 이른바 K할머니, 할아버지의 시대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정신지 작가는 10년째 할망 전문 인터뷰어로 활동하면서 그녀들의 인생을 기록해 『할망은 희망』을 출간했다. 백이원 작가는 등단작인 <김덕길 김덕길>로 시작해 단편 <떠나간 시간의음(音)> 등 할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전하며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 오랜 시간 ‘노년’을 화두로 작품 활동을 해온 두 저자(정신지, 백이원 작가)와 함께 문학을 통해 ‘할머드는’ 시간을 마련해 공감을 나누고 연대하는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조회수	207		



창작동인 컴

프로그램명	컴의 캠핑 브이로그 & 낭독회		
유형	낭독형	장르	시, 비평
제작 일시	9월 26일(일)	장소	고창 민박집 및 정읍 숙소 일대
공개 일시	10월 23일(토) 15:00	플랫폼	ARKO 유튜브
주요 관람층	전 연령층		
참여자	이서하(시인), 이소연(시인), 전영규(평론가), 주민현(시인)		
참여자 소개	이서하 : 2016년 한국경제신문 신춘문예 시 부문으로 등단하여 시집 『진짜 같은 마음』이 있다. 이소연 : 2014년 한국경제신문 신춘문예 시 부문으로 등단하여 시집 『나는 천천히 죽어갈 소녀가 필요하다』가 있다. 전영규 : 201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평론 부문으로 등단하여 평론집을 준비 중이다. 주민현 : 2017년 한국경제신문 신춘문예 시 부문으로 등단하여 시집 『킬트, 그리고 켈트』가 있다.		
내용	제한된 시공간에서 낭독하는 기존의 낭독회 형식에서 벗어나 대자연에서 캠핑을 하며 낭독회를 꾸민다. 문학이 어렵고 딱딱하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브이로그 형식으로 재밌고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한다. 1부에서는 브이로그 형식으로 재밌고 자유롭게 낭독회 준비 과정과 작품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담고, 2부에서는 직접 찍은 영상과 결합하여 자연과 동물, 아이 등 미래의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시/에세이를 낭독한다. 이소연, 이서하, 주민현 시인은 시로, 전영규 평론가는 에세이로 코로나 시대에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한다. 명랑하고도 열정적이고, 즐겁고도 진지하게 문학을 향유하는 동인의 모습을 통해 문학의 가치와 의미를 제고하고 독서와 글쓰기의 즐거움으로 이끈다.		
조회수	461		





허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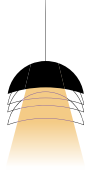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동백이 연꽃에게-너븐송이에서 하미마을까지, 당신과		
유형	낭독형, 공연형	장르	시, 소설
제작 일시	10월 23일(토)	장소	제주 만춘서점
공개 일시	10월 23일(토) 17:00	플랫폼	인스타그램(만춘서점)
주요 관람층	20~50대 문학 독자		
참여자	강방자(4.3 유족), 김이정(소설가), 레응옥안(베트남 이주여성), 허은실(시인), 홍시아(싱잉볼 연주자)		
참여자 소개	강방자 : 4.3 유족으로 <동백이 연꽃에게-너븐송이에서 하미마을까지, 당신과>에 참여하였다. 김이정 : 소설집 『네 눈물을 믿지 마』, 『그 남자의 방』, 장편 『길 위에서 중얼거리다』, 『물속의 사막』을 썼으며, 『유령의 시간』으로 제24회 대산문학상을 수상하였다. 레응옥안 : 제주 수산리 거주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으로 <동백이 연꽃에게-너븐송이에서 하미마을까지, 당신과>에 참여하였다. 허은실 : 시집 『나는 잠깐 설움다』와 산문집 『기억의 목소리』, 『내일 쓰는 일기』 등을 썼으며, 제8회 김구용시문학상을 수상하였다. 홍시아 : 제주에서 활동하는 화가이자 싱잉볼 연주자이다. 산문집 『그곳에 집을 짓다』, 『오늘, 행복하기』, 『혼자살기』, 『서른의 안녕한 여름』이 있다.		
내용	제주의 4.3과 베트남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적대적인 이념이 낳은 역사의 비극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념의 희생양은 양국 다 죄 없는 민간인들이었다. 제주와 베트남에서 희생당한 이들의 목소리를 시와 소설로 소개함으로써 희생자의 원혼을 위로하고 나아가 제주에서 베트남에 ‘평화 어깨동무’의 메시지를 전한다.		
조회수	554		



유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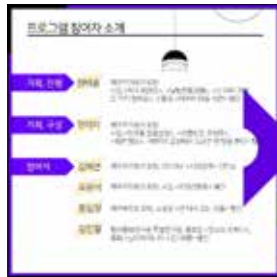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야근하면서 읽는 시		
유형	낭독형	장르	시
제작 일시	10월 6일(수)	장소	낙원상가내 전시장 d/p
공개 일시	10월 24일(일) 19:30	플랫폼	ARKO 유튜브
주요 관람층	전 연령층		
참여자	유현아(시인), 이용임(시인), 임승유(시인), 최백규(시인)		
참여자 소개	유현아 :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시집 『아무나 회사원, 그밖에 여러분』, 『주룩이 사라지는 방법』이 있으며, 현재 공공기관 팀장으로 일하는 중이다. 이용임 : 한국일보로 등단하여 시집 『안개주의보』, 『시는 휴일도 없이』를 냈으며, 현재 IT서비스 기획자로 일하는 중이다. 임승유 : 문학과사회 신인상으로 등단하여 시집 『나는 겨울로 왔고 너는 여름에 있었다』, 『아이를 낳았지 나 갖고는 부족할까봐』, 『그 밖의 어떤 것』이 있으며, 현재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일하는 중이다. 최백규 : 문학사상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하여 동인 시집 『한 줄도 너를 잊지 못했다』를 썼으며, 창작동인 ‘빨’로 활동 중이다.		
내용	가장 돈 못 버는 직업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시인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시인이면서 다른 직업으로 밥벌이를 하는 시인들이 퇴근 후 모여 시인의 목소리로 자신의 시를 읽고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시인의 이야기를 나눈다. 일하는 마음과 퇴사하고 싶은 감정을 함께 이야기하며 일과 관련된 자신의 시를 낭독하고,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시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문학과 삶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조회수	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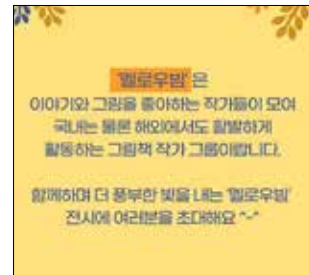
호라이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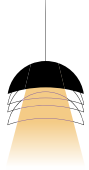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제주 문학 팟캐스트		
유형	대담형	장르	시, 소설, 동화
제작 일시	10월 16일(토), 11월 6일(토)	장소	아트락소극장
공개 일시	10월 24일(일), 11월 14일(일) 10:00	플랫폼	팟빵(시웃서점)
주요 관람층	전 연령층		
참여자	김신숙(시인), 김진철(동화작가), 김혜연(시인), 러피(엔지니어), 오광석(시인), 장이지(시인), 현택훈(시인), 홍임정(소설가)		
참여자 소개	김신숙: 제주작가회의 회원으로 시집 『우리는 한쪽 밤에서 잠을 자고』, 동시집 『열두 살 해녀』를 발간하였다. 김진철 :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으로 동화집 『잔소리 주머니』, 동화 『낭이와 타니의 시간 여행』을 발간하였다. 김혜연: 제주작가회의 회원으로 2019년 『시와경계』 신인상을 받았다. 러피: 제주 문학 팟캐스트 엔지니어로 참여하였다. 오광석: 제주작가회의 회원으로 시집 『이계견문록』을 발간하였다. 장이지 : 제주작가회의 회원으로 시집 『안국동 울음상점』, 『라플란드 우체국』, 『레몬 옐로』, 『해저의 교실에서 소년은 흰 달을 본다』를 발간하였다. 현택훈 : 제주작가회의 회원으로 시집 『지구 레코드』, 『남방큰돌고래』, 『난 아무 곳에도 가지 않아요』, 산문집 『제주어 마음 사전』을 발간하였다. 홍임정: 제주여민회 회원으로 소설집 『먼 데서 오는 것들』을 발간하였다.		
내용	제주가 고향인 젊은 작가들은 서울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제주의 젊은 작가를 찾기도 힘든데 이제는 몇 년 지나면 젊은 작가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나이가 되는 아직한 젊은 작가들이 모여 제주 문학을 말한다. 시, 소설, 동화 등 여러 갈래의 작가가 모여 제주 문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주라는 경계 안과 밖에서 어떻게 앞으로의 문학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팟빵 팟캐스트를 통하여 전국 어디서든 들을 수 있기에 로컬 문학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고, 독자들에게 좀 더 친근하면서도 사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문학적 자장을 제시한다.		
참여자 수	8		



멜로우빔

프로그램명	빔프로젝트 - 그림책 작가들의 작당		
유형	대담형	장르	그림책
제작 일시	10월 30일(토)	장소	꼬리달린책방
공개 일시	10월 30일(토) 14:00	플랫폼	인스타그램(멜로우빔)
주요 관람층	전 연령대 독자 및 그림책 산업 종사자		
참여자	고혜진, 김준영, 김희영, 계명진, 유가은, 이은지, 이진화, 홍승연, 황성혜(이하 그림책 작가)		
참여자 소개	고혜진 : 2020 볼로냐 국제 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선정, 『행복한 여우』, 『곰 아저씨의 선물』, 『집으로』, 『어느 여름날』, 『뿌리지직 123』이 있다. 김준영 : 『난 남달라』, 『할아버지와 순돌이는 닮았어요』, 『그럴 때가 있어』 외 다수의 책을 출간하였다. 김희영 : 2020년 아침독서 영유아 추천도서 선정, 『나랑 같이 놀자』 외 다수의 책을 출간하였다. 계명진 : 제7회 앤서니브라운 그림책 공모전 최우수작 선정, 『치즈를 찾아라』 외 다수의 책을 출간하였다. 유가은 : 『행성-P』, 『연결-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외 다수의 책을 출간하였다. 이은지 : 『우주에서 온 초대장』, 『코송이 무술』, 『바니의 사계절 미용실』 외 다수의 책을 출간하였다. 이진화 : 2020년 볼로냐 국제 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선정, 『봉봉이의 아주 특별한 모자』 외 다수의 책을 출간하였다. 홍승연 : 제21회 눈높이 아동문학대전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나랑 놀아요』, 『슬픔을 건너다』, 『동동 비구름 밴드』 외 다수의 책을 출간하였다. 황성혜 : 2018년 볼로냐 국제 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되었다.		
내용	그림책 작가그룹 <멜로우빔>은 2017년부터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리는 국제 아동도서전에 함께 참여하여 미출간 그림책 더미북과 도서를 전시하고 해외의 출판사들과 미팅을 통한 도서 수출 등의 성과를 이루어 왔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중단되었던 그룹 활동을 국내 어린이책 서점과 함께 하는 전시 & 기부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실행하고자 하며, 그림책을 시작으로 파생할 수 있는 전시, 굿즈 제작, 캐릭터 제작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을 시도한다. 궁극적으로 그림책의 제1의 독자인 어린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한다.		
조회수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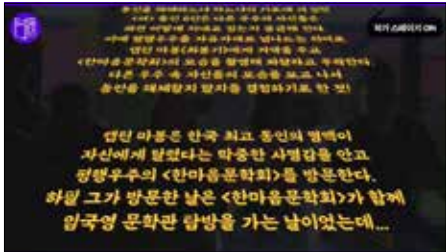
강화진

프로그램명	문학, 회진(回診)가다-마동댁, 詩로 쓰는 레시피		
유형	낭독형, 강연형	장르	시
제작 일시	11월 5일(금)	장소	전남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노인회관
공개 일시	11월 8일(월) 17:00	플랫폼	ARKO 유튜브
주요 관람층	마을 주민		
참여자	강희진(시인/연출자), 고영서(시인), 김미승(청소년소설가), 안오일(아동문학가), 오선덕(시인/영상감독), 이지담(시인)		
참여자 소개	강희진 : 전남대 학술연구교수로 2004년 <문학사상> 신인상을 수상하였으며, 시집 『일요일의 우편배달부』, 산문집 『했으나 하지 않은 날들이 좋았다』 등을 출간했다. 고영서 : 2004년 광주매일 신춘문예에 당선되었으며, 시집 『기린울음』, 『연어가 돌아오는 계절』 등을 출간했다. 김미승 : 광주전남작가회의 부회장으로 작품집 『저고리 시스터즈』, 『검정치마 마트로시카』 등 다수의 작품을 출간했다. 안오일 : 청소년시집 『그래도 괜찮아』, 청소년소설 『녹두밭의 은하수』 등을 썼고, 눈높이 대교 아동문학상, 송순 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오선덕 : 광주전남작가회의 사무처장으로 2015년 시 <시와 사람>으로 등단하였고,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이다. 이지담 :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으로 2010년 <서정시학> 신인상 수상하여 시집 『고전적인 저녁』, 『너에게 잠을 부여주다』 등을 출간했다.		
내용	코로나 시대, 심리적 방벽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문학행사-문학, 회진(回診)은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소외 마을을 찾아가 마을 주민들과 함께 문학 이야기와 시 낭송을 통해 소통과 공감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화합의 장을 만든다. 총 35가구 중 70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85%에 달하는 마동마을에서 주민들과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림을 곁들인 시나 짧은 글을 쓰고 낭송하는 시간을 갖는다.		
조회수	98		



소설창작동인 어

프로그램명	한마음문학회		
유형	공연형	장르	소설
제작 일시	9월 26일(일)	장소	대학로 스토리강 연습실
공개 일시	11월 8일(월) 18:00	플랫폼	ARKO 유튜브
주요 관람층	20~30대		
참여자	안준원(소설가), 이원석(소설가), 이현석(소설가), 임국영(소설가), 조진주(소설가), 최유안(소설가)		
참여자 소개	안준원 : 2018년 현대문학 신인추천으로 등단하여 2018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에 선정되었다. 소설집 『곰곰 무슨 곰』, 희곡집 『나는 광주에 없었다』가 있다. 이원석 : 2019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에 단편소설 「없는 사람」을 발표하며 등단하였고, 레이블 <공전> 소속이다. 이현석 : 2017년 중앙신인문학상으로 등단하였고, 제11회 젊은작가상을 수상했다. 소설집 『다른 세계에서서도』가 있다. 임국영 : 2017년 창작과비평을 통해 등단하였고, 소설집 『어크로스 더 투니버스』를 출간하였다. 조진주 : 2017년 현대문학 신인추천으로 등단하였고, 2020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에 선정되었으며, 소설집 『다시 나의 이름은』이 있다. 최유안(최정애) : 201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였고, 2018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에 선정되었으며, 2020 대산창작기금을 받았다. 소설집 『보통 맛』이 있다.		
내용	소설 속 등장인물을 창조해내는 데 익숙한 작가가 스스로 하나의 인물을 만들고 그를 연기하며 색다른 의미를 만들고 독자들에게는 신선한 재미를 풀어놓는 시간을 갖는다.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의 등장에 발맞추어 모든 매체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문학은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 문학이 점잖은 장르라는 오래된 인식 때문일 수도 있고, 텍스트 매체가 지닌 한계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러한 인식과 한계를 스포츠 형식의 영상물 제작을 통해 극복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 보고자 한다.		
조회수	181		





북스피리언스

프로그램명	가까워 톡 - 나의 고양이가 되어주렴		
유형	낭독형	장르	시
제작 일시	10월 10일(일)	장소	서울 마포구 연남동과 성산동
공개 일시	11월 11일(목) 11:00	플랫폼	유튜브(북스피리언스)
주요 관람층	전 연령층		
참여자	박소란(시인), 유지현(책방 사춘기 대표), 정선희(촬영감독), 지현아(북스피리언스 대표), 크로크노트(음악가)		
참여자 소개	박소란 : 시집 [한 사람의 달힌 문] 등을 출간했다. 유지현 : 성산동에서 책방 사춘기를 운영하고 있다. 정선희 : 단편영화 [서른 지영] 등에서 연출과 각본을 맡았다. 지현아 : 연남동에서 책방 북스피리언스를 운영하고 있다. 크로크노트 : 프랑스어로 ‘서투른 음악가’라는 뜻으로, 1집 <je suis croque-note>와 2집 <작은 밤>, 두 장의 앨범을 낸 싱어송라이터이다.		
내용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서 서점을 하는 두 서점 운영자가 고양이 언어를 통역해 주는 어플을 사용하여 동네 고양이들을 인터뷰한다. 인간의 행동학에 기반한 동물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의 정확도나 신뢰도에 관한 강한 의심을 토대로 하여, 고양이의 말을 인간은 왜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을까에 포커스를 두고 영상 취재, 편집한 뒤, 시인에게 보여주고 시 한 편을 청탁한다. 거꾸로 보면 문학은 타인이 진술하는 나의 서사다. 그것은 대화의 시작이기도 하다. 고양이의 말을 인간의 말로 바꾸는 일이 고양이에게는 무의미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이해해 보려는 노력은 어떤 개선을 제공할 것이고 하나의 내려티브가 된다.		
조회수	192		



(사)한국시인협회

프로그램명	포스트 코로나 희망의 시 콘서트		
유형	낭독형, 공연형	장르	시
제작 일시	11월 13일(토)	장소	서천 국립생태원 대강당
공개 일시	11월 16일(화) 18:00	플랫폼	유튜브(문학tv Silk road)
주요 관람층	한국시인협회원,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외, 서천문화원 외, 국립생태원 직원		
참여자	구재기(시인), 더류(음악양상블), 문정영(시인), 박무웅(시인), 송진(시인), 이채민(시인), 장인무(시인)		
참여자 소개	구재기 : 1978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하여 시집 『자갈 전답』 외 다수의 책을 출간하였으며, 충남시인협회장, 충남문인협회장이다. 더류 : 대표 김면지를 중심으로 해마다 인천과 서울 중심으로 다수의 공연을 하고 있다. 나태주 시인의 창작 시 노래와 시극을 주로 다룬다. 문정영 : 1997년 <월간문학>으로 등단하여 시집 『두 번째 농담』 외 다수의 책을 출간했다. 계간 <시산맥> 대표이자 (사)한국시인협회 이사이다. 박무웅 : 1995년 <심상>으로 등단하여 시집 『내 마음의 UFO』 외 다수의 책을 출간하였으며, 화성예총회장, (사)한국시인협회 이사이다. 송진 : 1999년 <다층>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시집 『지옥에 다녀오다』, 『미장센』, 『복숭아빛 복숭아』 등을 출간했다. 반연간지 『엄브렐라』 발행인이다. 이채민 : 2004년 <미네르바>로 등단하여 시집 『동백을 기다리다』 외 다수의 책을 출간했다. 계간 <미네르바> 주간, (사)한국시인협회 이사이다. 장인무 : 문학세계, 시세계 신인상(2016)을 받았으며, 시집 『물들다』가 있다.		
내용	팬데믹이라는 고난 속에서 다시 희망을 얘기하고자 (사)한국시인협회에서는 회원 430명이 참여하여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화집을 발간하였다. 본 협회의 오랜 전통인 가을 세미나에서 “희망과 극복”이라는 주제로 시 낭독과 공연, 그리고 걸개로 제작한 시화를 거리에 전시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생각해 보고 고난을 헤쳐나가는 의지를 다지고자 한다.		
조회수	163		





신정민

프로그램명	시, 내 삶에 입맞추다		
유형	낭독형	장르	시
제작 일시	9월 6일(월)~9월 29일(수)	장소	부산 시민지원센터, 요산문학과, 북살롱 부산, 임광선 북카페
공개 일시	11월 16일(화) 19:30	플랫폼	ARKO 유튜브
주요 관람층	30-50대 장애인		
참여자	신정민		
참여자 소개	신정민 : 한국작가회의 회원. 부산작가회의 회원으로 금정도서관 상주작가(2019), 요산문학과 아카이빙 참여작가(2020), 시민도서관 장애우실 현대 시인 읽기 프로그램 강사이다. 시집으로 『저녁은 안녕이란 인사를 하지 않는다』 외 4권이 있다.		
내용	읽기 쉬운 현대 시 30편을 선정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점자 시집을,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인들에게는 같은 내용의 소리집을 제작, 제공한 다음 준비된 자료를 함께 읽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음성 녹음 파일도 활용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위로와 치료를 받은 후 참여자들도 시 창작에 참여하였다.		
조회수	116		



모드4

프로그램명	38분 동안 지구멸망소설 릴레이 쓰기		
유형	참여형	장르	소설, 희곡
제작 일시	11월 17일(수)	플랫폼	Zoom
공개 일시	11월 17일(수) 20:00		
주요 관람층	전 연령층		
참여자	이홍도(극작가), 임승훈(소설가)		
참여자 소개	이홍도 : 2017 SPAF 젊은 비평가상佳作(공동수상), 2020 한국일보 신춘문예 희곡에 당선되었다. 대표작으로 <미국연극> 3부작 및 <이홍도 자서전> 2부작 등이 있다. 임승훈 : 2011년 현대문학 소설 부문으로 등단하여 2019년 소설집 『지구에서의 내 삶은 형편없었다』를 출간했다.		
내용	참여자들과 짧은 재난소설을 릴레이 형태로 써본다. 재난상황을 설정하고 돌아가며 1~2 문장씩을 더하는 방식으로 총 2편의 손바닥 소설을 완성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소재가 문학이 되는 순간을 체험한다.		
조회수	57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프로그램명	비평의 새로운 영역과 기능		
유형	대담형	장르	평론
제작 일시	11월 6일(토)	플랫폼	Zoom, ARKO 유튜브
공개 일시	11월 19일(금) 16:00		
주요 관람층	문학연구자, 문학에 관심을 둔 대중		
참여자	김남혁(문학평론가), 김세림(문학연구자), 김지은(문학평론가), 안서현(문학평론가), 안지나(문학평론가), 오형엽(문학평론가), 유인혁(문학연구자), 이영준(기계비평가), 이용희(문학연구자), 정정원(문학연구자), 최현식(문학평론가),		
참여자 소개	김남혁 : 국문학자, 문학평론가, 현재 국민대학교 교수이다. 김세림 : 문학연구자, 한양대학교에서 <설득형 시조의 담화구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강사이다. 김지은 : 문학평론가(아동문학/청소년문학), 현재 서울예술대학교 교수이다. 안서현 : 국문학자, 문학평론가, 현재 서울대학교 연구교수이다. 안지나 : 한일비교문학자, 문학평론가, 현재 오키나와국제대학 준교수이다. 오형엽 : 국문학자, 문학평론가, 현재 고려대학교 교수이다. 유인혁 : 한국문학 연구자, 현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이다. 이영준 : 기계비평가, 현재 계원예술대학교 교수이다. 이용희 : 국문학자, 작가, 문학평론가, 현재 청강대학교 교수이다. 정정원 : 한양대학교 한국미래문화연구소 상임 연구원, 대구 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산학협력교수이며, 대표 저서로 『소년법』이 있다. 최현식 : 문학연구자, 한국문학평론가이며, 현재 인하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이다.		
	한국문학비평은 시와 소설이라는 전통적 장르를 대상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를 통해 문학과 문학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창작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웹 2.0의 시대에 통과하면서 문학은 시와 소설의 장르를 넘어서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문학의 변화는 비평의 변화와 맞물려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비평의 목소리들이 출현하고 있다. 장르문학비평, 영 어덜트 문학비평, 웹 소설 비평, 기계비평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새로운 비평적 활동들은 시와 소설을 다뤄온 전통적인 비평의 역할 가운데 어떤 부분을 지양하고 보완하는가. 반대로, 전통적인 비평의 기능은 새로운 비평의 어떤 부분을 지양하고 보완하는가. 이 같은 상호적인 질문들에 집중함으로써 한국문학비평의 새로운 영역과 기능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 같은 본 협회의 기획은 2021년 문학주간 전체 키워드인 “다양성”, “미래의 문학”, “새로운 매체” 등과 긴밀히 공명한다.		
조회수	41		



박진경

프로그램명	캣츠아이세이		
유형	낭독형	장르	시, 동시
제작 일시	11월 1일	장소	사운드 드림
공개 일시	11월 19일(금) 17:00	플랫폼	오디오클립 (고양이를 사랑한 두루미)
주요 관람층	20~30대		
참여자	박진경(시인), 예진(성우)		
참여자 소개	박진경: [고양이를 사랑한 두루미]로 활동 중이다. 예진: 사운드 드림 소속, 여성 성우이다.		
내용	2020년에 경기문화재단을 통해 코로나 극복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양시립 소나무 어린이집 원아들의 그림과 본인의 동시로 현수막을 제작하며, 아이들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생생한 동시 극장을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공개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양이, 사람, 자연의 소리가 어우러진 오디오극을 위해 강원도 원주 토지문화관 창작실에서, 그리고 경기도 거주지에서 틈틈이 현장 녹음을 하여 오디오 대본을 쓰고, 위와 어울리는 목소리의 성우를 섭외하여, 네이버 오디오 클립 채널로 2개의 클립이 송출되었다. 1부: 2021. 다시 박경리 MBC 경남 <작가 박경리>를 통해 복원한 박경리 선생님의 육성과 강원도 원주 토지문화관 창작실에 거주하며 녹음한 자연의 소리가 어우러지며 <2021. 생명론>에 대해 다시 묻는다. 2부: 2021. 오늘 마주한 고양이 울치, 동치, 아치, 끈치, 레오 그리고 두루미, 초등학교 근처에 사는 시도와 꼬꼬마들의 목소리로 <2021, 오늘 마주한> 생명들의 생생한 소리를 담아본다.		
조회수	134		



건양대학교 이주민사회통합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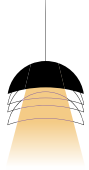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시로 소통하는 멀티컬처(MultiCulture)		
유형	낭독형	장르	시
제작 일시	11월 13일(토)	장소	김홍신 문학관, 박범신문학콘텐츠연구소
공개 일시	11월 23일(화) 9:00	플랫폼	ARKO 유튜브
주요 관람층	전 연령층		
참여자	ADNAN MD TAYEB(방글라데시, 정부초청 장학생), ALLAYOROV MUZAFFAR(우즈베키스탄, 정부초청 장학생), OTOKHINE PRECIOUS OGECHI(나이지리아, 정부초청 장학생), SILVA NARETH LUCAS LEAL DA(앙골라, 정부초청 장학생), TSHO DEKI(부탄, 정부초청 장학생), VILCNIK LUCIJA(슬로베니아, 정부초청 장학생), WU ZONGJUN(중국, 건양대학교 한국어 연수생), 라운도(건양대학교 교수, 송정란(시인), 윤문자(시인), 장수현(시인)		
참여자 소개	ADNAN MD TAYEB : 방글라데시 출신 정부초청 장학생이다. ALLAYOROV MUZAFFAR : 우즈베키스탄 출신 정부초청 장학생이다. OTOKHINE PRECIOUS OGECHI : 나이지리아 출신 정부초청 장학생이다. SILVA NARETH LUCAS LEAL DA : 앙골라 출신 정부초청 장학생이다. TSHO DEKI : 부탄 출신 정부초청 장학생이다. VILCNIK LUCIJA : 슬로베니아 출신 정부초청 장학생이다. WU ZONGJUN : 중국 출신 건양대학교 한국어 연수생이다. 라운도 : 건양대학교 명예교수. 인도 델리대학원 M.Phil 정치학박사. 서울신문 뉴욕특파원, 워싱턴특파원을 역임했다. 송정란 : 건양대학교 교수이자 건양대 이주민사회통합연구소장이다. 1990년 <월간문학>을 통해 등단하였으며, 200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조 부문에 당선되었다. 시집 『불의 시집』, 『화목』, 『허튼증 쌓기』, 평문집 『한국 시조시학의 탐색』, 『스토리텔링의 이해와 실제』 등을 작업했다. 윤문자 : 1995년 <문학과 의식>으로 등단하여 충남문학대상, 충남논산예술대상 수상하였으며, 시집 『나비를 부르는 여자』 등을 출간했다. 장수현 : 건양대학교 이주민사회통합연구소 연구원으로 199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조 부문에 당선되었으며, 시집 『기억의 모서리에 푸른빛이 스며 있다』, 『석탑은 최초의 우주로켓』을 썼다.		
내용	논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정란 시인, 장수현 시인, 윤문자 시인이 자작시와 번역시를 낭송하고 작품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외국인들이 한국의 현대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또한 논산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모국의 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낭송하는 과정을 통해 작가와 외국인 참여자 간의 문화적 공감대와 다문화적 감수성을 형성하는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조화수	520		



창작동인 어흥

프로그램명	어흥! 부산 랜선 여행		
유형	대담형	장르	동화
제작 일시	11월 25일(목)	장소	김해 안디옥교회 본당
공개 일시	11월 26일(금) 19:00	플랫폼	유튜브(막동심이)
주요 관람층	아동, 청소년과 문학에 관심 있는 성인		
참여자	박미경(특별출연, 동화작가), 박미라(동화작가), 안미란(동화작가), 이자경(동화작가), 한희정(동화작가), 황선애(동화작가)		
참여자 소개	박미경: 『동래성에 부는 바람』, 『박차정』 외 다수의 책을 출간하였다. 박미라: 『금발머리 네 동생』, 『콧물 빼는 할머니』, 『금슬이 열쇠를 찾아라!』 등을 썼다. 안미란: 창비좋은어린이상 대상, 부산아동문학상을 수상했다.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 『내가 바로 슈퍼스타』, 『두 발 세 발 네 발』 외 40여 권의 책을 작업했다. 이자경: 부산아동문학 신인상, 황금펜아동문학상, 부산아동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주인공처럼 주인공당개』, 『거북이가 간다』, 『오만데 삼총사의 대모험1 황옥공주의 구슬을 찾아라(공저)』를 작업했다. 한희정: MBC금성창작동화 단편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월화수목 그리고 돈요일』 등을 출간했다. 황선애: 부산아동문학 신인상, 한국안데르센상을 수상했으며, 『수상한 콩콩월드 대모험』, 『빨개봇이 사라졌다』를 출간했다.		
내용	부산에 위치한 역사 현장을 탐방하며 유쾌한 문학 수다판을 펼쳐본다. 1. 부산포개항문화관(안용복 전시관), 정공단, 증산공원 일대 안용복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고, 임진왜란 때 활약한 정발 장군을 기리는 정공단을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으려 해체한 것과 광복 후 다시 재건립한 정공단의 이야기 등을 나눈다. 2. 임진왜란 박물관과 동래읍성 지하철 공사 중 대량의 임진왜란 유골이 발견된 수안역 내 임진왜란 박물관, 동래읍성을 박미경 작가를 초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임진왜란을 다룬 『동래성에 부는 바람』과 동래출신이자 여성 독립운동가 박차정을 조명한 『박차정』을 창작한 작가의 경험과 뒷이야기를 나눈다. 3. 용두산 공원 (근대화시기의 ‘초량왜관’) 일제강점기 신사였다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용두산 공원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와 ‘변박’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명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조희수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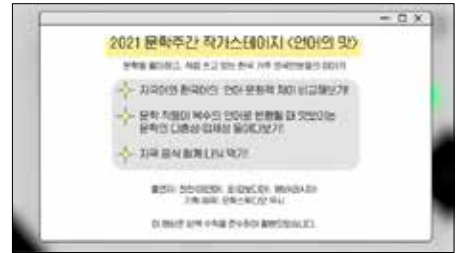
신동엽학회

프로그램명	신동엽, 별들과의 대화		
유형	강연형, 낭독형	장르	시
제작 일시	10월 16일(토)	장소	혜화동 '책 읽는 사회' 강당
공개 일시	11월 30일(화) 16:00	플랫폼	ARKO 유튜브
주요 관람층	시민, 학생, 연구자, 교사		
참여자	김응교(시인), 김지윤(시인), 맹문재(문학평론가), 신좌섭(시인), 유성호(문학평론가), 정세진(시인), 최중천(시인), 홍승진(문학평론가)		
참여자 소개	김응교 : 신동엽학회 학회장이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이며, 시집 『씨앗/통조림』, 저서 『좋은 언어로 신동엽 평전』, 『서른 세 번의 만남 백석과 동주』 등이 있다. 김지윤 : 숙명여자대학교 연구교수. 서울신문 신춘문예 (평론), 문학사상 신인상(시)으로 등단하였으며, 제17회 시와시학상을 수상하였고, 『다시 새로워지는 신동엽』 (공저) 등을 썼다. 맹문재 : 안양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문학정신으로 등단하여 전태일문학상, 윤상원 문학상, 고산문학대상을 수상했다. 시집 『책이 무거운 이유』, 『사과를 내밀다』, 『사복 골목에서』 등을 썼다. 신좌섭 : 신동엽 시인의 장남. 서울대 의과대학교수이자 세계보건기구 교육개발협력센터장, 한국퍼실리테이터협회 회장이며, 시집 『네 이름을 지운다』를 썼다. 유성호 :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이자 인문대 학장. 대산문학상, 부석평론상, 팔봉비평문학상, 김한태 평론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서정의 건축술』, 『문학으로 읽는 조용필』 등이 있다. 정세진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 연구센터 교수, 모스트바국립대 역사학 박사과정을 밟았으며, 저서 『러시아 이슬람: 역사, 전쟁, 이념』, 『중앙아시아 민족정체성과 이슬람』, 『중앙아시아 지역연구와 인문학』 등을 썼다. 최중천 : 세계의 문학, 현대시학으로 등단하여 오장환문학상, 신동엽문학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시집 『눈물은 푸르다』, 『인생은 짧고 기계는 영원하다』 등을 썼다. 홍승진 :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신동엽학회 연구이사이며, 저서로는 『천상과 지상 사이의 형상-김중삼 시의 내재적신성』, 『해방 전 임화 시의문명 비평적 애도』 등을 썼다.		
내용	신동엽이 좋아했던 작품, 문인들, 그리고 그의 벗들을 만나는 시간. 신동엽 시인은 우리 곁에 있었던 실제 인물인데 우리는 마치 없는 사람 마냥 생각하고 있지 않나. 만약 신동엽이 좋아했던 인물들, 혹은 다른 사상가가 신동엽을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까? 신동엽 시인의 장남이자 유족 대표인 신좌섭 교수가 신동엽 시인의 입장에서 그의 인간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러시아 문학과 신동엽, 김수영, 박봉우, 김중삼과 신동엽,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시각에서 보는 신동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조회수	256		



문학스튜디오 무시

프로그램명	언어의 맛: 복수의 문학, 언어의 이합집산		
유형	낭독형	장르	시, 소설, 동화
제작 일시	10월 3일(월)	장소	강남 모드스튜디오
공개 일시	12월 7일(화) 11:00	플랫폼	ARKO 유튜브
주요 관람층	국내외 문학 관심층 및 외국어와 통번역 관심층		
참여자	노희영(편집), 문학스튜디오 무시(기획, 제작), 시 스레이포(번역가), 윤재민(촬영) 이예바(번역가), 찬찬(번역가)		
참여자 소개	노희영 : 삼성전자 콘텐츠팀에 근무하며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반재윤 : 문예지 《TOYBOX》 편집위원으로, 《TOYBOX》, 잡지 《Scent》, 《Break》에 시, 에세이, 희곡을 기고했다. 안지연 : 문예지 《TOYBOX》 편집위원으로, 《TOYBOX》, 문학잡지 《비릿》, 책 『계란 깨는 여자들』에 시, 에세이를 기고 및 게재했다. 이아호 : 문예지 《TOYBOX》 편집장으로, 《TOYBOX》, 문학잡지 《비릿》에 시와 에세이를 게재하였다. 시 스레이포 : 캄보디아 출생으로 캄보디아 언어 교재 집필 및 번역 활동을 하고 있다. 논문 『How Do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Perceive Child's English Education?』 (2019) 등을 통해 한국에서의 다국어 사용과 교육에 대해 연구중이다. 윤재민 : 영상 스튜디오 [IMAGE&NOISE]에서 활동중이다. 이예바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 대학원 교수이자 방송인이다. 찬찬 : 미안마 출생으로, 경희대 한국어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동화 월간지 제작했으며 유튜브 'Study with Chan Chan'을 운영 중이다. KBS<이웃집 찰스>, SBS<집사부일체> 등에 출연했다.		
내용	<언어의 맛>은 한국어, 그리고 어쩌면 낯선 3가지 외국어(미얀마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의 글맛, 말맛, 언어를 맛보는 시간으로 기획되었다. 촬영 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출신 작가 3인(찬찬, 시 스레이포, 이예바)은 '자국 음식'을 주제로 쓴 에세이를 작성했다. 영상에서 이들은 미리 쓴 에세이 일부를 낭독하고, 그 중 일부를 자국어로 번역·낭독한다. 작가들은 에세이에 등장한 각 나라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언어의 글맛, 말맛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렇게 프로그램은 문학 작품이 복수의 언어로 변환될 때 엿보이는 문학의 다층성과 입체성을 들여다본다.		
조회수	242		



작가 스테이지 - 주제지정방식(7개)

날짜	시간	작가(참여 단체)	프로그램	진행 횟수	조회수
10월 15일(금) 10월 18일(월)	18:00	에스비아이 엔터테인먼트	우리를 다시 켜다	2	140
10월 16일(토) 10월 23일(토) 11월 6일(토)	15:00	에세이클럽	나의 삶이 당신에게 이야기가 될 때	3	210
11월 6일(토)	14:00	윤미희	그녀의 스트립쇼 혹은 ‘너’라는 악령 쫓기	2	217
11월 7일(일)	14:00	다채	독자에게 전하는 예술 선물 <다채>	1	103
11월 19일(금) 11월 20일(토) 11월 21일(일)	20:00 14:00 14:00	SAFE & AMENITY	재즈피넛 블렌딩 메타버스 팝업 스토어	3	75
11월 21일(일)	18:00	우리나비	그림책 사회학 - 그림책과 그래픽노블 안에 깃든 문화다양성 이야기	1	71
11월 30일(화)	17:00	인문놀이 협동조합	산지등대 제주詩지	1	202
총 합				13	1,018

세부 프로그램

에스비아이 엔터테인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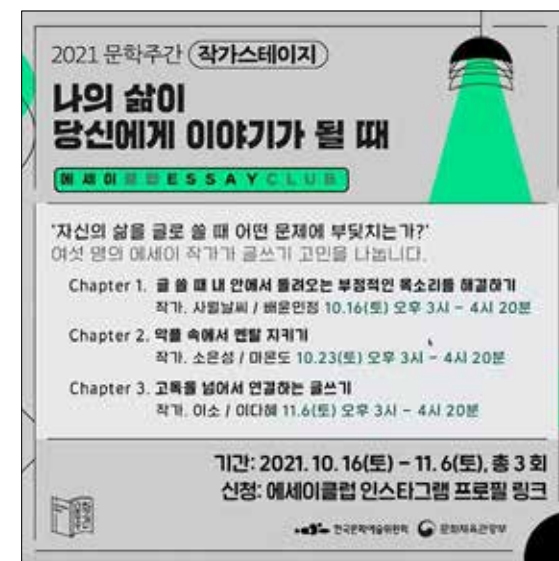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우리를 다시 켜다		
유형	공연형	장르	시, 음악
제작 일시	9월 30일(목)	장소	썬스튜디오
공개 일시	10월 15일(금), 10월 18일(월) 18:00	플랫폼	유튜브(JUST LIVE)
주요 관람층	전 연령층		
참여자	박은정(시인), 이호진(기타연주자), 서윤후(시인)		
참여자 소개	박은정 : 2011년 시인세계 신인상을 받았다. 이호진 : 부산예술고등학교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 중이며, 38회 해외파견콩쿨 1등, 21회 바르코 콩쿨 2등을 했다. 서윤후 : 2009년 《현대시》로 등단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 『어느 누구의 모든 동생』, 『휴가저택』, 『소소소 시시시』, 『무한한 밤 홀로 미러볼 켜네』와 산문집 『방과 후 지구』, 『햇빛세입자』, 『그만두길 잠한 것들의 목록』이 있다. 제19회 〈박인환문학상〉을 수상했다.		
내용	클래식 기타 연주와 문학 “시” 작가의 공연형 프로그램으로 젊은 작가 서윤후, 박은정과 신진 클래식 기타 연주자 이호진이 독자들의 진솔한 질문을 통해 작가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작품을 낭독한다. 이번 공연은 청년들의 삶을 주제로 낭독과 클래식 기타 연주가 함께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더욱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학 온라인 미디어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조회수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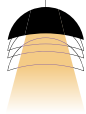




에세이클럽

프로그램명	나의 삶이 당신에게 이야기가 될 때		
유형	강연형	장르	수필
제작 일시	10월 16일(토)	장소	마포출판문화진흥원 (플랫폼P), 신여성 작업실
공개 일시	10월 16일(토), 10월 23일(토), 11월 6일(토) 15:00	플랫폼	Zoom
주요 관람층	20~50대 여성, 에세이 작가 및 에세이 작가 지망생		
참여자	마문도(작가), 배운민정(작가), 사월날씨(작가), 소은성(에디터), 이다혜(작가), 이소(작가)		
참여자 소개	마문도 : 팟캐스트 [마음을 썼다 내가 좋아졌다], [에세이클럽]의 공동 진행자이자 브런치 작가. 에세이 『나도 내 마음을 몰라서』를 출간 예정이다. 배운민정 : 글 쓰는 여성들의 공유 작업실 <신여성> 대표. 에세이 『나는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아내라는 이상한 존재』의 저자이다. 사월날씨 : 에세이 『결혼고발』, 『서른에 얻은 말과 버린 말』 저자. 여성생활 미디어 펀치 『여자 앞길 막는 사회』를 연재하였다. 소은성 : 『마음을 썼다 내가 좋아졌다』, 『어색하지 않게 사랑을 말하는 방법』 저자. 여성을 위한 글쓰기 수업 ‘소글워크숍’ 대표이며, 팟캐스트 [마음을 썼다 내가 좋아졌다]의 공동 진행자이다. 이다혜 : 프리랜서 에디터이자 문화기획자, 매거진 <프리애프라> 편집장이다. 에세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법』을 썼으며, 팟캐스트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의 공동 진행자이다. 이소 : 『검도: 몸과 마음을 쪽 찢는 시간』을 썼다.		
내용	‘자신의 삶을 글로 쓸 때 어떤 문제에 부딪치는가?’ 여섯 명의 에세이 작가가 글쓰기 고민을 하나씩 주제로 삼아서 돌아가며 발제를 진행한다. 각자 어떤 방식으로 문제에 대처했는지 노하우를 나누며,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자 하는 이들에게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제 이후 참여자들과의 질의응답, 참여자들 간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자기 삶을 글로 쓰는 일의 의미를 발견한다. 1. “이런 이야기를 글로 쓰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 글 쓸 때 내 안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해결하기 삶이 솔직하게 드러나는 글을 쓸 때 느끼는 부담과 위축감의 경험을 나누며 보다 자유로운 창작 활동의 방법을 모색한다. 2. “작가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 악플 속에서 멘탈 지키기 내 삶의 이야기를 온라인에 발표했을 때 받게 되는 악플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하고 패턴을 분석하며 낯선 말들 속에서 멘탈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찾아본다. 3. “글 쓰면서 가장 외로웠던 순간은?” - 고독을 넘어서 연결하는 글쓰기 글 쓰는 시간, 글을 발표한 후에 겪게 되는 외로움과 막막함의 감정을 나누며 보다 건강한 마음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노하우를 공유한다.		
조회수	210		





윤미희

프로그램명	그녀의 스트립쇼 혹은 ‘너’라는 악령 쫓기		
유형	낭독형, 대담형	장르	희곡, 독백
제작 일시	10월 31일(일)	장소	엘리스 미디어 스튜디오
공개 일시	11월 6일(토) 14:00	플랫폼	유튜브(Mihee Yoon)
주요 관람층	전 연령층		
참여자	박지선(극작가), 윤미희(극작가), 이예진(극작가, 배우), 홍기황(극작가)		
참여자 소개	박지선 : 2001년 『파우스트, 키스하다』로 옥랑희곡상을, 2003년 『관능』으로 옥랑희곡상을 수상했으며, 2017년 아동창작희곡상을 수상했고, 2020년 국립극단 청소년극 창작벨트를 통해 『견고딕-걸』, 국립극단 희곡우체통 『누에』를 선보였다. 2021년 희곡 『달과 골짜기』로 통영연극예술축제 희곡상을 수상했다. 윤미희 : 2015년 『상상해볼 뿐이지』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나에게는 얼굴을 쓰다듬을 손이 없다』, 『물고기 뱃속』(2020년 창작산실 대본공모 선정), 『성난 파도 속에 앉아 있는 너에게』(제42회 서울연극제 단막희곡 가작 선정), 『이팡곰 물생미』(2021년 창작산실 대본공모 선정) 등을 쓰고 발표했다. 이예진 : 작가와 배우로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발표작으로는 『젓가락행진곡』, 『질주』 등이 있다. 작품을 통해 이 세계에서 왜 나는 나로 살아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2020 신작희곡페스티벌, 2021 국립극단 청소년극 창작벨트에 선정되었다. 홍기황 : 희곡을 쓰며, 발표한 작품으로 『남북한 프로파간다 연극을 중심으로 보는 한국인의 집단무의식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다 찢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 『그렇게 남아있는 앓고 가느다란』 등이 있다.		
내용	1부: 윤미희의 희곡 <그녀의 스트립쇼 혹은 ‘너’라는 악령 쫓기>를 일부 발췌하여 낭독 공연한다. 윤미희를 비롯하여 박지선, 이예진, 홍기황 극작가 4인이 스튜디오에 함께 모여 <그녀의 스트립쇼 혹은 ‘너’라는 악령 쫓기>를 함께 읽어본 감상을 이야기한다. 2부: 사전 SNS 홍보를 통해 독자(관객)들이 보내준 독백들을 함께 읽고 감상을 나눈다. 마지막으로 박지선, 이예진, 홍기황이 쓴 짧은 독백들을 발표한다.		
조회수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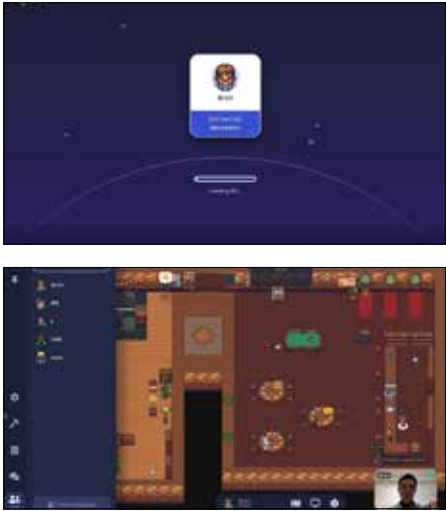
다채

프로그램명	독자에게 전하는 예술 선물 <다채>		
유형	대담형	장르	시
제작 일시	10월 11일(월)	장소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
공개 일시	11월 7일(일) 14:00	플랫폼	ARKO 유튜브
주요 관람층	전 연령층		
참여자	정다연(시인), 최백규(시인)		
참여자 소개	정다연 : 2015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하였고, 시집 『내가 내 심장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니까』가 있다. 유튜브 [문장입니다영]을 진행하고 있다. 최백규 : 2014년 『문학사상』 신인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동인 시집 『한 줄도 너를 잊지 못했다』 창작동인 ‘뿔’로 활동 중이다.		
내용	20대의 마지막을 지나는 정다연, 최백규 시인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의 사연을 받아 동시대성을 나누며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한다. 보내준 사연을 함께 읽고 시간을 가진 후 선정된 사연자에게는 실시간으로 제작한 미술 작품, 책, 음악 앨범 등으로 구성된 ‘맞춤 키트’를 보내준다. 이는 <다채>가 지향하는 한 개인의 구체적인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과 맞물린다. 사전 준비부터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촬영 및 편집하여 현장감을 더하고, 1:1로 깊이 있게 소통함으로써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 또한 ‘맞춤 키트’를 통해 구체적인 물성이 있는 사물을 보냄으로써 일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각을 전한다.		
조회수	103		



SAFE & AMENITY

프로그램명	재즈피넷 블렌딩 메타버스 팝업 스토어		
유형	메타버스 플랫폼 참여형	장르	소설
제작 일시	10월 1일(금)~11월 18일(목)	장소	게더타운
공개 일시	11월 19일(금) 20:00, 11월 20일(토), 11월 21일(일) 14:00	플랫폼	게더타운
주요 관람층	20~30대 여성관객, 소수의 30대, 중장년층 남성 관객		
참여자	이준하(작가, 기획자)		
참여자 소개	이준하 : 대학 시절 친구들과 무크지를 만들어 발행하여 이후 구글문서 기반의시 구독 서비스 《삼각대 매거진》을 2020, 2021년까지 운영했으며 출판사 SAFE & AMENITY에서 첫 번째 장편소설 『호랑이 기계』를 발표했다.		
내용	[재즈피넷 블렌딩 메타버스 팝업 스토어]는 비대면 오피스 서비스인 게더타운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다. 참가자들은 사전에 전달받은 소설을 읽고, 전시 당일 이야기 속 공간을 그대로 구현한 게더타운에 입장해 다양한 상호작용을 체험한다. 소설 속 바리스타가 내려준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소설을 집필할 때 작가가 수집한 소리와 사진, 영상들을 관람하기도 한다. 마치 게임처럼 특정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관의 일부를 탐방하는 전시를 통해 참가자들은 소설에 대한 이해를 폭 넓힘과 동시에 직접 이야기를 창조하는 구성원이 된다. 작가는 재즈피넷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전시에 방문한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한다.		
조회수	75		



우리나비

프로그램명	그림책 사회학 - 그림책과 그래픽노블 안에 깃든 문화다양성 이야기		
유형	대담형	장르	그림책
제작 일시	11월 20일(토)	장소	언덕위광장 작은도서관
공개 일시	11월 21일(일) 18:00	플랫폼	유튜브(우리나비책들)
주요 관람층	20~50대		
참여자	박건웅(작가/만화가, 그림책 작가), 박주현(작가/만화가, 그림책작가), 한소원(기획자)		
참여자 소개	박건웅 : 만화가이자 그림책 작가이다. 그래픽노블 『제시 이야기』, 『악마의 일기』, 『그해 봄』, 『짐승의 시간』 외 다수의 작품을 출간했다. 『숨사탕 장수와 나의 여름방학(가제)』을 출간 예정이다. 박주현 : 만화가이자 그림책 작가이다. 그래픽노블 『빛 뒤에 선 아이』와 그림책 『그레그와 병아리』를 출간하였다. 한소원 : 기획자이자 그림책 번역가이다. 번역서 『이쁜 우리 아가』, 『에르베 툴레의 디자인 수업』, 『발자국을 따라가 볼까요?』 등이 있다.		
내용	편견과 차별이라는 불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전신성 백색증 소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래픽노블을 펴낸 『빛 뒤에 선 아이』의 박주현 작가와 부천을 배경으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해 아무런 편견이 없는 아이들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에 그림을 그린 『숨사탕 장수와 나의 여름방학(가제)』의 박건웅 작가가 그림책과 그래픽노블 속에 드러나 있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다. 독자들은 이 대담(북토크)을 통해 유사한 경험을 나누고 토론하는 가운데 그림책, 그래픽노블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공감을 느끼며 문학을 통한 상호 이해에 동참하게 된다.		
조회수	71		



인문놀이 협동조합

프로그램명	산지등대 제주詩지		
유형	공연형, 대담형	장르	시
제작 일시	11월 23일(화)	장소	제주 산지등대 물결카페
공개 일시	11월 30일(화) 17:00	플랫폼	ARKO 유튜브
주요 관람층	제주여행과 문학에 관심 있는 성인		
참여자	강건모(영상감독), 김신숙(시인), 김영란(시인), 부소문(기획자), 양민숙(시인)		
참여자 소개	강건모 : 포토에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을 발간하였다. 김신숙 : 제주작가회의 회원으로 시집 『우리는 한쪽 밤에서 잠을 자고』, 동시집 『열두 살 해녀』를 발간하였다. 김영란 : 제주작가회의 회원으로 시집 『누군가 나를 열고 들여다 볼 것 같은』, 『몸 파는 여자』, 『꽃들의 수사』를 발간하였다. 부소문 : 인문놀이협동조합 대표로 <4·3이 청춘에게> 문학순회, <제주들꽃 제주들꽃>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였다. 양민숙 : 제주문인협회 회원으로 시집 『한나절, 해에게』, 『간혹 가슴을 연다』, 『지문을 지우다』를 발간하였다.		
내용	제주도의 문이었던 산지등대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무인등대이다. 산지등대는 2021년 마을에서 갤러리와 찻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등대가 하는 일은 사라졌지만 등대가 그동안 해 왔던 일을 잊지 않는 시인의 마음을 담아 보았다. 제주에서 해녀를 엄마로 둔 해녀 딸 세 명의 첫 시집과 시인들이 생각하는 문학과 등대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며 지역 문학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해녀 엄마와 관련된 물건을 통해, 제주 해녀의 공동체 문화를 소개하고, 제주 해녀들이 만든 ‘할망바다’이라는 단어를 소개한다. 해녀 딸로 해녀는 아니지만 할망바당 공동체 정신을 담은 시인들의 활동을 소개한다. 양민숙 시인은 십여 년 넘도록 도서관문화운동을 해 왔고, 김영란 시인은 제주4·3도민연대에서 다양한 관련 업무를 해 왔다. 김신숙 시인은 시유평점을 운영하며 제주의 시인들을 독자들과 연결 짓는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세 명의 시인이 산지등대를 풍경으로 제주 문화와 앞으로 시인으로서는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조회수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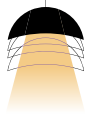
3. 문학서점 스테이지

개요	
프로그램명	[2021 문학주간] 문학서점 스테이지
기간	2021년 10월 16일 ~ 12월 9일
플랫폼	참여 서점의 SNS 채널(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내용	- 전국 문학서점에서 추천하는 2021 문학주간 주제맞춤형 도서 - 서점별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국 독자의 문학 향유 기회 확대
조회수	4,398



참여서점 및 프로그램(총 15개 서점) ※ 프로그램 공개 일시 순

날짜	시간	프로그램	참여서점	지역	진행 횟수	조회수
10월 16일(토)	19:00	가을 밤, 우리 곁에 시	사이시옷	광주	1	332
10월 22일(금)	19:00	우리가 사랑한, 사랑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자들	나비날다 책방	인천	1	181
10월 27일(수)	19:00	『은둔기계』 김홍중 저자 강연	진부책방스튜디오	서울	1	335
11월 17일(수)	16:00	생방송 북트레일러	책과아이들	부산	1	145
11월 20일(토)	22:00	김현 시인 초청 낭독회	무명서점	제주	1	22
11월 21일(일)	16:00	완서학, 비서구 젠더 이론을 위하여	책방 한타	부산	1	202
11월 23일(화)	19:00	몸이 보이는 라디오	문학살롱 초고	서울	1	30
11월 24일(수)	19:30	소설가 최진영의 『비상문』 낭독회	책방오늘,	서울	1	355
11월 27일(토)	16:00	<우리 유니버스> 이토록 풍부한 여성영화의 세계	이스트씨네	강원	1	10
11월 29일(월) 12월 3일(금) 12월 6일(월)	19:00	키워드로 맛보는 한국문학 (キーワードで読む韓国文学)	책거리	일본 도쿄	3	652
12월 1일(수)	19:30	Anne Carson Day! : 짧은 이야기들과 유리, 아이러니 그리고 신	위트 앤 시니컬	서울	1	578
12월 2일(목)	19:00	선명한 산책	커피는 책이랑	대구	3	68
12월 7일(화)	19:30	애육의 한국소설	이후북스	서울, 제주	1	863
12월 8일(수)	19:00	진심을 밝히는 문학들	고요서사	서울	1	477
12월 9일(목)	21:00	미래 산책 연습 <한국문학 산책>	삼요소	대전	1	148
총 합					19	4,398



추천도서 | 총 45권 (중복 1권, 최종 44권) 국내문학 (29권)

연번	추천도서명	저자	출판사	추천서점
1	나의 따스한 유령들	김선우	창비	무명서점
2	날마다 만우절	윤성희	문학동네	책방오늘,
3	너라는 생활	김혜진	문학동네	나비날다 책방
4	눈으로 만든 사람	최은미	문학동네	무명서점
5	단순한 진심	조해진	민음사	고요서사
6	당신이 그린 우주를 보았다	손희정	마음산책	이스트씨네
7	딸에 대하여	김혜진	민음사	책거리
8	맨홀장군 한새 1, 2	김우경(글), 오승민(그림)	문학과지성사	책과아이들
9	미래 산책 연습	박솔미	문학동네	삼요소
10	믿을 수 없게 시끄럽고 참을 수 없게 억지스러운	콜센터상담원	코난북스	커피는 책이랑
11	밝은 밤	최은영	문학동네	이후박스
12	백지에게	김언	민음사	위트 앤 시니컬
13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	박완서	문지작가선 7	책방 한타
14	비상문	최진영	미메시스	책방오늘,
15	비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모두 제시간에 온다	신용목	문학동네	사이시옷
16	빼빼기	권정생(글), 김환영(그림)	창비	책과아이들
17	선명한 거리	전지	코난북스	커피는 책이랑
18	소녀 연예인 이보나	한정현	민음사	삼요소, 책방 한타
19	아침의 피아노	김진영	한겨레출판사	문학초고 살롱
20	애육의 한국소설	서굴	이후진프레스	이후박스
21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김하나, 황선우	위즈덤하우스	책거리
22	은둔기계	김홍중	문학동네	진부책방스튜디오
23	작은마음 동호회	윤이형	문학동네	나비날다 책방
24	지구 끝의 온실	김초엽	자이언트북스	사이시옷
25	최선의 삶	임솔아	문학동네	이스트씨네
26	팔꿈치를 주세요	황정은 외	큐큐	고요서사
27	한국 현대회곡선	김우진 외 8명	문학과지성사	진부책방스튜디오
28	휴가저택	서윤후	아침달	위트 앤 시니컬
29	희망 대신 욕망	김원영	푸른숲	문학초고 살롱

해외문학 (15권)

연번	추천도서명	저자	출판사	추천서점
1	가장 아름다운 괴물이 저 자신을 괴롭힌다	폴 발레리 외	인다	진부책방스튜디오
2	날카롭게 살겠다, 내 글이 곧 내 이름이 될 때까지	미셸 던	마티	고요서사
3	노마드랜드	제시카 브루더	엘리	이후박스
4	런어웨이	앨리스 먼로	웅진지식하우스	나비날다 책방
5	마이너 필링스	캐시 박 홍	마티	커피는 책이랑
6	망명과 자금심 : 교차하는 퀴어 장애 정치학	일라이 클레어	현실문화	책방 한타
7	방랑자들	올가 토카르추크	민음사	무명서점
8	비에도 지지 않고	미야자와 겐지	언제나북스	책과아이들
9	살갓 아래	토머스 린치 외	아날로그	문학초고 살롱
10	세상의 끝	안토니우 로부 안투네스	봄날의책	위트 앤 시니컬
11	슬픔은 날개 달린 것	맥스 포터	문학동네	책방오늘,
12	아이는 왜 폴렌타 속에서 끓는가	아글라야 페테라니	워크룸프레스	삼요소
13	언오소독스 : 밖으로 나온 아이	데버라 펠드먼	사계절	이스트씨네
14	지구에서 스테이(地球にステイ !)	김혜순, 김소연, 오은, 피오나 샘슨, 천이즈	&(앤드)	책거리
15	해방자 신데렐라	리베카 솔닛	반비	사이시옷

세부 프로그램

사이시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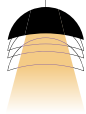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가을 밤, 우리 곁에 시		
유형	낭독형, 대담형	장르	시
공개 일시	10월 16일(토) 19:00	장소	사이시옷
		플랫폼	인스타그램(사이시옷)
관련 키워드	공감, 공동체, 다양성		
주요 관람층	20~30대		
참여자	신용묵(시인)		
참여자 소개	신용묵 : 2000년 『작가세계』 신인상에 당선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2017년 백석문학상, 2015년 노작문학상, 2008년 시작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시집 『그 바람을 다 걸어야 한다』, 『바람의 백만번째 어금니』, 『아무 날의 도시』, 『누군가가 누군가를 부르면 내가 돌아보았다』, 『나의 끝 거창』을 출간했다.		
내용	여섯 번째 시집 『비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모두 제시간에 온다』(문학동네, 2021)를 펴낸 신용묵 시인과 시 읽는 가을 밤을 함께한다. 시간과 사물, 관계들에 대한 의미를 다양한 시어들로 풀어내 온 신용묵 시인이 들려주는 시의 세계를 만난다. 낭독과 소소한 이야기들을 통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순간이 있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일들이 있어서”라며, 존재하던 것이 사라져버리는 필연적 운명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시인의 특별한 시간운용법의 세계를 함께한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인과 독자가 시를 통해 삶과 사랑에 관한 태도를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활용 도서	『비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모두 제시간에 온다』(신용묵)		
서점 소개	광주 화정동에 자리한 사이시옷은 ‘책과 커피 그리고 우리 사이 무언가, 무엇이든 잇는 공간’을 지향하는 동네 책방 겸 카페이다. 아담한 2층 주택을 개조해 1층은 서점 겸 카페, 2층은 독서모임, 글쓰기모임 등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소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학과 그림책 중심의 서가 구성으로 책방지기와 단골손님들의 취향을 반영한 도서들을 큐레이션하고 있다. ‘책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것’을 기본으로 책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 사람을 잇는 우리 동네 문화 아지트, 문화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		
조회수	332		



나비날다 책방

프로그램명	우리가 사랑한, 사랑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자들		
유형	강연형, 대담형	장르	소설
공개 일시	10월 22일(금) 19:00	장소	나비날다 책방
		플랫폼	인스타그램(나비날다 책방)
관련 키워드	공감, 다양성, 페미니즘		
주요 관람층	30대		
참여자	이재은(소설가)		
참여자 소개	이재은 : 1인 문화예술공간 마음만만연구소에서 소설 창작 워크숍, 단편소설 깊이 읽기, 문학 필사 30일 온라인 강좌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5 중앙신인문학상, 2019 심훈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소설집 『비 인터뷰』(아시아, 2019), 짧은 소설집 『1인가구 특별동거법』(걷는사람)을 출간했다.		
내용	동시대 문학에서 여성, 퀴어, 다양성, 공감, 페미니즘 등의 키워드는 ‘완전 소중한’ 명명이다. 우리의 대화와 공감은 이제부터 시작이며 영원히 계속되어야 한다. 나와 다른 계급을 가진 듯한 너에 대한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개인이 가족으로 묶여있을 때의 고통, 부재로 말미암은 가족 해체 후 남은 자의 슬픔을 김혜진, 윤이형, 앨리스 먼로의 작품을 통해 살펴본다. 소설 속의 그들은 ‘우리가 (이미) 사랑한 여자들’이며 ‘사랑하는 여자들’이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자들’이다. 이재은 소설가가 강연 형식으로 너와 나, 그리고 줄리엣에 대해 이야기한다.		
활용 도서	『너라는 생활』(김혜진), 『작은마음 동호회』(윤이형), 『런어웨이』(앨리스 먼로)		
서점 소개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에 자리한 누구나 주인이 되는 무인 책방이자 고양이가 주인인 동네 책방. 지역 작가들의 아지트로 페미니즘, 동물권, 느리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작은 신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다.		
조회수	181		





진부책방스튜디오

프로그램명	『은둔기계』 김홍중 저자 강연		
프로그램 유형	강연형, 대담형	장르	에세이
공개 일시	10월 27일(수) 19:00	장소	진부책방스튜디오
		플랫폼	인스타그램(진부책방스튜디오)
관련 키워드	공감, 공동체, 다양성, 미래의 문학, 코로나 극복		
주요 관람층	20~30대 문학청년, 출판관계자		
참여자	김홍중(작가), 이설빈(시인)		
참여자 소개	김홍중 : 지은 책으로 『마음의 사회학』, 『사회학적 파상력』이 있다. 이설빈 : 진부책방스튜디오 책방 매니저. 2014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했다.		
내용	『은둔기계』의 저자 김홍중 작가와 함께하는 강연 및 대담. 해당 도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시대의 문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관련 책을 추천하는 시간을 가진다.		
활용 도서	『은둔기계』 (김홍중)		
서점 소개	진부책방스튜디오는 문학을 주요하게 다루는 문학 서점이다.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독자와 작가들이 찾아오는 서점으로 알려졌다. 20명 이상 수용 규모의 카페 공간도 겸하여 여유롭게 독서할 수 있다.		
조회수	335		



책과아이들

프로그램명	생방송 북트레일러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기타(작품소개)	장르	그림책, 어린이 문학
공개 일시	11월 17일(수) 16:00	장소	책과아이들 1층 마을도서관 구름방
		플랫폼	인스타그램, 유튜브(책과아이들)
관련 키워드	공감, 공동체, 코로나 극복		
주요 관람층	초등 고학년, 어른 독자		
참여자	서효주(책과아이들 직원), 정다정(그림책 선생님), 구설희(그림책 선생님)		
참여자 소개	서효주 : 책과아이들 1층 서점 지킴이. 서점을 찾는 모두에게 인사를 건넨다. “어서오세요!” 정다정 : 책방 새내기지만 전혀 새내기 같지 않고 뭐든 척척해내는 동백선생님 구설희 : 책 읽어주는 선생님.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싶어 별명이 ‘바다’다.		
내용	코로나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공장식 축산, 야생동물 접촉으로 인한 인수 공동감염이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명들의 행복이 우리의 안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그동안 사람의 편의대로 먹여지고 쓰여지던 동물들이 이제는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 함께 행복해야 할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때에 생명의 가치를 한 번 더 새겨보고 함께 나누고자 한다.		
활용 도서	『맨홀장군 한새』 (김우경), 『빼빼기』 (권정생), 『비에도 지지 않고』 (미야자와 겐지)		
서점 소개	책과아이들은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어린이, 청소년 서점이다. 아이들 문학과 더불어 우리 지역의 이슈를 고민하는 인문학 책, 과학, 교육, 육아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책들이 큐레이션 되어 있다. 1층엔 서점과 더불어 마을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을도서관 ‘구름방’이 있다. 구름방에서는 마을 사랑방과 같은 역할로 작가 만남을 비롯한 다양한 독서 관련 행사가 1년 내내 펼쳐진다. 또 서점 5층 갤러리평심 공간에서 그림책 원화전, 주제별 도서전 등을 열어 문학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감상하도록 한다.		
조회수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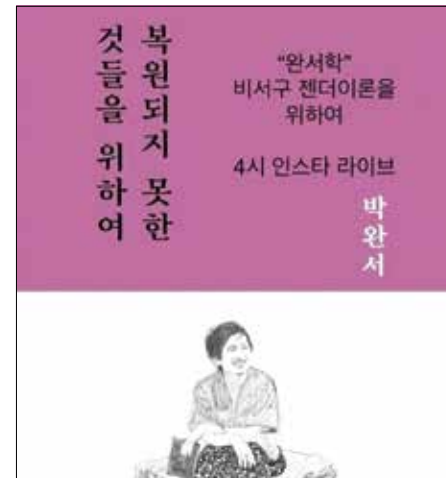
무명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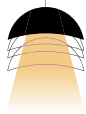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김현 시인 초청 낭독회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장르	시
공개 일시	11월 20일(토) 22:00	장소	무명서점
		플랫폼	Zoom
관련 키워드	공감, 미래의 문학, 쿠퍼		
주요 관람층	시를 읽고 싶은 누구나		
참여자	김현(시인)		
참여자 소개	김현 : 2009년 『작가세계』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김준성문학상, 신동엽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집 『글로리홀』, 『입술을 열면』, 『호시절』, 『낮의 해변에서 혼자』, 『다 먹을 때쯤 영원의 머리가 든 매운탕이 나온다』와 산문집 『걱정 말고 다녀와』, 『아무튼, 스위트』, 『질문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훔칠게요』, 『어른이라는 뜻밖의 일』, 『당신의 자리는 비워둘게요』가 있다.		
내용	김현 시인의 시를 읽는다는 것은 살아 있기, 노래 하기다. 한국의 대표적인 쿠퍼 작가로, ‘문단 내 성폭력’과 페미니즘 리부트에 응답하는 목소리로, 세월호 ‘304 낭독회’를 지키는 목격자로 살아온 시인의 다섯 번째 시집 출간을 기념해 독자들과 함께 김현 시인의 다섯 번째 시집 『다 먹을 때쯤 영원의 머리가 든 매운탕이 나온다』를 낭독한다.		
활용 도서	『다 먹을 때쯤 영원의 머리가 든 매운탕이 나온다』(김현)		
서점 소개	무명서점은 2017년 가을, 제주 서쪽 끝 고산리에서 문을 연 작은 책방이다. 모든 책을 시, 사랑, 정치, 자연을 주제로 재배열하고 독자들에게 ‘이름 모를 책들의 여행’을 제안한다. 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책 모임을 지역 주민들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 수	22명		



책방 한타

프로그램명	완서학, 비서구 젠더 이론을 위하여		
프로그램 유형	강연형	장르	소설
공개 일시	11월 21일(일) 16:00	장소	책방 한타
		플랫폼	인스타그램(책방 한타)
관련 키워드	공감, 돌봄의 문학, 페미니즘		
주요 관람층	여성 독자, 작가		
참여자	권명아(교수)		
참여자 소개	권명아: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젠더어펙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내용	“서발턴은 말할 수 있다” 안티고네와 국민국가의 지배적 질서에 클레임을 거는 새로운 대안 주체(버틀러) 등 서구 이론에서 제시하는 몸, 주체, 근대국민 국가를 둘러싼 논의는 비서구 경험과 언어를 통해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을까. 완서학은 이런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활용 도서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박완서)		
서점 소개	인문학 단행본을 판매하는 독립서점으로 문학 읽기 모임 ‘호미’, 사회 과학 읽기 모임 ‘수요인문학’, 페미니즘 읽기 모임 ‘월경’을 운영 중이며 글쓰기 모임과 작가 초청 강연회를 꾸준히 열고 있다.		
조희수	202		





문학살롱 초고

프로그램명	몸이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장르	에세이
공개 일시	11월 23일(화) 19:00	장소	문학살롱 초고
		플랫폼	인스타그램(문학살롱 초고)
관련 키워드	다양성, 인권, 코로나 극복		
주요 관람층	20~30대 여성		
참여자	김연지(서점 운영자)		
참여자 소개	김연지 : 문학살롱 초고를 운영하며 다양한 쏘의 초고를 만들고 있다. 서점인과 바텐더, 에세이스트 사이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이다.		
내용	코로나라고 불리는 한 시대를 통과하며 우리에게 중요해진 키워드는 ‘몸’에 대한 인식일 것이다. 서점 운영자가 『아침의 피아노』, 『희망 대신 욕망』, 『살갓 아래』를 소개하며 각 책에 실린 산문을 낭독한다. 몸과 관계 맺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청취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본다.		
활용 도서	『아침의 피아노』 (김진영), 『희망 대신 욕망』 (김원영), 『살갓 아래』 (토머스 린치 외)		
서점 소개	‘읽고 쓰는 사람들을 위한 아지트’를 모토로 운영하는 서점이자 바(Bar)이다. 시집을 모티브로 만든 문학 각테일을 시그니처 음료로 판매하며, 한 달에 2번 이상 낭독회, 북토크 등 문학 행사를 진행한다. 책과 술을 매개로 교류하는 공간을 지향한다.		
참여자 수	30명		



책방오늘,

프로그램명	소설가 최진영의 『비상문』 낭독회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장르	소설
공개 일시	11월 24일(수) 19:30	장소	책방오늘,
		플랫폼	인스타그램(책방오늘,)
관련 키워드	공감		
주요 관람층	청년, 직장인		
참여자	최진영(소설가)		
참여자 소개	최진영 : 2006년 『실천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장편소설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 『끝나지 않는 노래』, 『나는 왜 죽지 않았는가』, 『구의 증명』, 『해가 지는 곳으로』, 『이제야 언니에게』, 『내가 되는 꿈』, 소설집 『팽이』, 『겨울방학』, 짧은 소설 『비상문』이 있다.		
내용	자살로 동생을 잃은 주인공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소설 『비상문』을 최진영 작가가 라이브로 읽는 낭독회. 한 편의 단편소설을 온전히 작가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시간. 소설에 담긴 사랑, 애도, 깊은 공감을 함께 체험해 본다.		
활용 도서	『비상문』 (최진영)		
서점 소개	2018년 9월 문을 연 문학, 인문, 예술, 그림책 큐레이션 서점이다. 독서클럽과 낭독회, 독서와 인문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매 계절마다 ‘이 계절의 작가’를 선정해 그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깊이 읽는 독서 모임을 진행한다.		
조회수	355		



이스트씨네

프로그램명	<우리 유니버스> 이토록 풍부한 여성영화의 세계		
프로그램 유형	강연형	장르	영화평론
공개 일시	11월 27일(토) 16:00	장소	이스트씨네
		플랫폼	인스타그램(이스트씨네)
관련 키워드	공감, 공동체, 페미니즘		
주요 관람층	20~30대 여성		
참여자	손희정(문화/영화 평론가)		
참여자 소개	손희정 : 첫 영화 책 『당신이 그린 우주를 보았다』를 내놓았다. 『페미니즘 리부트』, 『성평등』, 『다시, 쓰는, 세계』 이후 네 번째 단독 저서이기도 하다. 공저에 『21세기 한국영화』, 『대한민국 넷페미 사』, 『을들의 당나귀 귀』, 『원본 없는 판타지』 등이 있고, 역서에 『여성 괴물, 억압과 위반 사이』, 『다크룸』 등이 있다.		
내용	여성 영화의 ‘새로운 물결’을 만드는 한국 여성 영화인들을 담은 책을 소개하고, 손희정 평론가와 함께 여성 영화의 가능성과 재미를 독자들과 함께 나눈다.		
활용 도서	『당신이 그린 우주를 보았다』(손희정)		
서점 소개	이스트씨네는 정동진의 아름다운 일출과 함께 시작하는 영화 서점이다. 영화, 지역, 문학 관련 도서를 판매하는 독립서점으로 커피, 음료, 비건빵 등도 판매하고 책과 영화를 함께 만날 수 있는 1인 전용 북스테이 ‘영화로운 스테이’도 운영하는 문화공간이다.		
참여자 수	10명		



책거리

프로그램명	키워드로 맛보는 한국문학(キーワードで読む韓国文学)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대담형	장르	시, 소설, 에세이
공개 일시	11월 29일(월), 12월 3일(금), 12월 6일(월) 19:00	장소	책거리
		플랫폼	유튜브(책거리)
관련 키워드	다양성, 코로나 극복, 쿼어		
주요 관람층	한국 및 일본 독자, 일본 출판관계자		
참여자	김지영, 사와다 료코(서점 운영자), 오은(시인), 시미즈 치사코(번역가)		
참여자 소개	김지영, 사와다 료코 : 책거리 직원 오은 : 2002년 『현대시』로 등단했다. 시집 『호텔 타셀의 돼지들』,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 『유에서 유』, 『원손은 마음이 아파』, 『나는 이름이 있었다』, 산문집 『너랑 나랑 노랑』, 『다독임』을 썼으며 도서 팟캐스트 <책읽아웃>을 진행하고 있다. 시미즈 치사코 :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를 일본어로 번역했다.		
내용	다양성(new 문화), 쿼어, 코로나라는 현시대를 관통하는 3가지 키워드를 주제로 일본에 번역 출판된 세 가지 문학작품, 소설 『딸에 대하여』, 에세이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시집 『지구에서 스테이(地球にステイ!)』를 일본과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또한 한국의 문학이 일본에서 어떻게 알려지고 읽히는가에 대하여 일본의 독자, 작가, 번역가 등을 통해 일본 현지의 생생한 반응과 생각들을 들어본다. 1회: 시집 『지구에서 스테이(地球にステイ!)』 본서에 수록된 시를 쓴 시인 오은의 인터뷰, 그리고 오은의 시 「그것」을 양국의 언어로 낭독한다. 2회: 소설 『딸에 대하여』를 소개하고 한국과 일본, 각기 다른 문화에서 자란 두 진행자와 일본 독자들의 감상을 공유한다. 3회: 에세이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를 번역하면서 느낀 한국과 일본 문학에 대한 생각,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가치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활용 도서	『딸에 대하여』(김혜진),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김하나, 황선우), 『지구에서 스테이(地球にステイ!)』(김혜순, 김소연, 오은, 피오나 샘슨, 천이즈)		
서점 소개	일본 도쿄에서 한국 서적을 판매하는 유일한 오프라인 책방이다. 문학, 그림책은 물론 인문사회, 과학서, 만화 등 여러 분야의 한국 서적 약 4,000여 권을 진열 및 판매한다. 또한 한국 문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벤트를 연간 100회 정도 열어왔고, 2020년부터는 Zoom을 통해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책거리 6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의 제주·시인의 집, 통영·봄날의 책방, 광주·숨, 대구·여행자의 책, 서울·땡스북스, 서울·그림책 전문점 향기나무와 매주 온라인 책방 투어를 기획하여 일본어권 독자들에게 한국의 책방을 선보였다.		
조회수	652		





위트 앤 시니컬

프로그램명	Anne Carson Day!: 짧은 이야기들과 유리, 아이러니 그리고 신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장르	시
공개 일시	12월 1일(수) 19:30	장소	위트 앤 시니컬
		플랫폼	인스타그램(위트 앤 시니컬)
관련 키워드	공동체, 다양성, 미래의 문학		
주요 관람층	20~30대 시 애독자		
참여자	박연준(시인), 오은(시인), 송원경(편집자)		
참여자 소개	박연준 : 시와 산문을 쓴다. 2004년 중앙신인문학상에 시 「얼음을 주세요」가 당선되며 등단했다. 시집 『속눈썹이 지르는 비명』, 『아버지는 나를 처제, 하고 불렀다』, 『베누스 푸디카』, 『밤, 비, 뱀』, 산문집 『소란』, 『우리는 서로 조심하라고 말하며 걸었다』, 『내 아침인사 대신 읽어보오』, 『밤은 길고, 괴롭습니다』, 『인생은 이상하게 흐른다』, 『모월모일』, 『쓰는 기본』, 동화 『정말인데 모르대요』 등을 썼다. 오은 : 2002년 『현대시』로 등단했다. 시집 『호텔 타셀의 돼지들』,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 『유에서 유』, 『원손은 마음이 아파』, 『나는 이름이 있었다』, 산문집 『너랑 나랑 노랑』, 『다독임』을 썼으며 도서 팟캐스트 <책읽아웃>을 진행하고 있다. 송원경 : 난다출판사 편집자		
내용	『남편의 아름다움』, 『빨강의 자서전』 등의 시집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미 시인 앤 카슨. 고전에 뿌리를 두고 확장해나가는 그의 시는 읽을수록 아름답고 곱씹을수록 무한해진다. 최근 난다출판사에서 출간된 그의 첫 시집 『짧은 이야기들』과 두 번째 시집 『유리, 아이러니 그리고 신』을 통해 보다 풍요롭게 앤 카슨의 시를 읽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짧은 이야기들』을 사랑하는 시인 박연준, 『유리, 아이러니 그리고 신』을 애정하는 시인 오은, 그리고 앤 카슨을 전공했으며 두 시집을 편집한 난다출판사의 송원경이 독자들과 함께 더듬어, 아름답고 무한한 앤 카슨의 세계로 인도해 줄 것이다.		
활용 도서	『짧은 이야기들』(앤 카슨), 『유리, 아이러니 그리고 신』(앤 카슨)		
서점 소개	위트 앤 시니컬은 시인 유희경이 운영하고 있는 시집 서점이다. 개점한 지 5년 동안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와 비치된 1,600여 종의 시집 혹은 시 관련 서적 중 자신의 것을 찾아갔다. 위트 앤 시니컬은 책을 주고받는, 상거래 이외에도 다양한 일을 꾸미고 진행한다. 시인과 독자를 초대해 시 낭독회를 개최하거나, 시를 쓰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 워크숍을 열고, 침묵 가운데 시집을 읽는 독서회를 마련하기도 한다. 더러 ‘잔망’스럽기까지 한 위트 앤 시니컬의 사업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를 읽기를 읽고 종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위트 앤 시니컬은, 시로 할 수 있는 즐거운 일들을 이어가고자 한다.		
조회수	578		



커피는 책이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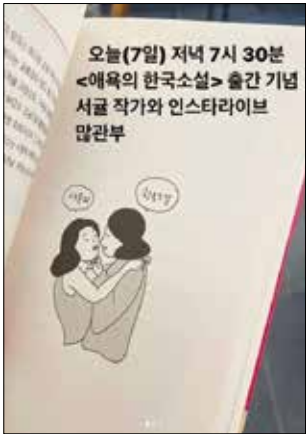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선명한 산책		
프로그램 유형	브이로그	장르	그래픽노블
공개 일시	12월 2일(목) 19:00	장소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야외
		플랫폼	유튜브(커피는 책이랑)
관련 키워드	공감, 공동체, 다양성		
주요 관람층	-		
참여자	전지(만화가), 근하(만화가), 김인숙(서점 운영자)		
참여자 소개	전지 : 만화책 『단편만화수필집 공』, 『오파하우스』를 그렸고, 가족구술화 엄마편 『있을재 구술옥』, 드로잉아카이브북 『채집운동』을 쓰고 그렸다. 근하 : 2017년 만화단편집 [천사를 위한], 단편집 [봄이 오고 있어] [youyouyou] 등을 냈다. 김인숙 : 커피는 책이랑 운영자		
내용	“우리의 기억이 선명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 주택과 놀이터, 미용실과 카페, 우리 동네에 있는 고양이. 그리고 사람들. 『선명한 거리』를 그린 전지 만화가와 근하 만화가 두 사람과 함께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동네의 조각들을 이야기한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선명한 기억을 나누고, 드로잉을 하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다.		
활용 도서	『선명한 거리』(전지)		
서점 소개	모든 사람이 ‘매일 마시고, 매일 읽는 삶’을 누리는 여유가 생기길 꿈꾸며 김인숙, 임문규가 로스터리 카페와 작은 책방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작은 목소리를 모아 책장을 채우고 있다. 호기심이 많아 그때그때 책장이 변하는 책방이다.		
조회수	68		





이후복스

프로그램명	애육의 한국소설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장르	문학
공개 일시	12월 7일(화) 19:30	장소	이후복스 망원
		플랫폼	인스타그램(이후복스)
관련 키워드	공감, 다양성, 미래의 문학, 페미니즘		
주요 관람층	이후복스 인스타그램 팔로워		
참여자	서굴(작가), 손선일(편집자), 황부농(책방지기)		
참여자 소개	서굴 : 지은 책으로는 『고양이의 크기』, 『책 낸 자』, 『환불 불가 여행』, 『판타스틱 우울백서』, 『어피치, 마음에도 엉덩이가 필요해』가 있다. 손선일 : 도서 편집자 황부농 : 이후복스 책방지기		
내용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잘 모른 한국소설 속 여성 캐릭터를 들여다본다. 그녀들의 가리워진 욕망, 사랑, 꿈과 미래. 이제 새로운 눈을 뜨고 한국소설을 다시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활용 도서	『애육의 한국소설』 (서굴)		
서점 소개	이후복스는 서울 망원동과 제주에 책방을 두고 있다. 다양한 독립출판물과 인문서 위주의 책들이 큐레이션 되어 있다. 글쓰기, 책 만들기 등의 모임을 활발히 꾸리고 있으며 출판도 겸하고 있다.		
조회수	863		



고요서사

프로그램명	진심을 밝히는 문학들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장르	소설, 논픽션
공개 일시	12월 8일(수) 19:00	장소	고요서사
		플랫폼	인스타그램(고요서사)
관련 키워드	돌봄의 문학, 쿼어, 페미니즘		
주요 관람층	30대 내외 여성		
참여자	김나리(작가), 차경희(서점 운영자)		
참여자 소개	김나리 : 토크 소설 『말해봐 나한테 왜 그랬어』를 공동 작업하였으며, 현재 고요서사 서점원으로 일하고 있다. 차경희 : 고요서사대표		
내용	‘다시 ON 문학, 우리를 커다’라는 문학주간 주제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진심을 들여다보는 책들을 추천한다. 해외 입양아, 기지촌 노동자, 청년 세대 등의 삶을 다룬 가슴 따뜻한 소설, 관계의 여러 형태와 깊이를 들여다보는 쿼어 단편선, 글쓰기에 온 인생을 바친 여성들의 이야기 등을 서점 운영자가 라이브로 소개한다.		
활용 도서	『단순한 진심』 (조해진), 『팔꿈치를 주세요』 (황정은 외), 『날카롭게 살겠다, 내 글이 곧 내 이름이 될 때까지』 (미셸 딘)		
서점 소개	해방촌 문학 서점. 소설·시·에세이로 서가의 중심을 채우는 ‘문학 중심 서점’을 지향한다. 문학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가치나 주제들과 연관된 인문·사회·예술 책도 함께 소개하여 풍성한 독서의 길을 권하기도 한다. 자기만의 작품 해석을 시도하는 독서 모임, 읽고 쓰기에 관한 워크숍 등을 운영하며 새로운 유형의 책 관련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책을 혼자 읽고, 함께 읽고, 나눠 읽는 방법을 고민하고 시도하는 서점이 되고자 한다.		
조회수	477		





삼요소

프로그램명	미래 산책 연습 <한국문학 산책>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장르	소설
공개 일시	12월 9일(목) 21:00	장소	부산, 광주 일대
		플랫폼	유튜브(삼요소)
관련 키워드	공감, 미래의 문학, 다양성		
주요 관람층	20~40대 독자		
참여자	조규식(서점운영자)		
참여자 소개	조규식: 서점 삼요소를 운영하고 있다.		
내용	와야 할 미래를 먼저 사는 연습. 소설 『미래 산책 연습』의 배경이 되는 부산과 광주를 여행하는 일종의 브이로그이다. 소설 속 문장과 배경을 중심으로 작품을 소개한다. 각 장소들에 『미래 산책 연습』을 두고 올 예정으로, 이는 책의 자리를 찾아주는 일이자 보물 찾기가기도 하다. 이 영상을 본 누군가가 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최근 유행하는 여행 브이로그라는 형식을 통해 작품과 작가를 소개, 추천해 새로운 방식으로 한국문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활용 도서	『미래 산책 연습』(박솔미)		
서점 소개	대전에 위치한 4년 차 서점 겸 문화공간이다. 일상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세 가지 ‘책,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삼요소는 우리에게 필요한 책을 소개하고 함께 읽고 쓰고 이야기 나누고, 멋진 분들과 가까이에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다. 현재는 365일 문을 여는 무인 서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회수	148		



4. 기획 프로그램 “문학주간ON”

개요	
프로그램명	[2021 문학주간] 문학주간 ON
공개 일시	2021년 11월 6일 ~ 11월 8일
플랫폼	쇼핑라이브 (네이버)
내용	- 누구나 참여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쇼핑라이브 플랫폼을 접목한 북토크 프로그램 - 독자와 작가의 양방향 소통과 실시간 도서 구매가 가능하며, 이를 통한 문학의 새로운 유통방향 제시
조회수	8,021



[문학주간 ON] 영화로 만나는 한국소설, 조해진



[문학주간 ON] 문학주간 시선집



[문학주간 ON] 제3회 독립문예·출판페스티벌 북토크

[문학주간 ON] 제3회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일시	11월 6일(토) 19:30	장소	라이브 스튜디오 대학로 공작소
		플랫폼	쇼핑라이브(네이버)
참여자	서윤후(시인, 아침달 출판사 편집위원), 안리타(작가, 시인, 독립출판 제작자), 유계영(시인)		
참여자 소개	서윤후 : 2009년 《현대시》로 등단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 『어느 누구의 모든 동생』, 『휴가저택』, 『소소소 소소소』, 『무한한 밤 홀로 미러볼 켜네』와 산문집 『방과 후 지구』, 『햇빛세입자』, 『그만두길 잘한 것들의 목록』이 있다. 제19회 〈박인환문학상〉을 수상했다.		
	안리타 :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간절히 산다. 보고, 느끼고, 감동하고, 전율하며, 마음을 다해 산다. 독립출판물 『이, 별의 사각지대』, 『사라지는, 살아지는』, 『구겨진 편지는 고백하지 않는다』, 『모든 계절이 유서였다』, 『우리가 우리이기 이전에』, 『사랑이 사랑이기 이전에』, 『리타의 정원』, 『잠들지 않는 세계』, 앤솔러지 『페이지스 6집-언젠가 우리 다시』 등이 있다.		
	유계영 : 동국대학교에서 문예창작학을 전공하였으며, 2010년 [현대문학]에 신인 추천으로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시집으로 『온갖 것들의 낮』, 『이제는 순수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좀 어지러운가』, 『지금부터는 나의 입장』이 있으며 산문집으로는 『꼭대기의 수줍음』이 있다.		
내용	제3회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기념 독립출판물 관련 작가들의 북토크. 독립출판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추천 도서를 소개하고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추천(판매) 도서	추천 작가	추천 도서	
	서윤후	『그만두길 잘한 것들의 목록』(서윤후), 『그대 고양이는 다정할게요』(권민경 외), 『언다잉』(앤 보이어)	
	안리타	『쓸 수 없는 문장들』(안리타), 『사랑이 사랑이기 이전에』(안리타), 『당신의 글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김종완 외)	
	유계영	『꼭대기의 수줍음』(유계영), 『나 개 있음에 감사하오』(유계영 외), 『왜가리 클럽』(김해슬 외)	
조회수	1,872		



[문학주간 ON] 문학주간 시선집

일시	11월 7일(일) 19:30	장소	라이브 스튜디오 대학로 공작소
		플랫폼	쇼핑라이브(네이버)
참여자	신미나(시인), 신용목(시인), 허희(작가, 문학평론가)		
참여자 소개	신미나 : 200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를 쓸 때는 ‘신미나’ 그림 그릴 때는 ‘싱고’이다. 시집 『싱고,라고 불렀다』, 『당신은 나의 높이를 가지세요』, 시툰 『詩누이』, 『안녕, 해태』 (전3권), 『서릿길을 서벗서벗』 등이 있다.		
	신용목 : 2000년 『작가세계』 신인상에 당선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2017년 백석문학상, 2015년 노작문학상, 2008년 시작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시집 『그 바람을 다 걸어야 한다』, 『바람의 백만번째 어금니』, 『아무 날의 도시』, 『누군가가 누군가를 부르면 내가 돌아보았다』, 『나의 끝 거창』 을 출간했다.		
	허희 : 대학과 대학원에서 문학을 공부했다. 2012년 《세계의 문학》 평론 부문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해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평론집 『시차의 영도』, 산문집 『희미한 희망의 나날들』이 있다.		
내용	시선집, 앤솔러지 등 문학기 경향을 소개하고, 작가들의 추천 작품으로 2021 문학주간 주제맞춤형 온라인 시선집을 완성해본다.		
추천(판매) 도서	추천 작가	추천 도서	
	신미나	『당신은 나의 높이를 가지세요』 (신미나), 『싱고,라고 불렀다』 (신미나)	
	신용목	『비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모두 제시간에 온다』 (신용목), 『당신은 우는 것 같다』 (신용목)	
조회수	3,268		



5. 제3회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개요	
프로그램명	제3회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기간	2021년 12월 13일 ~ 2022년 12월 12일 (1년)
플랫폼	온라인 VR전시관 (https://3d.cobenef.com/3rd_festival)
주제	독립의 발견
내용	-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 VR 전시회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독립출판물을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소개 - 자체 공모 및 경기콘텐츠진흥원 ‘2021 경기도 독립출판물 전시지원사업’ 연계
전시장 구성	- 제3회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및 2021 문학주간 소개(영상 포함) - 총 24개 독립 문예지 및 출판사(인) 참여 - 독립 문예·출판물(도서) 총 37개 작품 전시
협력	경기콘텐츠진흥원
방문자수 (12월 30일 기준)	591

공모 내용	
내용	2021년 11월, 제3회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온라인 전시회가 열립니다. 제3회 독립 문예·출판페스티벌은 '독립의 발견'을 주제로 독립 문예활동을 한 창작자와 독자가 비대면 시대에 맞추어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독립출판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독립성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독립 문예활동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언제 어디서든 방문이 가능한 온라인 VR 전시회로 오픈되며, 자신의 출판물과 공간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하는 제3회 독립 문예·출판페스티벌에 온라인 전시회에 참여해주실 독립 문예 출판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대상: 전국 독립 문예 출판사 - 내용: 독립출판물 온라인전시 - 모집기간: 2021년 9월 10일(금)~9월 26일(일) 13:00 - 발표: 2021년 9월 27일(월) (개별연락) - 지원자격: 독립 문예 출판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팀, 출판사 - 지원신청 방법: 구글폼 작성 및 필요서류 이메일 제출

[문학주간 ON] 영화로 만나는 한국소설, 조해진

일시	11월 8일(월) 19:30	장소	라이브 스튜디오 대학로 공작소
		플랫폼	쇼핑라이브(네이버)
참여자	이승연(배우), 조해진(소설가), 최창근(극작가, 연출가, 시인)		
참여자 소개	이승연 : 서울예술대학 연극과를 전공한 영화, 연극배우이다. 2005년 영화 ‘낙원’으로 데뷔하였고, 단편영화 <단순한 진심> 주연을 맡았다. 영화 <어른들은 몰라요>, <파이터>, <별새>, <완벽한 내일>, <여배우는 오늘도> 외 연극 <그 집 빌라에서 우리는>, <안녕, 피아노>, <여우들의 동창회>을 참여했다. 조해진 : 2004년 문예중앙으로 등단했다. 소설집 『천사들의 도시』, 『목요일에 만나요』, 『빛의 호위』, 장편소설 『한없이 멋진 꿈에』, 『로기완을 만났다』, 『아무도 보지 못한 숲』, 『여름을 지나가다』, 『단순한 진심』 등이 있으며, 2014 제5회 젊은작가상, 2016 제17회 무영문학상, 이효석문학상, 2018 제11회 백신애문학상, 2019 제27회 대산문학상 소설부문 등을 수상했다. 최창근 : 경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최인훈 희곡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공연예술아카데미에서 연극수업을 받았다. 2001년 희곡 「봄날은 간다」를 무대 위에 올리면서 등단했다. 2012년 시 「선인장과 할머니」를 발표하면서 시 창작을 겸하고 있다. 시적이고 함축적인 언어를 바탕으로 일상과 비일상, 꿈과 현실을 넘나들며 신화적인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용	한국문학번역원 협력 프로그램 ‘영화와 춤으로 만나는 한국소설’의 일환으로, 조해진 작가의 소설 『단순한 진심』을 원작으로 제작한 단편영화를 소개한다. 원작자와 연출, 출연 배우가 함께 자리해 원작 소설과 단편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본다.		
추천(판매) 도서	추천 작가	추천 도서	
	조해진	『단순한 진심』 (조해진), 『술과 농담』 (조해진 공저), 『환한 숲』 (조해진)	
	최창근	『봄날은 간다』 (최창근)	
조회수	2,881		





전시장 이미지



전시장 로비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문학주간 포스터)



전시장 입구
(전시 소개글)



전시장 1관
(출판물 이미지)



전시장 2관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소개 영상)



전시장 3관
(출판물 이미지)



문학주간 소개
(2021 문학주간 포스터 및 소개글)



작품 소개
(i 버튼 클릭 시 작품별 세부소개 팝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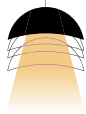
작품, 작가 SNS 및 판매 연계
(아이콘 클릭 시 연동)

공모 선정 전시목록 - 20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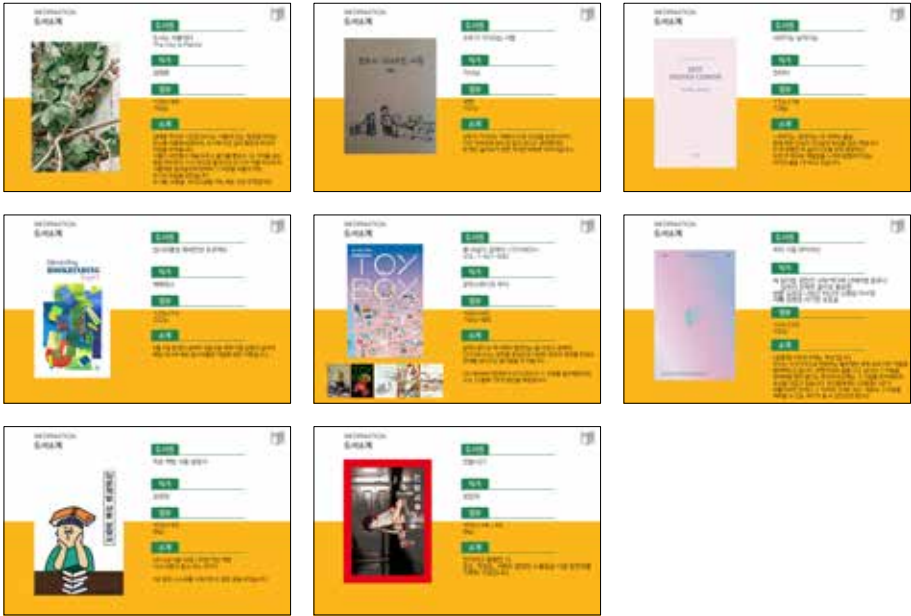
연번	전시물	작가(출판사)
1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	기사님
2	올-라운드문예지 『TOYBOX』 VOL.1~6(1~6호)	문학스튜디오 무시
3	모든 계절이 유서였다	안리타
4	사라지는 살아지는	
5	사랑이 사랑이기 이전에	
6	쓸 수 없는 문장들	
7	우리가 우리이기 이전에	
8	이, 별의 사각지대	임진아
9	진발악	
10	진발장 산티아고	
11	진발시27	해해박스
12	업사이클링 북바인딩 프로젝트	
13	I'M NOT A FANCY. NO, I'M NOT (아임 낫 어 팬시. 노, 아임 낫.)	김경현
14	보이지 않는 영원	
15	작은 책방 사용 설명서	
16	지나지 않은 문장	
17	산책 무크지 스트롤 STROLL 00	
18	엄마방 아빠방	
19	도시는 식물이다 The city is Plants	김태훈
20	우리 시절 아카이브	공통점

협력 전시목록 - 17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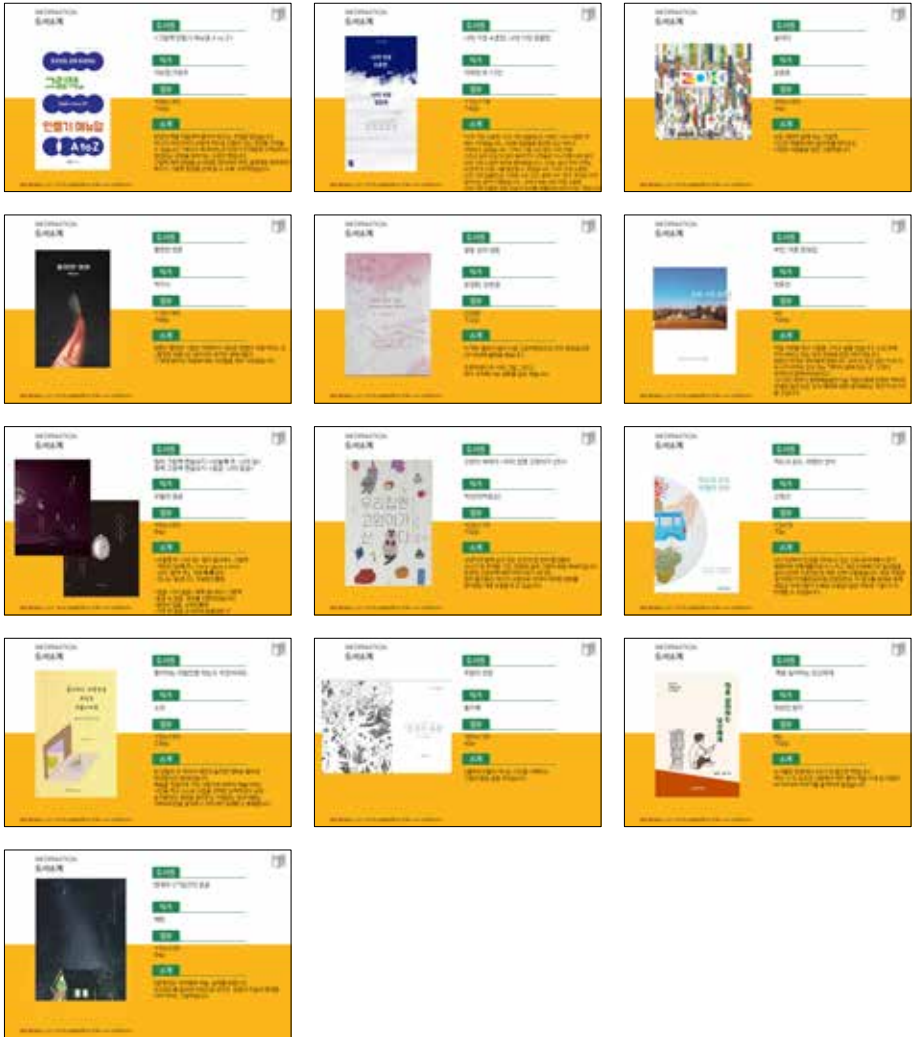
연번	전시물	작가(출판사)
1	경주가 경주생일에 경주여행	경주
2	벚꽃 길의 영원	문경환, 문한결
3	놀이터	문종훈
4	고양이 에세이 『우리 집엔 고양이가 산다』	박선미(박문순)
5	물결한 영혼	박지수
6	21세기 아이와 20세기 엄마의 토론	서원희
7	그냥저냥 지내	선
8	좋아하는 마음만큼 재능도 주셨어야죠.	소리
9	적도의 온도, 여행의 언어	신정근
10	부천, 이층 한옥집	엄효진
11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가장 침울한	이재영 외 12명
12	『그림책 만들기 매뉴얼 AtoZ』	이보현,이영주
13	컬러 그림책 엔솔로지 『오월쫄쫄:나의 달』	오월의얼굴
14	흑백 그림책 엔솔로지 『얼굴:나의 얼굴』	
15	책을 좋아하는 당신에게	최성진, 엄지
16	텅게르-27일간의 몽골	해람
17	주말의공원	홍지혜



공모 선정 전시 작품 이미지



협력 전시 작품 이미지



6. 협력 및 연계 프로그램

제작 협력 프로그램

일시	프로그램	플랫폼	협력기관	조회수
10월 4일(월)~ 10월 13일(수)	EBS 「김새벽 황인찬의 시로 만난 세계」 문학주간 특집방송	팟빵, 오디오e지식, EBS FM 오디오천국	EBS	693
10월 21일(목)~ 12월 16일(목)	해외 한인작가 9인 릴레이 인터뷰	한국문학번역원 & ARKO 유튜브	한국문학번역원	386
10월 30일(토) 11:00	남북문학예술연구회 2021년 가을 학술대회	유튜브 (문학광장)	남북문학예술연구회	148
11월 19일(금) 19:30	춤으로 만나는 한국소설, 김숨	유튜브 (문학광장)	한국문학번역원	226
11월 26일(금) 19:30	영화로 만나는 한국소설, 하성란	유튜브 (문학광장)	한국문학번역원	262
11월 27일(토) 13:00	평화통합문화회의 온라인 세미나	유튜브 (문학광장)	평화통합문화회의	213
총 합				1,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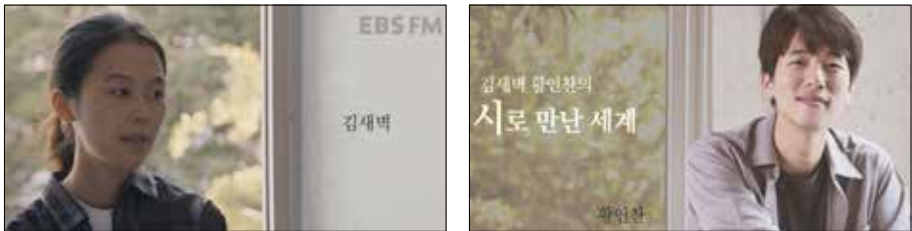
세부 프로그램

EBS 「김새벽 황인찬의 시로 만난 세계」 문학주간 특집방송

일시	10월 4일(월)~10월 13일(수)	협력기관	EBS
플랫폼	팟빵, 오디오 e지식(전 회차) EBS FM 오디오천국(1, 6, 10회)		
참여자	진행: 김새벽, 황인찬 출연(10회): 김겨울		
내용	시를 소리로 만든다. 여러 편의 시를 이어 한 편의 드라마처럼 이야기를 만든다. 듣기에 좋은 사람의 목소리, 어느 시간, 공간 속으로 데려가는 효과음, 아름다운 클래식이 함께 한다. 소리로 만든 시가 보여주는 두 사람의 세계관이 우리의 모든 날들을 깨내보게 한다. 시로 보는 일상 그 특별한 위로와 함께 「김새벽 황인찬의 시로 만난 세계」에서는 우리가 지나쳤던 과거의 사람들, 글과 음악, 그림과 생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던 수많은 거장과 그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진행 결과 (오디오 e지식 기준)

연번	날짜	제목	조회수
1	10월 4일(월)	데미언 허스트, 죽음에 관하여	22
2	10월 5일(화)	안톤 체호프, 다정한 돌봄의 세계	28
3	10월 6일(수)	페소아, 혹은 리스본을 향한 이방인을 위한 안내서	28
4	10월 7일(목)	톨루즈 로트렉, 가만히 서서 세상을 질주하는 방법	16
5	10월 8일(금)	페르난도 보테로, 풍요를 칠하다	25
6	10월 9일(토)	쇼팽, 가장 보편적인 낭만에 대하여	37
7	10월 10일(일)	마크 로스코, 태초를 마주하는 거울	46
8	10월 11일(월)	김 투이, 선을 넘는다는 것에 대하여	79
9	10월 12일(화)	코코 샤넬, 가장 가까운 혁명	183
10	10월 13일(수)	김겨울과 함께하는 우리를 켜, 그리고 우리를 켜 글에 관하여	229





해외 한인작가 9인 릴레이 인터뷰

일시	10월 21일(목) ~ 12월 16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협력기관	한국문학번역원
플랫폼	한국문학번역원 & ARKO 유튜브		
참여자	고현혜, 금희, 닉페어웰, 박미하일, 서경식, 제인 정 트렌카, 하정아, 황영치, 후카자와 우시오		
내용	<해외 한인작가 9인 릴레이 인터뷰>는 세계 곳곳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작가 9인의 근황과 코로나 시대의 문학 활동, 디아스포라적 삶과 경험, 한국 문학 및 작가들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리즈이다.		

진행 결과

연번	날짜	작가	활동지역	조회수
1	10월 21일(목)	고현혜	미국	71
2	10월 28일(목)	박미하일	중앙아시아	34
3	11월 4일(목)	후카자와 우시오	일본	49
4	11월 11일(목)	금희	중국	34
5	11월 18일(목)	황영치	일본	44
6	11월 25일(목)	제인 정 트렌카	미국	37
7	12월 2일(목)	닉페어웰	브라질	42
8	12월 9일(목)	하정아	미국	43
9	12월 16일(목)	서경식	일본	32



남북문학예술연구회 2021년 가을 학술대회

일시	10월 30일(토) 11:00	협력기관	남북문학예술연구회
장소	예술가의 집	플랫폼	유튜브(문학광장)
참여자	발표: 김민선, 김성수, 오삼언, 오창은, 오태호, 유임하, 하승희, 한승대 토론: 배인교, 이상숙, 이지순, 임수경, 임정연, 전영선, 정창훈, 조은정 사회: 고자연, 이경돈, 임옥규		
내용	· 주제: 재난의 상상력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한 문학예술 1부: 재해 전후 문학예술의 지형 (사회: 고자연)		
	구분	주제	발제자
	발표	재난 극복의 전통과 북한문학의 응전 - 전쟁의 재난, 자연의 재난, 인간의 재난	김성수
		재난으로서의 전쟁과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	유임하
	토론	이상숙, 임수경	
	2부: 생명의 재발견, 문학예술의 시선 (사회: 이경돈)		
	구분	주제	발제자
	발표	죽음이라는 재난과 국가의례	한승대
		전쟁과 평화, 일상적 상상력의 복원	오태호
		생명의 불꽃 -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육체성과 대상화되는 신체	김민선
	토론	이지순, 정창훈, 임정연	
	3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한 문학예술의 현재와 미래 (사회: 임옥규)		
	구분	주제	발제자
	발표	인민의 눈으로 본 재난의 서사	오창은
		김정은 시대 '자연과의 전쟁' 대응 속 삼지연의 변모와 의미	오삼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문화의 변화	하승희
	토론	조은정, 전영선, 배인교	
	4부: 종합토론		
조회수	148		



춤으로 만나는 한국소설, 김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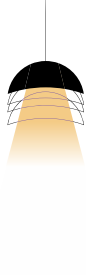
일시	11월 19일(금) 19:30	협력기관	한국문학번역원
플랫폼	유튜브(문학광장)		
참여자	출연: 김숨, 최창근, 홍성우 진행: 염승숙		
내용	김숨 작가의 소설 『떠도는 땅』을 원작으로 제작한 발레극을 소개한다. 소설과 발레극의 만남을 주제로 하여 원작자, 연출, 안무가와 함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본다.		
조회수	226		



영화로 만나는 한국소설, 하성란

일시	11월 26일(금) 19:30	협력기관	한국문학번역원
플랫폼	유튜브(문학광장)		
참여자	출연: 신사람, 최창근, 하성란 진행: 염승숙		
내용	하성란 작가의 소설 『여름의 맛』을 원작으로 제작한 단편영화를 소개한다. 소설과 영화의 만남을 주제로 하여 원작자, 연출, 출연 배우와 함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본다.		
조회수	262		





평화통합문화회의 온라인 세미나

일시	11월 27일(토) 13:00	협력기관	평화통합문화회의
장소	예술가의 집	플랫폼	유튜브(문학광장)
참여자	발표: 김재용, 김진희, 박수연, 이경수, 최현식, 하상일 사회: 이은지		
내용	· 주제: 남북의 문학적 통합과 정전-현대조선문학선집을 중심으로- · 사회: 이은지		
	구분	내용	발제자
	발표(1)	분단의 비극과 통합의 상징: 정지용	김재용
		백석과 이용악을 바라보는 남북한 문학사의 관점	이경수
		이상과 추상의 현실주의-오장환론	박수연
	발표(2)	도시의 산책자에서 광장의 투사로: 남북한 문학사에서 박팔양의 위상과 가치	최현식
		모더니즘 네트워크의 확장과 남북현대시문학사의 재고	김진희
		북한의 근대시 정전화 작업에 나타난 의미	하상일
토론	종합토론		
조회수	213		



홍보 협력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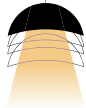
일시	프로그램	플랫폼	협력기관
10월 8일(금) ~ 10월 24일(일)	제10회 서울국제작가축제	축제 홈페이지 (www.siwf.or.kr)	한국문학번역원
10월 15일(금) 10:00	제39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	유튜브(문학광장)	동아제약
11월 1일(월) 15:00	제35회 시의 날 - 서울 시민, 시의 날개를 날다	문학의 집 서울, 유튜브(문학tv Silk road)	한국시인협회
11월 2일(화) ~ 11월 4일(목)	제7회 세계한글작가대회	유튜브(세계한글작가대회)	국제PEN한국본부
9월 ~ 12월	지역문학과 특성화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한국문학관협회

세부 프로그램

제10회 서울국제작가축제

일시	10월 8일(금) ~ 10월 24일(일)	협력기관	한국문학번역원
플랫폼	축제 홈페이지 www.siwf.or.kr		
내용	서울국제작가축제는 국내 독자들의 문학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이 서울을 무대로 쌍방향 교류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지난 2006년부터 개최해 온 글로벌 문학 축제이다. 2020년까지 총 54개국 240명의 국내·외 작가를 초청했다. 문학을 매개로 하여 세계와 언어, 삶과 문학, 작가와 독자가 이루는 다층적인 힘에 주목하여 국제적 규모와 위상을 갖춘 축제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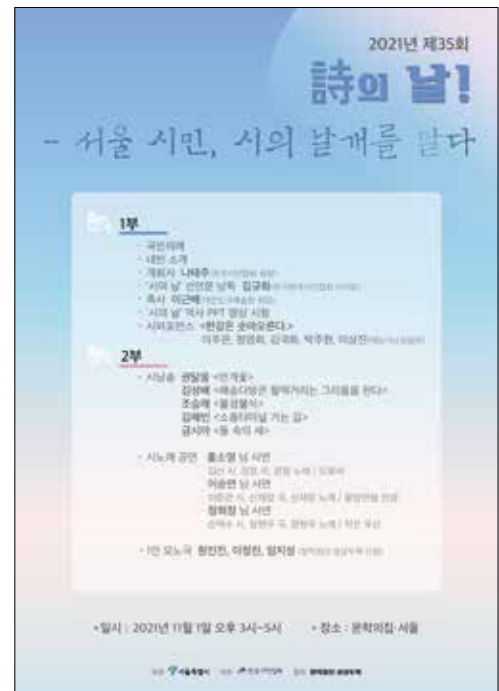


제39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

일시	10월 15일(금) 10:00	협력기관	동아제약
플랫폼	유튜브(문학광장)		
내용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은 한국문학의 저변 확대와 여성 문학인 발굴을 위해 1983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수석문화재단과 동아제약, 동아ST가 후원하는 여성 백일장이다. - 프로그램: 온라인 개회식, 글제 추천, 백일장 및 부대 프로그램 - 글제: 소통, 감사, 의자, 적응		

제35회 시의 날 - 서울 시민, 시의 날개를 날다

일시	11월 1일(월) 15:00	협력기관	한국시인협회
장소	문학의 집 서울	플랫폼	유튜브(문학tv Silk road)
참여자	강정, 권달웅, 금시아, 김규화, 김산, 김성배, 김해빈, 나태주, 손택수, 신재창, 이근배, 이준관, 재능시낭송협회(김국화, 박주현, 이상진, 이주은, 정영희), 정현우, 조승래, 창작집단 상상두목(원인진, 이정진, 임지성)		
내용	사전에 신청 받은 사연을 바탕으로 시인들이 작사, 싱어송라이터가 작곡하여 노래한다. 더불어 선정된 사연을 1인 모노극으로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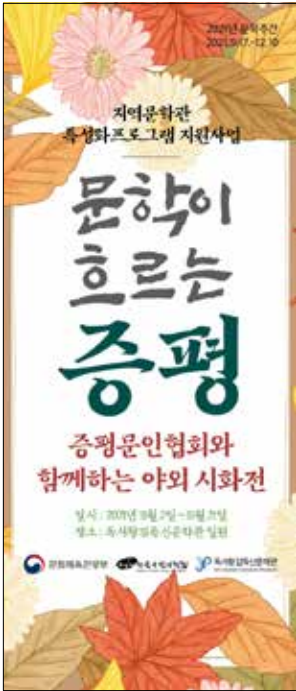
제7회 세계한글작가대회

일시	11월 2일(화) ~ 11월 4일(목)	협력기관	국제PEN한국본부
장소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플랫폼	유튜브(세계한글작가대회)
참여자	좌장: 김유조, 오경자, 오형엽, 이길원, 이승하, 이정희 토론: 강신용, 공광규, 금동원, 김영중, 나숙자, 라디슬라 볼코, 레굴라 벤스케, 마그다 카네시, 안삼환, 옴 디그너, 우형숙, 위상진, 이다경, 이서연, 이승희, 이정순, 이정원, 장석렬, 정정호, 제인 후리드릭 브룬, 채인숙, 헤르미스 A 리데르 사회: 신현수, 홍성훈 강연: 강남주, 김우중, 신세훈, 알브레히트 후베 발표: 김대현, 김슬용, 김신영, 김용범, 김응교, 김중희, 박소연, 양왕용, 이영조, 임수정, 전철희, 최종고		
내용	한글문학의 세계화를 주제로, 세계 15개국에 거주하는 동포 작가, 기자, 유학생과 외국인 학자 등 56명의 발표자 및 토론자가 참가하는 ‘제7회 세계한글작가대회’.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주제발표, 특별토론, 문학강연, 특별강연, 시낭송 등이 있다.		



지역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

진행기간	9월 ~ 12월	협력기관	한국문학관협회
참여문학관 (총 30개관)	기형도문학관, 김동명문학관, 김유정문학촌, 노작홍사용문학관, 당진문학관, 독서왕김득신문학관, 만해문학박물관, 목포문학관, 문경문학관, 보훈문학관, 산사현대시100년관, 설화문학관, 영인문학관, 요산문학관, 우포시조문학관, 윤동주문학관, 이원수문학관, 이육사문학관, 이주홍문학관, 조병화문학관, 지리산문학관, 창원시김달진문학관, 창의문학관, 청마기념관, 최명희문학관, 토지문학관, 풀꽃문학관, 한무숙문학관, 홍성문학관, 황순원문학촌 소나무마을		
내용	각 지역 문학관이 특색있는 문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학과 문인에 관련된 행사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각종 전시를 개최하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의 문학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새로운 형태를 가진 비대면 행사를 기획하고, 우울한 시대에 역행하는 신개념의 문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내부 협력 및 연계 프로그램

일시	프로그램	플랫폼	협력부서
9월 30일(목) 19:30	월간 읽는 극장 “움직임, 움직임, 움직임”	ARKO 유튜브	극장운영부
10월 15일(금) 19:00	<문장의 소리> 공개방송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 특집”	유튜브(문학광장)	문학지원부 (문학광장)
10월 28일(목) 19:30	월간 읽는 극장 “홀로, 함께”	ARKO 유튜브	극장운영부
10월 29일(금)	2021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참여 작가 8인의 추천도서	ARKO 유튜브	예술인력양성부
11월 2일(화)	2021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분야 작품 낭독회 “휴대용 낭독회”	ARKO 유튜브	예술인력양성부
11월 25일(목) 19:30	월간 읽는 극장 “헛되지 않다”	ARKO 유튜브	극장운영부
11월 27일(토) 14:00	문장의소리X소소살롱 “최진영&강아술의 소소살롱”	예술의전당 인촌아트홀	문학지원부 (문학광장)
12월 4일(토)	2021 글틴캠프	게더타운 글틴월드	문학지원부 (문학광장)
12월 10일(금) 14:00	<문장의 소리> 공개방송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분야 선정자 특집”	유튜브(문학광장)	문학지원부 (문학광장)
12월 10일(금) 18:30	<문장의 소리> 공개방송 “굿바이 2021, 굿바이 문소음감회”	유튜브(문학광장)	문학지원부 (문학광장)
9월 ~ 12월	2021년 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	온&오프라인	문학지원부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

세부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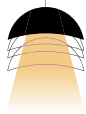
월간 읽는 극장

일시	9월 30일(목), 10월 28일(목), 11월 25일(목) 19:30	협력부서	극장운영부
플랫폼	ARKO 유튜브		
내용	<월간 읽는 극장>에서 극장의 새로운 말하기가 시작된다. <월간 읽는 극장>은 극장이 할 수 있는 말의 범위를 늘리는 자리이다. 말을 짓는 예술가들이 매달 한 번씩 모여, 극장을 이루는 말들의 더미를 새롭게 만들고 나눈다. 삶의 또 다른 이야기를 읽고, 살아있는 극장의 시간을 함께 쓴다. <월간 읽는 극장>은 또 다른 말들의 사건이 생성되는 공간이다. 매월 마지막 목요일 저녁, 극장이 그리운 당신을 찾아간다.		

진행 결과

연번	날짜	프로그램 주제	참여자
1	9월 30일(목)	움직임, 움직임, 움직임	출연: 이원, 주민현 / 진행: 양경언
2	10월 28일(목)	홀로 함께	출연: 최지은, 최현우 / 진행: 양경언
3	11월 25일(목)	헛되지 않다	출연: 신미나, 유계영 / 진행: 양경언





<문장의 소리> 공개방송

일시	10월 15일(금), 11월 27일(토), 12월 10일(금)	협력부서	문학지원부(문학광장)
플랫폼	유튜브(문학광장)		
내용	작가들이 직접 만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라디오방송 <문장의 소리>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600여 명의 작가가 초대 손님으로 다녀간 문학 전문 팟캐스트이다. 우리 문학의 주역들인 작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기획, 대본, 진행, 낭독, 대담, 녹음 등을 담당하는 문학 전문 라디오 방송이며 초대가수 등 다채로운 코너들로 채워져 있다. 문장의 소리는 문학광장 홈페이지와 네이버 오디오클립, 팟빵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진행 결과

연번	날짜	프로그램 주제	참여자
1	10월 15일(금)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	출연: 박연준, 은유 / 진행: 최진영
2	11월 27일(토)	최진영&강아솔의 소소살롱	출연: 강아솔 / 진행: 최진영
3	12월 10일(금)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분야 선정자 특집	출연: 구혜경, 김지연, 박강산, 정은우, 김건영, 서호준, 육호수 / 진행: 최진영
4	12월 10일(금)	굿바이 2021, 굿바이 문소음감회	출연: 정현우, 강백수, 시인의 정원 / 진행: 최진영



2021 글틴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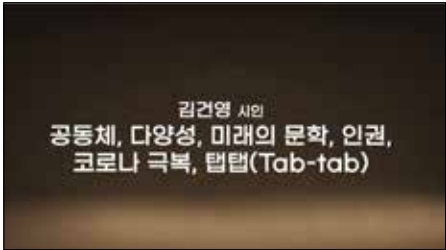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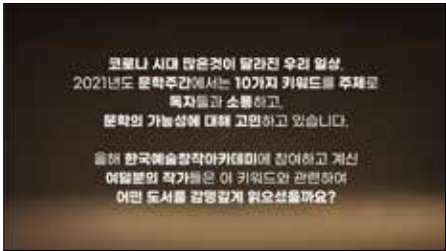
일시	12월 4일(토) 12:00	협력부서	문학지원부(문학광장)
플랫폼	게더타운 글틴월드		
내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청소년 문학사이트 글틴은 한글 ‘글’과 영어 ‘TEEN’의 합성어로, 13~18세의 문학에 관심있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글틴에서 글을 읽고, 쓰고, 놀 수 있다. 2021 글틴캠프에서는 OX 퀴즈, 보물찾기 등 다양한 사전 이벤트와 창작 워크숍, 작가 북토크가 진행된다.		





2021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참여 작가 8인의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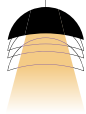
일시	10월 29일(금)	협력부서	예술인력양성부
플랫폼	ARKO 유튜브		
참여자	구혜경, 김지연, 김홍, 박강산, 정은우(이상 소설가), 김건영, 서호준, 육호수(이상 시인)		
내용	2021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작가 8인이 추천하는 2021 문학주간 주제맞춤형 도서를 소개한다.		
	작가	추천도서	
	구혜경	『눈먼 자들의 도시』 (주제 사라마구)	
	김건영	『다윈 영의 악의 기원』 (박지리)	
	김지연	『시간과 물에 대하여』 (안드리 스나이르마그나손)	
	김홍	『감시 자본주의 시대』 (쇼샤나 주보프)	
	박강산	『환한 숨』 (조해진)	
	서호준	『앙앙앙앙』 (류진)	
	육호수	『나는 오늘 혼자 바다에 갈 수 있어요』 (육호수)	
	정은우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코로나 19가 남기는 과제』 (미류, 서보경 외 8인)	



2021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분야 작품 낭독회 “휴대용 낭독회”

일시	11월 2일(화)	협력부서	예술인력양성부
플랫폼	ARKO 유튜브		
참여자	구혜경, 김지연, 김홍, 박강산, 정은우(이상 소설가), 김건영, 서호준, 육호수(이상 시인)		
내용	2021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작가 8인의 신작을 선보이며, 차세대 작가들이 독자들과 작품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낭독회를 통해 낭독한 작품은 발전시켜 2022년 엔솔러지로 발간할 예정이다.		
	작가	낭독 작품	
	구혜경	벽장	
	김건영	쓸쓸한 너의 앞 파트	
	김지연	공원에서	
	김홍	그러다가	
	박강산	임시병동	
	서호준	나는 전생에 슬라임이었어요	
	육호수	하다못해 코창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말미잘을 보고도 네 생각이 났어	
	정은우	민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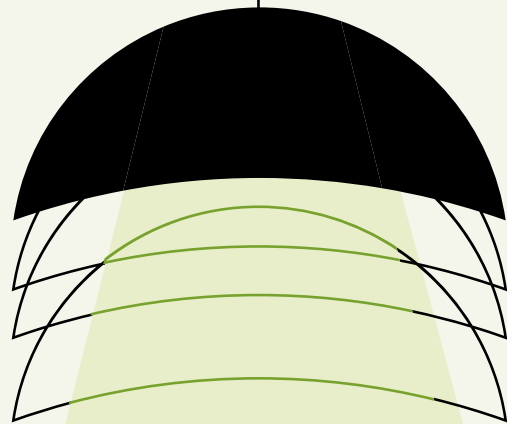
2021년 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

진행기간	9월~12월	협력부서	문학지원부 (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
참여도서관 (총 45개관)	고산도서관, 관악중앙도서관, 광양용강도서관, 교하도서관, 구립증산정보도서관, 구수산도서관, 그루터기청소년작은도서관, 꽃바위작은도서관, 꿈꾸는작은도서관, 꿈이자라는작은행복도서관,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달성군립도서관, 동동숲작은도서관,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동해시립발한도서관, 둔산영어도서관, 마중물작은도서관, 마하어린이도서관, 목포공공도서관, 상동도서관, 상상나무작은도서관, 서초구립양재도서관, 성동구립용답도서관, 송산도서관, 신일작은도서관, 쌍용도서관, 아름꿈도서관, 연제도서관, 오산시중앙도서관, 울주선바위도서관,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은평구립도서관, 의성군립도서관,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전라남도립도서관, 전주시립아중도서관, 정관도서관,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진천군립도서관, 책이든거리작은도서관, 포항시립포은중앙도서관, 풍남작은도서관, 하늘을나는도서관, 행복세상작은도서관, 히어리꽃작은도서관		
내용	문학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진행되는 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전국 공공도서관에 문인이 상주하여 지역 주민의 문학 향유를 돕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선정된 공공도서관에는 전문인력과 문학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상주작가에게는 월간 급여를 지원하며, 작가와 도서관 이용자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역의 문학 수요를 창출하고 문학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한다.		

2021 문학주간 백서

다시 ON 문학,
우리를 켜다





Literature Week

2021 문학주간 백서

다시 **ON** 문학, 우리를 **켜다**

03 홍보

홍보물 제작
운영
이벤트
언론

1. 홍보물 제작

포스터

2021 문학주간 주제인 “다시 ON 문학, 우리를 켜다”에 부합하는 이미지

「문학주간」 텍스트를 그래픽화 한 도형 이미지들과 2021 문학주간 주제인 “다시 ON 문학, 우리를 켜다”의 행태적 이미지가 구현된 키비주얼

주제의 “ON”, “켜다”를 활용해 조명의 on, off를 실현한 무빙 포스터로 제작, SNS 및 온라인 콘텐츠에 적극 활용

협력 기관 대상으로 오프라인 포스터 발송



ON



OFF

문학서점 스테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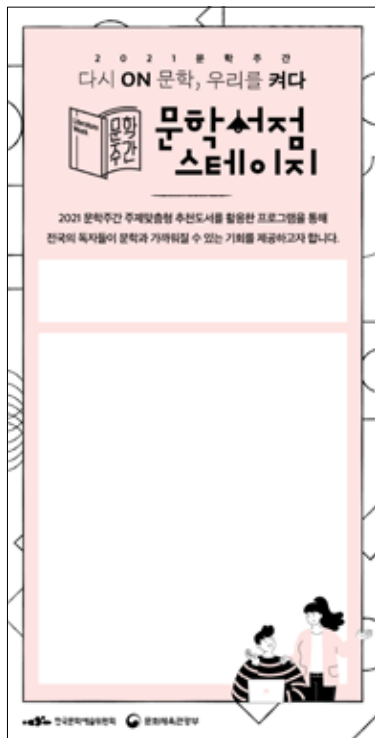
사업 참여 서점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를 위해 디자인 및 제작하여 배포

1)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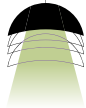


사이즈	297×210mm
재질	폼보드
제작수량	100장

2) 미니배너



사이즈	15×30cm
재질	무광패트
제작수량	20개
비고	서점별 추천 도서 및 프로그램 내용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함



3) 리플릿

프로그램명	210×374mm 가로형 2단접지
재질	스노우지
제작수량	1,500부

문학서점 스테이지 리플릿 내지	문학서점 스테이지 리플릿 표지

기획 프로그램 - 문학주간 ON

라이브 대기화면 11월 6일(토)	라이브 대기화면 11월 7일(일)	라이브 대기화면 11월 8일(월)
예고페이지 작가소개 11월 6일(토)	예고페이지 작가소개 11월 7일(일)	예고페이지 작가소개 11월 8일(월)
추천도서 소개이미지	예고편 안내문구 이미지	이벤트 안내문구 이미지
품보드 제작이미지(프로그램 추천도서 표지)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포스터



공모 페이지

기념품

| 2021 문학주간 프로그램 및 이벤트 용도로 제작 및 배포

종류	제작 수량
책갈피 DIY 키트	130
문학주간 키트	200
	
	문학주간 가족 책갈피
	
책갈피 DIY 세트	포장 라벨지
	
문학주간 포스트잇	문학주간 마스킹테이프
	
문학주간 키트 (책갈피+포스트잇+마스킹테이프)	키트 포장스티커

2. 운영

플랫폼

플랫폼	내용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arkomunhak - 문학주간 대표 안내 사이트 - 전체 프로그램 및 세부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내용 및 참여자 소개 콘텐츠 게시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arkokorea - 기관 공식 채널 - 문학주간 재생목록 생성 - 개막식, 낭독영상, 작가 스테이지, 협력 프로그램 등 영상 콘텐츠 송출
네이버TV	https://tv.naver.com/arko - 기관 공식 채널 - 문학주간 재생목록 생성 - 개막식, 낭독영상 영상 콘텐츠 송출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unhakweek/ - 프로그램 소개 카드뉴스 - 향유자 대상 이벤트 진행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rkomunhak - 프로그램 소개 카드뉴스 - 향유자 대상 이벤트 진행
홈페이지	https://www.arko.or.kr/content/5312 - 아르고 홈페이지 “주요사업” 내 “문학주간” 마이크로 페이지 신설, 아카이빙 - 문학주간 아카이브 수집보존관리를 통해 활용 기반 조성

게시 현황

1)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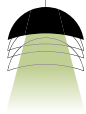
시기	콘텐츠 발행(건)	조회수(회)	방문횟수(회)
2021년 9월	23	1,755	1,019
2021년 10월	37	2,199	1,487
2021년 11월	36	2,202	1,582
2021년 12월	9	1,351	930
합계	105	7,507	5,018

2) 인스타그램

시기	콘텐츠 발행(건)	조회수(회)	팔로워(명)
2021년 9월	32	13,097	1,327 (2020년 902명)
2021년 10월	25	1,565	
2021년 11월	36	526	
2021년 12월	8	109	
합계	101	15,297	1,327

3) 페이스북

시기	콘텐츠 발행(건)	도달수(회)	좋아요 수(회)
2021년 9월	17	3,779	826
2021년 10월	25	1,488	67
2021년 11월	35	1,939	118
2021년 12월	4	160	7
합계	81	7,366	1,018



온라인 노출 현황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TV

온라인 홍보물 이미지



개막식 소개 1



개막식 소개 2



개막식 소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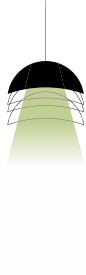
개막식 소개 4



독립 문예·출판페스티벌 공모안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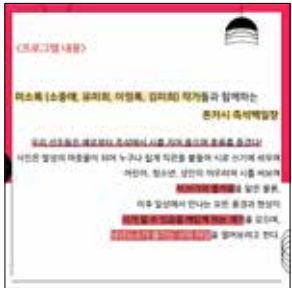
독립 문예·출판페스티벌 공모안내 2



작가 스테이지



작가 스테이지 소개 1



작가 스테이지 소개 2



작가 스테이지 소개 3



작가 스테이지 소개 4

문학서점 스테이지



문학서점 스테이지 소개 1



문학서점 스테이지 소개 2

기획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소개 1



기획 프로그램 소개 2



기획 프로그램 소개 3



기획 프로그램 소개 4



협력 프로그램



협력 프로그램 소개 1



협력 프로그램 소개 2



협력 프로그램 소개 3



협력 프로그램 소개 4

이벤트 안내



이벤트 안내 1



이벤트 안내 2

네이버 블로그 _ 월별 콘텐츠 조회수 TOP5

월	순위	제목	조회수(회)	발행일
9월	1	[협력프로그램] 제39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	117	9월 28일(화)
	2	[작가 스테이지] 단편소설의 메시지를 춤으로 이야기하다	89	9월 16일(목)
	3	[2021 문학주간] 제3회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참여자 모집	75	9월 13일(월)
	4	[2021 문학주간] 브랜딩영상 최초 공개	54	9월 15일(수)
	5	[한국문학관협회] 9월 문학관 프로그램 안내	52	9월 23일(목)
10월	1	[협력프로그램] 문장의 소리 -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 특집	85	10월 13일(수)
	2	[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 10월 도서관 프로그램 안내	78	10월 5일(화)
	3	[협력프로그램] EBS 김새벽 황인찬의 시로 만난 세계	64	10월 4일(월)
	4	[문학서점 스테이지] 가을 밤, 우리 곁에 시·사이시옷	58	10월 15일(금)
	5	[국제PEN한국본부] 제7회 세계한글작가대회	53	10월 27일(수)
11월	1	[기획 스테이지] 문학주간 ON - 쇼핑라이브	132	11월 5일(화)
	2	[2021 문학주간X한국문학번역원] 춤으로 만나는 한국소설, 김숨	69	11월 16일(화)
	3	[작가 스테이지] 캣츠아이세이 - 박진경	55	11월 17일(수)
	4	[문학광장] 2021 글틴캠프 <독에서 만나> 출연자 공개모집	53	11월 19일(금)
	5	[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 11월 도서관 프로그램 안내	51	11월 1일(월)

게시 목록

연번	발행일	형식	주제
1	9월 13일(월)	카드뉴스	[2021 문학주간] 제3회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참여자 모집
2	9월 14일(화)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낭송
3	9월 15일(수)	영상	[2021 문학주간] 브랜딩영상 최.초.공.개
4	9월 16일(목)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단편소설의 메시지를 춤으로 이야기하다
5	9월 17일(금)	카드뉴스	[프로그램 소개] 2021 문학주간 전체 프로그램 안내
6	9월 17일(금)	카드뉴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문학주간 『다시 ON 문학, 우리를 켜다』
7	9월 17일(금)	카드뉴스	[2021 문학주간] 한 눈에 보는 9월 프로그램 안내
8	9월 17일(금)	카드뉴스	[협력 프로그램] 월간 읽는 극장 9월 - 움직임, 움직임, 움직임
9	9월 17일(금)	영상	[개막식] 2021 문학주간 ‘다시 ON 문학, 우리를 켜다’ 개막식 공개
10	9월 18일(토)	영상	[2021 문학주간] 낭독 ON “지금은 우리가” 박준
11	9월 19일(일)	영상	[2021 문학주간] 낭독 ON “쓸 수 없는 문장들” 안리타
12	9월 20일(월)	영상	[2021 문학주간] 낭독 ON “책의 말들” 중 김겨울
13	9월 20일(월)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지역 아동과 함께 하는 신나는 동화읽기와 글쓰기
14	9월 21일(화)	영상	[2021 문학주간] 낭독 ON “밝은 밤” 중 김하나
15	9월 23일(목)	카드뉴스	[한국문학회] 9월 문학관 프로그램 안내
16	9월 23일(목)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포토문학극장 - 소설가와 사진작가의 만남
17	9월 24일(금)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시로 윈크하다
18	9월 28일(화)	카드뉴스	[2021 문학주간] 한 눈에 보는 10월 프로그램 안내
19	9월 28일(화)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침 튀겨도 괜찮았었지
20	9월 28일(화)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하이퍼링크로 연결되는 미스터리 추리 게임! <시인 K 자살사건>
21	9월 28일(화)	카드뉴스	[한국문학번역원] 제10회 서울국제작가축제
22	9월 28일(화)	카드뉴스	[협력 프로그램] 제39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
23	9월 29일(수)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한국문학의 새로운 영토를 찾아서
24	10월 1일(금)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동화 산책
25	10월 2일(토)	카드뉴스	[한국문학회] 10월 문학관 프로그램 안내
26	10월 4일(월)	카드뉴스	[협력 프로그램] EBS 김새벽 황인찬의 시로 만난 세계
27	10월 4일(월)	카드뉴스	[협력 프로그램] EBS 김새벽 황인찬의 시로 만난 세계 _1회차 데미언 허스트 편

연번	발행일	형식	주제
28	10월 5일(화)	카드뉴스	[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 10월 도서관 프로그램 안내
29	10월 5일(화)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우리를 다시 켜다
30	10월 5일(화)	영상	[2021 문학주간] 낭독 ON “그것은 가벼운 절망이다 지루함의 하느님이다” 중 황인찬 낭독
31	10월 6일(수)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나의 첫 책 출간기
32	10월 6일(수)	카드뉴스	[협력 프로그램] EBS 김새벽 황인찬의 시로 만난 세계 _2회차 안톤 체호프 편
33	10월 6일(수)	카드뉴스	[협력 프로그램] EBS 김새벽 황인찬의 시로 만난 세계 _3회차 페르난두 페소아 편
34	10월 7일(목)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곳곳 프로젝트
35	10월 7일(목)	카드뉴스	[협력 프로그램] EBS 김새벽 황인찬의 시로 만난 세계 _4회차 톨루즈 로트렉 편
36	10월 8일(금)	카드뉴스	[협력 프로그램] EBS 김새벽 황인찬의 시로 만난 세계 _5회차 페르난도 보테로 편
37	10월 9일(토)	카드뉴스	[협력 프로그램] EBS 김새벽 황인찬의 시로 만난 세계 _6회차 쇼팽 편
38	10월 10일(일)	카드뉴스	[협력 프로그램] EBS 김새벽 황인찬의 시로 만난 세계 _7회차 마크 로스코 편
39	10월 11일(월)	카드뉴스	[협력 프로그램] EBS 김새벽 황인찬의 시로 만난 세계 _8회차 킴 투이 편
40	10월 12일(화)	카드뉴스	[협력 프로그램] EBS 김새벽 황인찬의 시로 만난 세계 _9회차 코코 샤넬 편
41	10월 13일(수)	카드뉴스	[협력 프로그램] EBS 김새벽 황인찬의 시로 만난 세계 _마지막 이야기
42	10월 13일(수)	카드뉴스	[협력 프로그램] 문장의 소리 -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
43	10월 13일(수)	카드뉴스	[문학서점 스테이지] 지도로 먼저 만나는 문학서점 스테이지
44	10월 13일(수)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나의 삶이 당신에게 이야기가 될 때
45	10월 14일(목)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비평 덕후들의 웹툰, SNS문학 비평 설명서
46	10월 15일(금)	카드뉴스	[문학서점 스테이지] 가을 밤, 우리 곁에 시 - 사이시옷
47	10월 15일(금)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카를 차페크 <로봇> 100주년 기념 - 2021년에 읽는 1921년의 SF 희곡
48	10월 18일(월)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삶의 심표가 되는 음식 소통 토크쇼 감정맛집
49	10월 20일(수)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문학으로 할머니다
50	10월 21일(목)	카드뉴스	[문학서점 스테이지] 우리가 사랑한, 사랑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자들 - 나비날다 책방
51	10월 21일(목)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동백이 연꽃에게 - 너븐송이에서 하미마을까지, 당신과”
52	10월 22일(금)	카드뉴스	[남북문학예술연구회] 재난의 상상력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한 문학예술
53	10월 22일(금)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제주 문학 팟캐스트
54	10월 22일(금)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야근하면서 읽는 시



연번	발행일	형식	주제
55	10월 22일(금)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동인 다큐 “کم” - کم의 캠핑 브이로그 & 낭독회
56	10월 25일(월)	카드뉴스	[문학서점 스테이지] 『은둔기계』 김홍중 저자 강연 - 진부책방 스튜디오
57	10월 27일(수)	카드뉴스	[국제PEN한국본부] 제7회 세계한글작가대회
58	10월 27일(수)	카드뉴스	[협력 프로그램] 월간 읽는 극장 10월 - 홀로, 함께
59	10월 28일(목)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빔프로젝트 - 그림책 작가들의 작당
60	10월 31일(일)	카드뉴스	[한국시인협회] 제35회 시의 날 - 서울 시민, 시의 날개를 달다
61	11월 1일(월)	카드뉴스	[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 11월 도서관 프로그램 안내
62	11월 1일(월)	카드뉴스	[한국문학번역원] 해외 한인작가 9인 릴레이 인터뷰
63	11월 1일(월)	카드뉴스	[한국문학관협회] 11월 문학관 프로그램 안내
64	11월 2일(화)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그녀의 스트립쇼 혹은 ‘너’라는 악령 쫓기
65	11월 2일(화)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독자에게 전하는 예술 선물 <다채>
66	11월 3일(수)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한마음문학회
67	11월 4일(목)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문학, 회진(回診)가다 - 마동택, 詩로 쓰는 레시피
68	11월 5일(금)	카드뉴스	[기획 스테이지] 문학주간 ON - 쇼핑라이브
69	11월 5일(금)	카드뉴스	[협력 프로그램]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분야 작품 낭독회 『휴대용 낭독회』
70	11월 8일(월)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가까워 톱 - 나의 고양이가 되어주렴
71	11월 9일(화)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시, 내 삶에 입맞추다
72	11월 11일(목)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38분 동안 지구멸망소설 릴레이 쓰기
73	11월 12일(금)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비평의 새로운 영역과 기능
74	11월 15일(월)	카드뉴스	[문학서점 스테이지] 생방송 북트레일러 - 책과아이들
75	11월 15일(월)	카드뉴스	[협력 프로그램] 문장의 소리 - 최진영 & 강아솔의 소소살롱
76	11월 16일(화)	카드뉴스	[2021 문학주간x한국문학번역원] 춤으로 만나는 한국소설, 김숨
77	11월 16일(화)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재즈피넛 블렌딩 메타버스 팝업 스토어
78	11월 17일(수)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캣츠아이세이 - 박진경
79	11월 18일(목)	카드뉴스	[문학서점 스테이지] 김현 시인 초청 낭독회 - 무명서점
80	11월 18일(목)	카드뉴스	[문학광장] 2021 글틴캠프 오디오북 클래스 참여자 공개모집
81	11월 18일(목)	카드뉴스	[문학서점 스테이지] 완서학, 비서구 젠더 이론을 위하여 - 책방 한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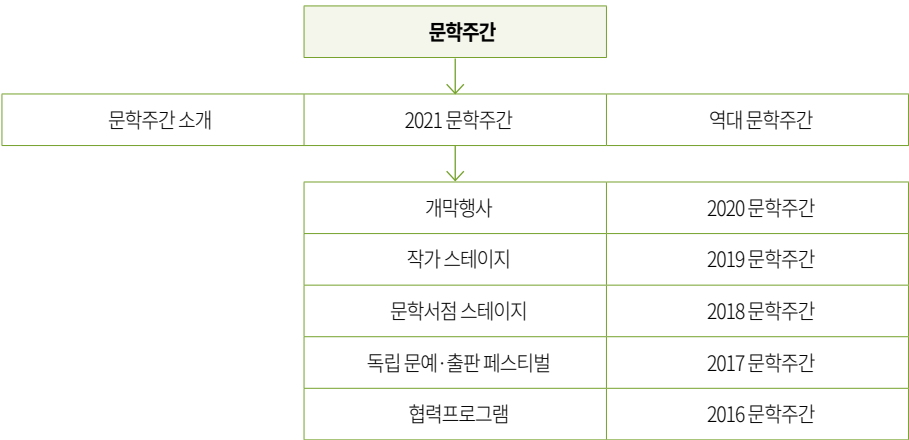
연번	발행일	형식	주제
82	11월 19일(금)	카드뉴스	[문학광장] 2021 글틴캠프 『툰에서 만나』 출연자 공개모집
83	11월 19일(금)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그림책 사회학 - 그림책과 그래픽노블 안에 깃든 문화 다양성 이야기
84	11월 19일(금)	카드뉴스	[문학서점 스테이지] 몸이 보이는 라디오 - 문학살롱 초고
85	11월 22일(월)	카드뉴스	[2021 문학주간x한국문학번역원] 융복합 문학 콘텐츠, 하성란의 『여름의 맛』
86	11월 22일(월)	카드뉴스	[문학서점 스테이지] 『우리 유니버스』 이토록 풍부한 여성영화의 세계 - 이스트씨네
87	11월 22일(월)	카드뉴스	[문학서점 스테이지] 소설가 최진영의 『비상문』 낭독회 - 책방오늘
88	11월 22일(월)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시로 소통하는 멀티컬처(MultiCulture)
89	11월 24일(수)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어흥! 부산 랜선 여행
90	11월 24일(수)	카드뉴스	[문학서점 스테이지] 키워드로 맛보는 한국문학 - 책거리
91	11월 24일(수)	카드뉴스	[협력 프로그램] 월간 읽는 극장 11월 - 헛되지 않다
92	11월 25일(목)	카드뉴스	[평화통합문화회의 학술행사] 남북의 문화적 통합과 정전
93	11월 25일(목)	카드뉴스	[문학서점 스테이지] 선명한 산책 - 커피는 책이랑
94	11월 26일(금)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신동엽, 별들과의 대화
95	11월 27일(토)	카드뉴스	[문학서점 스테이지] Anne Carson Day!: 짧은 이야기들과 유리, 아이러니 그리고 신 - 워트 앤 시니컬
96	11월 30일(화)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산지등대 제주詩지 - 인문놀이 협동조합
97	12월 1일(수)	카드뉴스	[문학서점 스테이지] 애육의 한국소설 - 이후복스
98	12월 1일(수)	카드뉴스	[문학광장] 청소년들을 위한 2021 글틴캠프가 12월 4일 메타버스에서 개최됩니다
99	12월 4일(토)	카드뉴스	[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 12월 도서관 프로그램 안내
100	12월 6일(월)	카드뉴스	[문학서점 스테이지] 진심을 밝히는 문학들 - 고요서사
101	12월 7일(화)	카드뉴스	[작가 스테이지] 언어의 맛·복수의 문학, 언어의 이합집산
102	12월 7일(화)	카드뉴스	[문학서점 스테이지] 미래 산책 연습 <한국문학 산책> - 삼요소
103	12월 9일(목)	카드뉴스	[협력 프로그램] 문장의 소리 - 굿바이 2021, 굿바이 문소음감회
104	12월 10일(금)	카드뉴스	[협력 프로그램] 문장의 소리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 분야 선정자 특집
105	12월 15일(수)	카드뉴스	[2021 문학주간] 제3회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온라인 VR 전시오픈



홈페이지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주요사업” 내 “문학주간” 마이크로 페이지 신설
- | 문학주간 프로그램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효율적 활용 목적
- | 전체 프로그램 종료 후 최종 내용에 맞춰 보완 진행
- | 아카이빙 및 지속 관리를 위해 기록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리자 페이지 이관

메뉴 구성



2021 문학주간 프로그램 자료 수집 및 정제

항목	수집 내용
개막식	- 프로그램 구성안 - 출연자 정보(텍스트, 이미지 등) - 그 외 프로그램 관련 텍스트 등
작가 스테이지	- 전체 프로그램 목록 - 세부 프로그램별 계획안 및 연동자료 - 프로그램 관련 이미지 등
문학서점 스테이지	- 전체 프로그램 목록 - 세부 프로그램별 계획안 및 연동자료 - 프로그램 관련 이미지 등
기획 프로그램	- 프로그램 계획안 - 출연자 정보(텍스트, 이미지 등) - 연결 플랫폼 링크 등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 전체 참여 작품 목록 및 이미지 - 세부 작품별 텍스트 및 연동자료
협력 & 연계 프로그램	- 전체 프로그램 목록 - 전체 일정표 - 세부 프로그램별 텍스트 및 연동자료
역대 문학주간	- 포스터(최종파일) - 백서(최종파일) - 년도별 개요 등

홈페이지 오픈 이미지

11월 10일 (1차 오픈) 이후 보완 1월 7일 (2차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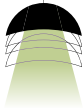


주요사업 내 “문학주간” 카테고리 신설

세부 홈페이지 노출 이미지

	
문학주간 소개	개막행사
	
작가 스테이지(메인/목록화)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문학서점 스테이지(메인/목록 및 지도화)	문학서점 스테이지(프로그램 세부 페이지)
	
기획 프로그램 1	기획 프로그램 2



3. 이벤트

세부 홈페이지 노출 이미지



기획 프로그램 3



협력 프로그램(아르코 연계/유관기관)



역대 문학주간 (2020년도)



역대 문학주간 (2016년도)

온라인 SNS 이벤트

이벤트 현황

연번	이벤트명	진행채널	발행일	당첨자발표	참여 자수	당첨 자수	경품
1	개막기념 팔로우 & 좋아요 이벤트	문학주간 인스타그램	9월 18일(토)~ 9월 25일(토)	9월 27일(월)	421	12	문화상품권
		문학주간 페이스북	9월 18일(토)~ 9월 25일(토)	9월 27일(월)	691	18	문화상품권
2	문학주간ON 쇼핑라이브 시청인증 이벤트	아르코 인스타그램	11월 6일(토)~ 11월 8일(월)	11월 18일(목)	50	30	문화상품권
3	문학주간ON 쇼핑라이브 추천도서 구매이벤트	문학주간 인스타그램, 쇼핑라이브	11월 6일(토)~ 11월 8일(월)	구매자 전원	30	30	문학주간 3종 기념품 키트
4	독립 문예·출판 온라인 전시장 방문인증 이벤트	아르코 인스타그램	12월 20일(월)~ 12월 24일(금)	12월 28일(화)	68	30	문화상품권
		아르코 페이스북	12월 20일(월)~ 12월 24일(금)	1월 5일(수)	247	10	문화상품권

세부 내용	
이벤트명	2021 문학주간 개막기념 이벤트
진행 일시	이벤트 기간: 9월 18일(토) ~ 9월 25일(토) 당첨자 발표: 9월 27일(월)
참여 방식	이벤트 게시물 확인 후, 문학주간 인스타그램 팔로우 혹은 페이스북 좋아요 진행 후 ‘참여완료’ 댓글 작성하기
홍보 효과	공식 SNS 채널을 이용한 ‘2021 문학주간’ 개막식 홍보 일반 대중들의 흥미 유도 및 팔로워 증가, 문학주간 브랜딩
이미지	

이벤트명	문학주간ON 쇼핑라이브 시청인증 이벤트
진행 일시	이벤트 기간: 11월 6일(토) ~ 11월 8일(월) 당첨자 발표: 11월 18일(목)
참여 방식	네이버 쇼핑라이브 실시간 시청 시청 화면을 캡처 후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필수 해시태그: 2021문학주간, 쇼핑라이브
홍보 효과	필수 해시태그를 통해 '2021문학주간' 바이럴 마케팅 및 기획 프로그램 시청자 수 확보
이미지	

이벤트명	문학주간ON쇼핑라이브 추천도서 구매이벤트
진행 일시	이벤트 기간: 11월 6일(토) ~ 11월 8일(월) 당첨자 발표: 별도없음.
참여 방식	네이버 쇼핑라이브 추천도서 구매
홍보 효과	1권을 구매해도 '2021 문학주간' 3종 기념품 키트 전원 증정을 통해 도서 판매유도 및 문학주간 사업 인지도 증가 목적
이미지	

이벤트명	독립 문예·출판 온라인 전시장 방문인증 이벤트
진행 일시	이벤트 기간: 12월 20일(월) ~ 12월 24일(금) 당첨자 발표: 12월 28일(화)
참여 방식	독립 문예·출판 온라인 전시장 방문 전시회 방문소감과 함께 개인 SNS에 방문 인증 업로드
홍보 효과	독립 문예·출판 온라인 전시 홍보 및 방문유도
이미지	

낭독 영상 [문학주간 낭독ON]

| 2021 문학주간에 대한 관심 유도를 위한 낭독 콘텐츠 제작

| ARKO 유튜브 및 네이버TV, 문학주간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한 영상 배포

낭독 도서

연번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낭독 작가
1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박준	문학동네	박준
2	쓸 수 없는 문장들	안리타	홀리씨의 테이블	안리타
3	책의 말들	김겨울	유유	김겨울
4	밝은 밤	최은영	문학동네	김하나
5	사랑을 위한 되풀이	황인찬	창비	황인찬

제작 결과

연번	공개 일자	제목	조회수		
			유튜브	네이버 TV	인스타그램
1	9월 18일(토)	[2021 문학주간] 낭독 ON “지금은 우리가” 박준	12,122	273	3,248
2	9월 19일(일)	[2021 문학주간] 낭독 ON “쓸 수 없는 문장들” 중 안리타	10,584	262	2,066
3	9월 20일(월)	[2021 문학주간] 낭독 ON “책의 말들” 중 김겨울	10,269	215	2,399
4	9월 21일(화)	[2021 문학주간] 낭독 ON “밝은 밤” 중 김하나 낭독	11,354	196	1,126
5	10월 5일(화)	[2021 문학주간] 낭독 ON “그것은 가벼운 절망이다 지루함의 하느님이다” 중 황인찬 낭독	1,068	150	1,061

게시 이미지

	
낭독 ON “지금은 우리가” 박준 1	낭독 ON “지금은 우리가” 박준 2
	
낭독 ON “쓸 수 없는 문장들” 중 안리타 1	낭독 ON “쓸 수 없는 문장들” 중 안리타 2
	
낭독 ON “책의 말들” 중 김겨울 1	낭독 ON “책의 말들” 중 김겨울 2
	
낭독 ON “밝은 밤” 중 김하나 1	낭독 ON “밝은 밤” 중 김하나 2
	
낭독 ON “그것은 가벼운 절망이다. 지루함의 하느님이다” 중 황인찬 1	낭독 ON “그것은 가벼운 절망이다. 지루함의 하느님이다” 중 황인찬 2

4. 언론

보도자료 제작 및 배포(총 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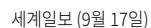
연번	발행일시	주제
1	9월 16일(목) 16:00	문학주간 2021, “다시 ON 문학. 우리를 켜다” 개최
2	10월 22일(금) 14:00	2021년 문학주간, 기획 프로그램 공개
3	11월 18일(목) 8:00	2021 문학주간, 기획 프로그램 [문학주간 ON] “쇼핑라이브 연계”
4	12월 21일(화) 14:00	2021 문학주간, “다시 ON 문학, 우리를 켜다”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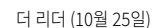
언론 보도 내역(총 4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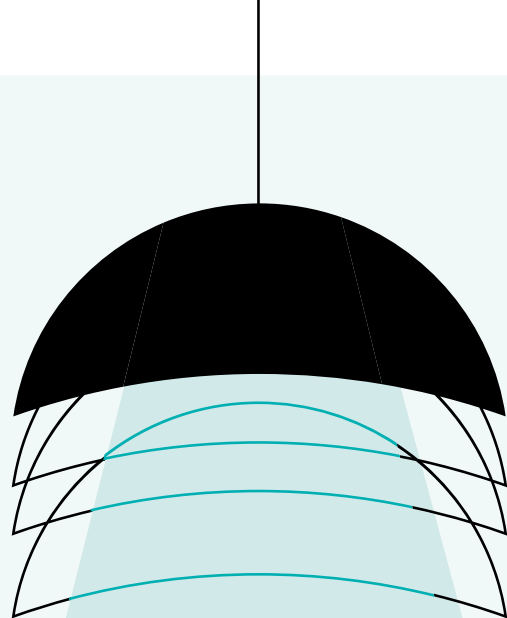
연번	보도일자	구분	언론사	헤드라인
1	9월 16일(목)	온라인	파이낸셜뉴스	비대면 중심 국민 참여형 문학축제 ‘2021 문학주간’
2	9월 16일(목)	온라인	정책브리핑	2021 문학주간, ‘다시 온(ON) 문학, 우리를 켜다’
3	9월 16일(목)	온라인	KBS	“문학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다”... ‘2021 문학주간’ 개최
4	9월 16일(목)	온라인	서울문화투데이	2021 문학주간, 비대면 중심 국민 참여형 문학축제 개최
5	9월 16일(목)	온라인	이투데이	내일부터 ‘2021 문학주간’
6	9월 16일(목)	온라인	글로벌E	문체부, 2021 문학주간 ‘다시 온(ON) 문학, 우리를 켜다’
7	9월 16일(목)	온라인	이투데이	문학의 또 다른 가능성은... 2021 문학주간
8	9월 16일(목)	온라인	아시아투데이	“비대면 시대, 문학의 또다른 가능성은?” ‘2021 문학주간’ 개최
9	9월 16일(목)	온라인	뉴시스	“코로나로 지친 마음 문학으로 위로”... ‘2021 문학주간’
10	9월 16일(목)	온라인	코리아데일리	‘2021 문학주간’ 열린다.
11	9월 16일(목)	온라인	문화뉴스	2021 문학주간, ‘다시 온(ON) 문학, 우리를 켜다’
12	9월 16일(목)	온라인	연합뉴스	“문학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다”... ‘2021 문학주간’ 개최
13	9월 16일(목)	온라인	조선일보	“코로나로 지친 마음 문학으로 위로”... ‘2021 문학주간’
14	9월 16일(목)	온라인	매일경제	“문학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다”... ‘2021 문학주간’ 개최
15	9월 16일(목)	온라인	우리문화뉴스	문학주간, ‘다시 온(ON) 문학, 우리를 켜다’
16	9월 17일(금)	온라인	세계일보	“문학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다”... ‘2021 문학주간’ 개최
17	9월 17일(금)	22면1단	국민일보	“문학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다”... ‘2021 문학주간’ 개최
18	9월 17일(금)	온라인	뉴스1	“다시 ON 문학, 우리를 켜다”... ‘2021 문학주간’ 17일 개막
19	9월 17일(금)	온라인	bnt뉴스	bnt뉴스 라이브 커머스 연중 기획 [쇼핑 라이브, 송자와 도전자들⑤] 문화·출판·전시

연번	보도일자	구분	언론사	헤드라인
20	9월 17일(금)	온라인	파이낸셜뉴스	“다시 ON 문학, 우리를 켜다”... ‘2021 문학주간’ 17일 개막
21	9월 19일(일)	온라인	한국강사신문	2021 문학주간, ‘다시 온(ON) 문학, 우리를 켜다’ 국민 참여형 문학축제 개최
22	10월 22일(금)	온라인	뉴스토마토	전국 15개 동네서점, 온라인 도서 행사 ‘문학서점 스테이지’
23	10월 22일(금)	온라인	아주경제	예술위, 2021 문학주간 기획 프로그램 공개
24	10월 25일(월)	온라인	더드라이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문학주간’ 기획 프로그램 공개
25	10월 26일(화)	온라인	더 리더	2021 문학주간 오프라인으로 더 친근하게 독자 만난다!
26	11월 2일(화)	온라인	브레이크뉴스	증평 김득신 문학과, 문학주간 맞이 야외시화전 개최
27	11월 2일(화)	온라인	국제뉴스	증평 김득신 문학과, 야외시화전 ‘문학이 흐르는 증평’ 개최
28	11월 2일(화)	온라인	케이에스피뉴스	증평 김득신 문학과, 야외시화전 ‘문학이 흐르는 증평’ 개최
29	11월 2일(화)	온라인	내외일보	증평 김득신 문학과, 야외시화전 ‘문학이 흐르는 증평’ 개최
30	11월 2일(화)	온라인	뉴스포인트	증평 김득신 문학과, 야외시화전 ‘문학이 흐르는 증평’ 개최
31	11월 2일(화)	온라인	뉴스1	김득신 문학관서 21일까지 ‘문학이 흐르는 증평’ 야외시화전
32	11월 2일(화)	온라인	충북뉴스	증평 김득신 문학과 ‘문학이 흐르는 증평’ 야외 시화전
33	11월 2일(화)	온라인	충청일보	증평 김득신 문학과, 야외시화전 ‘문학이 흐르는 증평’ 개최
34	11월 2일(화)	온라인	충북일보	증평 김득신 문학과, 야외시화전 ‘문학이 흐르는 증평’
35	11월 2일(화)	온라인	충청신문	야외시화전 ‘문학이 흐르는 증평’ 김득신 문학관서 개최
36	11월 2일(화)	온라인	충청탐뉴스	증평 김득신 문학과, 야외시화전 ‘문학이 흐르는 증평’ 개최
37	11월 2일(화)	온라인	케이에스피뉴스	북구 중앙도서관, 랜선 독서특강 운영
38	11월 2일(화)	온라인	데일리연합	북구 중앙도서관, 랜선 독서특강 운영
39	11월 2일(화)	온라인	뉴스포인트	북구 중앙도서관, 랜선 독서특강 운영
40	11월 2일(화)	온라인	충청투데이	백곡선생 한시 따라 ‘문학이 흐르는 증평’
41	11월 2일(화)	온라인	충청매일	증평 김득신문학과 야외 시화전 개최
42	11월 2일(화)	온라인	노컷뉴스	증평 김득신문학과, 야외시화전 ‘문학이 흐르는 증평’ 개최
43	11월 4일(목)	온라인	한겨레	2021 문학주간 - 작가 스테이지
44	12월 21일(화)	온라인	아주경제	2021문학주간, ‘다시ON문학,우리를켜다’ 성료
45	12월 22일(수)	온라인	디스커버리뉴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문학주간 “다시ON문학,우리를켜다” 성료
46	12월 24일(금)	온라인	문화예술월간지	전국에 500종의 신간 보내기, 왜 이런 사업을 하나면

DOI: 10.1002/anie.201500000







Literature Week

2021 문학주간 백서

다시 ON 문학, 우리를 커다

04 결과 및 제언

만족도 조사
평가 및 제언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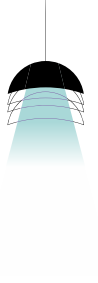
1. 만족도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2021 문학주간 프로그램 참여자		
조사 방법	구글폼 통한 온라인 조사		
조사 표본	51명		
조사 기간	12월 24일 ~ 12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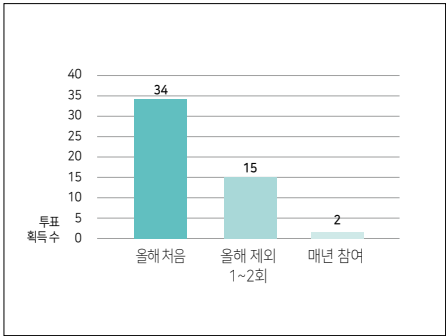
응답자			
구분		사례수	백분율(%)
		51	100
성별	남성	14	27.5
	여성	37	72.5
연령대	20대	2	3.9
	30대	17	33.3
	40대	20	39.2
	50대	11	21.6
	60대 이상	1	2.0
활동 지역	서울	24	47.0
	부산	8	15.7
	대전/세종	2	3.9
	광주	2	3.9
	경기	5	9.8
	충청	3	5.9
	전라	1	2.0
	강원도	1	2.0
	제주도	5	9.8
참여 프로그램	작가 스테이지	40	78.4
	문학서점 스테이지	10	19.6
	협력프로그램	1	2.0
프로그램 진행방법	온라인(유튜브)	23	45.0
	온라인(인스타그램)	6	11.8
	온라인(Zoom)	8	15.7
	온라인(기타)	6	11.8
	온&오프라인 동시	8	15.7

조사 결과	
2021 문학주간 사전 인지 여부	
투표 획득 수 40 35 30 25 20 15 10 5 0 예 아니오 36 15	
• 2021 문학주간 사전 인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51명) 중 70.6%(36명)는 사전 축제 개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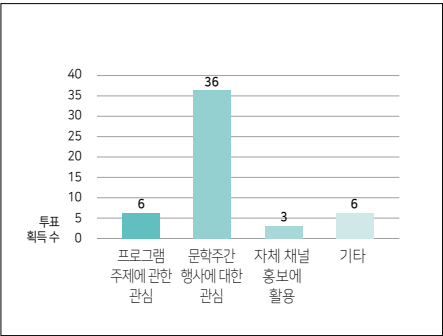
2021 문학주간 인지 경로	
투표 획득 수 25 20 15 10 5 0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뉴스레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채널 웹(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포털) 검색 언론 기사 및 방송 지인의 추천 참여 예술가의 홍보 기타 20 2 3 2 9 9 6	
• 2021 문학주간 사전 인지자에게 문학주간 관련 정보 인지 경로를 물어본 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뉴스레터’가 39.2%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참여예술가의 홍보, 지인의 추천(17.6%), 기타(11.8%), 웹(네이버/다음/구글 등의 포털) 검색(5.9%)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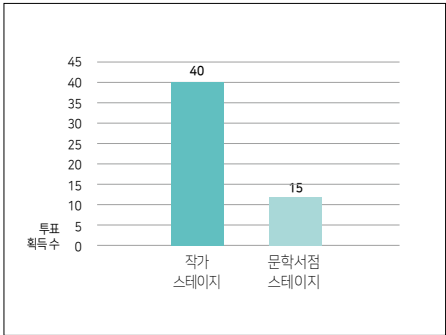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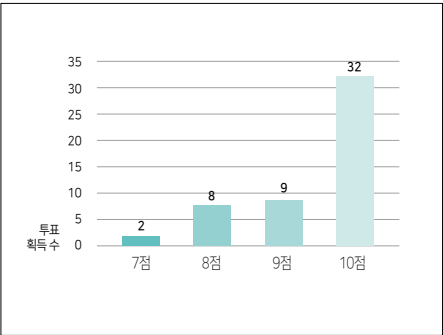
참여 계기



관심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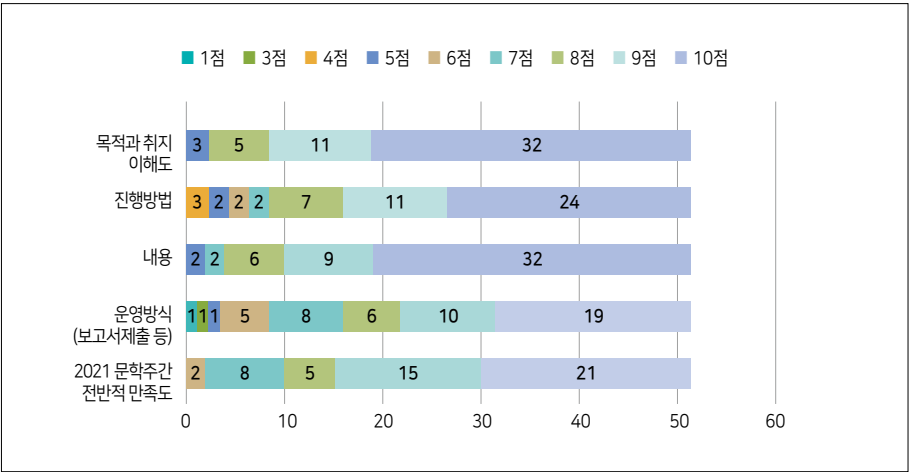


코로나19시대에 문학의 향유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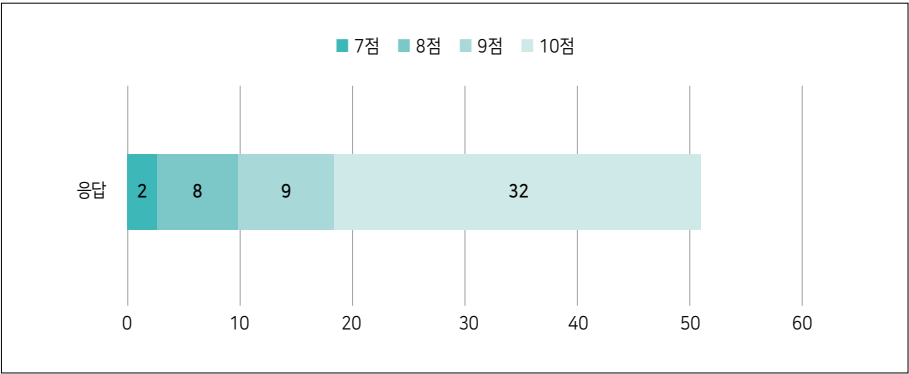
- 2021 문학주간 참여 주요 계기를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문학주간 행사에 대한 관심’이 70.6%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관심(11.8%)’, ‘기타(11.8%)’, ‘자체 채널 홍보에 활용(5.9%)’의 순으로 나타났다.
- 문학주간 참여 빈도를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이 올해 처음 참여한 응답자(66.7%)로 나타났다. 올해를 제외하고 1~2번 참여한 응답자는 29.4%, 그다음으로 2016년부터 매년 참여한 응답자는 3.9%로 나타났다.
- 2021 문학주간 프로그램 중 작가 스테이지에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였고, 문학주간 프로그램의 ‘코로나19 시대에 문학의 향유에 기여도’ 평가에서는 10점 기준 9.39점으로, 모든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참여 프로그램 콘텐츠 평가



- 문학주간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콘텐츠 평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프로그램 내용(96.1%)’과 ‘목적과 취지 이해도(94.1%)’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각 9.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운영적인 측면에서 운영방식(보고서 제출 등)의 경우 타 항목 대비 점수가 8.29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2021 문학주간 전반적인 만족도 평점



- 전체 응답자 중 ‘행사 재참여 의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100.0%로 나타났다. 2021 문학주간 전반적인 만족도는 8.9점으로 과반수 이상 만족하는 의견으로 나타났다.



기타 평가 및 의견

문학주간 축제에 대한 의견 건수는 총 49건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30건(61.2%)이었으며, 부정적인 의견은 19건(38.8%)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의견은 홍보 활성화, 예산 집행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평가 구분	세부 의견
긍정	주제에 대한 심도깊은 대화를 작가들과 함께 나누고 이를 독자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문학주간에 선정되면서 ‘적극적으로’ 온라인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접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했습니다.
	자율적인 기획으로 작가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던 것이 좋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영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가능한 점과 문학분야 활동에 조금이나마 사기를 북돋아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문학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문인의 견해를 들어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부정	다수의 문학 독자와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참여자가 신청해주었고, 호응 또한 뜨거웠습니다. 문학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본 경험이 차후의 작가 활동(개인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의 문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런 비대면 방침으로 인해 온라인 송출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좀 더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자/작가가 자율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은 좋으나 온라인 채널 개설 및 집행 정산 등 주관처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으면 한다.
	진행과정 중 정산에서의 불편함, 참여자가 여럿인데도 한 개인에게 사업비 세금을 모두 부과하는 것 등은 불만족스럽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라이브 방송 송출이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을 때 맞춰 수습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동료끼리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지만, 영상을 규격에 맞춰 제출하는 것과 보고서 제출하는 방식이 너무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 평가 및 제언

비대면 시대 사람들 사이의 마음을
문학으로 이어붙이다

신지영(동화작가, 2021 문학주간 기획위원)

총평

2021년도 <문학주간>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비대면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활동을 처음 경험해야 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비대면 정황 그 자체를 새로운 실험의 기회로 삼기라도 하듯 문학주간에 참여한 작가들의 아이디어들도 신선하였고 그 행사들도 훨씬 안정적이고 능숙하게 이루어졌다.

국지적인 규모의 행사가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학축제인 만큼 온라인 개막식을 시작으로 작가 스테이지, 문학서점 스테이지, 문학주간 ON, 제3회 독립문예·출판 페스티벌, 아르코와 외부 유관기관 등의 협력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하게 참여의 폭을 넓히고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학인뿐만 아니라 문학을 사랑하는 향유자들 그리고 독립서점처럼 중간에서 문학을 이어주는 각각의 많은 주체가 함께 소통하며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할 수 있는 입체적인 축제를 기획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작가의 말을 한 방향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 참여 주제 모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졌다. 이처럼 문학주간을 통해 형성된 관계들이 앞으로 문학장에 힘을 불어넣어 다시 문학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만들어 내는 동력으로 쓰일 수 있기를 바란다.

2021년 문학주간의 주제인 ‘다시 ON 문학, 우리를 켜다’는 코로나19라는 혹독한 외부조건에서 익숙해진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멀어진 사람들 사이의 마음을 문학을 통해 이어붙이기를 바라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비대면이라는 일상이 된 비상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작은 삶의 기쁨을 다시 찾게 해줄 문학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어 냈다. 공동체와 돌봄, 미래의 문학과 인권, 코로나 이후의 회복 등을 키워드로 진행된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오랜 시간에 걸친 코로나 상황에 피로가 누적된 작가나 일반시민들에게는 문학주간의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큰 위로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이런 위기일 때야말로 문학이 가진 진정성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낯설고 위태로운 현실에 맞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다독이며 사람이 왜 사람인가를 되짚어 볼 수 있게 해주며 함께 이해하고 어려운 상황에 굴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이 문학의 역할이라 믿는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진행된 것이 그 지점이다. 문학주간 of 가장 중요한 취지는 작가와 문학을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현장성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여쩔 수 없는 대안이었다. 조금이라도 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 현장성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비대면 프로그램 자체에 내재된 한계다. 작품이나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을 영상으로 전달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그에 비해 주어진 사업비는 영상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기에 그 지점에서 오는 한계가 결과물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훨씬 다채롭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흥미롭게 구현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코로나19가 회복되어도 여전히 재치 있고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비대면 프로그램들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홍보의 문제다. 문학주간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행사이지만 그 인지도는 여전히 부족하다. 시간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홍보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찬가지로 더 많은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하여 조금 더 문학에 흥미와 애정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

향후 제언

지난 2년 간 문학주간 행사는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비상대책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코로나 19 사태의 추이에 따라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코로나가 장기화 될 경우 비대면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이나 코로나 사태가 회복 될 경우 비대면과 대면 프로그램이 조화될 수 있는 구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문학주간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측면도 검토해야 한다. 문학의 홍보를 위해 다른 장르와 협업하는 융복합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목적과 수단이 전치되어 문학이 후순위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다. 또한 전통적인 문학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작가들에게는 기회가 배제되기도 한다. 문학주간의 최우선 목표는 문학의 활성화임을 잊지 않고 다양한 작가들이 문학주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학주간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구성도 다양해야 한다. 현재 문학주간 프로그램은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장년 세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더해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컨대 어린이·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늘어나야 한다. 어린이·청소년은 한국문학의 미래로서 문학주간 백일장, 동시로 된 동요부르기 대회 등 어린이·청소년을 주요 참여자로 상정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향유에서 소외되어 있는 노년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문학주간이 전국적인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문학관, 도서관, 서점 등 지역의 민간 문학거점들과 연계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역의 문학거점들과 상시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문학주간 기간 시 지역에서도 연계 프로그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문학주간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전국 단위의 문학축제로 자리 매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

이영주(시인, 2021 문학주간 기획위원)

총평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다. 감염병의 시대가 만들어낸 사회적 변화와 그 사회를 살아내는 우리 내면의 변화가 어디까지 계속될까. 이제 거리두기는 생활화되었고, 일상의 한 부분으로 깊숙이 자리 잡았다. ‘2021 문학주간’은 작년에 이어 언택트 시대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구현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지점에서 시작되었다.

“다시 ON 문학, 우리를 커다· 우리 삶을 밝히는 문학의 가치, 같이 즐겨요!”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2021 문학주간의 불빛이 켜졌다. 공감, 공동체, 다양성, 돌봄의 물학, 미래의 문학, 새로운 매체, 인권, 코로나 극복, 쿼어, 탭탭(Tab-tab), 페미니즘, 플랫폼 문학 등등의 키워드가 문학의 지평을 넓히고 앞으로 펼쳐질 문학의 미래와 가능성의 에너지를 불러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2021 문학주간’ 개막식을 미니 다큐멘터리 형식 영상으로 100% 사전 제작되었고, 인지도가 높은 작가들을 모시고 좀 더 쉽고 대중적으로 문학주간 관련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전국의 문학 관련 공간들과 연계하여 어디서든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학의 저변 확대를 강조함으로써 대중과 문학을 연계하는 노력을 하였다.

플랫폼 변화에 맞춘 소통방식의 변화

작가 스테이지, 문학서점 스테이지, 독립문예·출판 페스티벌 등을 주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아르고 및 유관 기관과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 또한 문학주간의 지평을 넓히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었다. 기획 프로그램 “문학주간 ON”은 ‘내 손에 ON 문학’이라는 주제에 맞춰 누구나 전국 어디서 함께할 수 있는 ‘쇼핑라이브’ 플랫폼이 접목된 북토크 프로그램으로 꾸러졌다. 플랫폼의 변화에 발맞춘 색다른 시도가 3천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대면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지고 있는 아쉬움을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 행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자유 주제 방식으로 꾸러진 32개의 프로그램과 주제 지정 방식의 7개 프로그램이 세부 사항을 차별화하면서 흥미와 호기심을 자아냈다. 이 새로운 시도는 독자와 작가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며 나아가 문학작품의 유통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플랫폼 소통방식에 대한 고려

문학작품을 향유하는 방식에 있어서 딜레마에 처한 지점이 있는데, 연령대가 높은 독자들의 경우 언택트 시대의 방식에 부적응하는 경우가 많고 연령대가 낮은 독자일 경우 상투적인 소통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독자들의 층위를 어떻게 골고루 감싸 안을 것인가에 대한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다. 플랫폼을 다루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소통방식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책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행사 방식의 다양화 모색

기획위원 구성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하여 아이디어 확보나 프로그램 관련 기획 논의 등을 풍성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행사 방식의 다양성을 섬세하게 시도하기에는 일정이 빡빡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언택트 시대의 소통방식은 매우 빠르게 다양화할 것이고, 그것에서 뒤처진다면 문학의 향유층이 줄어들 수도 있다.

문학주간만의 차별화 시도

공모를 통해 문학주간의 문학 소통을 시도하는 만큼 단순한 낭독회 온라인 송출이나 작품 소개 송출 같은 일반화된 방식을 벗어날 수 있도록 권유, 제언해야 한다. 해외 문학 행사와의 연계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문학주일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니만큼 행사 주체의 새로운 발상이나 다채로움이 풍부하게 펼쳐지리라 예상된다. 그러한 점을 끌어낼 수 있도록 사전에 자세하게 안내하고 공모에 입할 수 있게 충분한 공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학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가능성을 재확인하다

정재훈(문학평론가, 2021 문학주간 기획위원)

2021 문학주일이 85일간의 여정(2021. 9. 17. ~ 12. 10)을 거쳐 성공리에 끝났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많은 것들을 잃었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우리는 문학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온라인이라는 제한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작가, 독립서점, 외부 유관기관 등이 제안 및 참여해 주셨다. '다시 ON 문학, 우리를 켜다'라는 주제에 걸맞게 이러한 여러 관심과 참여, 노력들이 모여 다시 우리 사회에 '소통과 공감의 가능성'이 켜진 것이라 생각한다. 각 프로그램들의 심사 과정은 엄격하게 진행됐다. 아동문학작가, 시인, 극작가, 독립문학서점 대표, 문학평론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지정된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했다. 심사위원들 개별 점수들을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프로그램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지역, 장르에 대한 균형 있는 안배 또한 고려하였다. 많은 독자들이 '문학'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더 나은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에 부합해야 했기에 심사위원들 또한 이를 고려하여 엄격하면서도 투명성 있게 심사 및 선정을 한 것이었다.

작가 스테이지 총 39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자유주제방식은 32개, 주제지정방식은 7개가 진행되었다. 문학서점 스테이지는 전국 곳곳에 분포한 15개의 서점들의 협력으로 총 45권의 좋은 추천도서들을 독자들에게 선보일 수가 있었다. 그밖에도 기획프로그램 <문학주간ON>, 제3회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협력 및 연계 프로그램은 독자들이 다양한 문학적 체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었던 좋은 프로그램들이었으며, 그만큼 작가들 또한 자신들의 예술적 세계를 다채롭게 펼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듯 2021 문학주간에서 진행하였던 여러 프로그램들은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라는 낯설고 제약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유연하면서 참신한 기획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지원한 작가들, 여러 서점 대표들, 협력 기관들이 제안했던 프로그램들 면면은 문학적 흥미나 대중성뿐만 아니라, 전문성 또한 갖춘 것들도 많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관계의 갈증'은 우리 모두를 외롭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만,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기로 보다 많은 이들이 서로 공감하고 교류하면서 더 나은 공동체를 꿈꿀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다음 2022 문학주일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2021 행사 기획, 운영 등을 다시 돌아보고, 부족한 점들을 찾아 보완하여 더 좋은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2022 문학주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엄정하고 투명성 있는 선정 기준 하에 대중성 확보, 인지도와 접근성, 지역 안배, 장르의 다양화를 새로 꾀하며 제도권 하에 주목받지 못한 작가들의 참여를 더욱 유도했으면 한다. 이와 더불어 참신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선정하여 더 많은 독자들이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학주간 행사에 관한 홍보 방식도 지금보다 더 광범위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이번 2021 문학주간 홍보를 온라인 및 신문 지면으로 충분히 했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행사 관련 유튜브 조회수를 비롯한 실시간 줌(Zoom)의 참여자 상황을 보면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기존의 온라인, 신문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TV 광고, 자체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행사가 많이 알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했으면 한다.



문학을 통해 서로 감정을 나누고, 아울러 ‘공동체’나 ‘공감’ ‘다양성’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모색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어떠한 위기 상황일지라도 그때마다 문학을 통한 서로 간의 소통과 공감으로써의 장은 계속해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지금의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과는 별개로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묻고 답해야만 할 ‘인간적인’ 질문이어야 할 것이다. 이번 2021 문학주간을 준비하고 이끌어온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다음에 있을 2022 문학주간의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한다.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라는 이상향을 넘어

차경희(고요서사 대표, 2021문학주간 기획위원)

기획위원으로서 2021문학주간에서 활동했지만 서점 ‘고요서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이 세 번째 문학주간 참여다. 2016년에는 ‘문학 플리마켓’이라는 이름으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3일간 추천 도서 판매 부스를 운영했고, 그다음 해에는 서점에서 작가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했었다. 그리고 몇 년간 문학주간과 인연이 없다가 올해에는 기획자이자 참여 서점으로 함께했다.

이번 문학주간의 전체 주제나 프로그램 방향을 설정하고 작가 스테이지 등 개별 프로그램 지원 심사를 진행하는 등 기획위원의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작가·독자와 문학을 연결할 때 공적 영역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할지 고민해볼 수 있었다.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공공 기금을 운용할 때 오히려 창의적 기획의 자유로움이나 실현 가능성을 제약하고는 있지 않은지 살펴보게 됐는데, 문학서점을 6년 이상 운영해오면서 지원 대상이 되어 수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심사 주체가 되기도 하는 등 양쪽 영역을 두루 체험해본 경험을 떠올리며 균형을 잡고자 했다.

특히나 ‘문학서점 스테이지’의 기획을 맡은 덕분에 한국(의)문학이라는 장에서 서점, 그중에서도 문학을 주요하게 취급하고 소개하는 작은 서점이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을지 다시 한번 고민해볼 수 있었다. ‘문학서점 스테이지’는 기획위원회 처음 합류할 때는 예정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었다. ‘문학서점 스테이지’라는 이름도 없었고, 올해 문학주간에서 전국의 작은 서점 십 수 곳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짜보면 좋겠다는 정대훈 부장의 제안으로 기획하게 됐다. 문학주간에서는 작가들이 기획자이자 참여자가 되는 프로그램을 ‘작가 스테이지’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 기획안에서 ‘문학서점 스테이지’라고 자연스럽게 이름 붙인 것이 그대로 확정됐다.

문학주간은 독자 참여를 지향하며 대중의 폭넓은 문학 향유를 목적 중 하나로 삼고 있지만, 주요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작가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 중심적인 기획이 다수일 수밖에 없다. 이는 문학주간의 한계로 볼 수 있기도 하겠지만, 표현 욕구가 있고 실현 능력이 충분한 작가들을 기획의 주체로 점차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긍정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략 5~6년 전부터 늘어나고 있는 작은 서점을 문학 프로그램과 연계할 때조차 작가 중심적 기획이 다수인 것은 개인적인 아쉬움이기도 했다.

그래서 ‘문학서점 스테이지’는 책, 즉 문학 도서를 중심에 두고자 했다. 어쩌면 당연한 생각이다. 책을 판매하는 곳이 서점이니 책을 콘텐츠의 중심에 놓는 것 말이다. 하지만 책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다양하고도 재미있게 기획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유명 북튜버들처럼 책의 줄거리를 간추리고 매력을 간결하게 전달하여 보는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히나 언택트 시대에 맞춰 온라인으로만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상 등 시각 자료를 유려하게 만드는 것도 각 서점의 재량을 초과하는 범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믿는 구석은 각 서점의 개별적 관점이었다. 각 서점 운영자들이 유려한 말솜씨나 영상 제작 능력은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서점은 저마다의 안목 혹은 취향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 물론 우려도 있었다. 작은 서점에 관심이 생겨서 여러 곳을 둘러보았는데, 구비된 책이나 추천 도서가 엇비슷해서 다소 실망했다는 후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곤 했기 때문에 혹시나 ‘문학서점 스테이지’에서 소개하는 책들이 다수 겹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기획위원들과 함께



자기만의 관점을 지녔다고 생각되는 전국의 서점들 15곳을 추렸고, 결과적으로 각 서점에서 추천한 책 45종 중, 중복은 단 1종이었다.

‘다시 ON 문학, 우리를 켜다’라는 전제 주제와 연관된 키워드를 제공하고 자유롭게 책을 선정하게끔 했지만 좋은 책을 보는 눈이나 평가 기준은 비슷할 수밖에 없음에도 각 서점은 다채로운 문학 도서를 독자들에게 소개했다. ‘작가 스테이지’가 단순히 자신의 저서를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 것처럼, ‘문학서점 스테이지’는 독자에게 인기 있을 만한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서점 운영자들이 자신 있게 추천하는 책들의 목록을 만들어보자는 데 기획의 의도가 있다. 이로써 문학을 흥미 있게 접하게 만드는 ‘작가 스테이지’와 더불어 좋은 문학 작품을 소개받는 유익함을 더하고자 했다.

서점인들은 물론이고 책이나 서점을 좋아하는 독자, 그리고 작가들에게도 친숙한 서점이 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라는 서점이다. 책과 서점에 대한 낭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곳으로 유명한데, 영화 ‘비포 선셋’이나 ‘미드나잇 인 파리’를 통해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헤밍웨이 등 파리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이 단골로 드나들었다거나 창업자였던 실비아 비치가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 ‘율리시스’의 출간을 도모했다는 이야기가 신화처럼 따라 붙는 곳이다.

파리의 생 강을 따라 목적 없이 걷다가 이 서점을 우연히 만나 홀리듯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서점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음에도 이 공간이 남긴 기묘한 여운과 뒷이야기는 이후 내가 문학서점을 운영하게 되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작가와 독자들을 연결하면서 작가들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고 좋은 작품을 발굴해내는 역할을 하기까지 하는 서점의 모습은 아마 나를 비롯한 대다수 문학서점 운영자들이 꿈꾸는 이상향일 것이다. 언젠가는 저런 서점이 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을 품게 만드는 곳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상향적 서점의 모습은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만의 것이 아니다. 사실 전 세계 서점의 역사에서 드문 경우는 아닌 것이다. 헤밍웨이나 ‘율리시스’라는 후광과 널리 알려진 이야기들이 이 파리의 작은 서점을 더 빛나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많은 서점들에서 단순히 책이라는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둘러싼 사람들을 연결시키며 또 다른 책을 탄생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의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는 실비아 비치가 운영했던 서점과 별 연관성이 없다. 실비아 비치가 운영했던 서점은 전쟁으로 인해 문을 닫았으며, 이후 미국인 조지 휘트먼이 실비아 비치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동일한 이름으로 새로 서점을 연 것이다.

문학 서점을 지향하는 작은 서점들은 이미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의 2호점, 3호점 격일 수 있다. 우리에게 헤밍웨이나 ‘율리시스’는 없을지라도 지금의 문학 서점은 이미 작가와 독자와 작품을 발견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서점 스테이지’를 통해 한국(의)문학이라는 장에서 ‘문학 서점’은 그 입지를 다져가는 중임을 드러낼 수 있다고 자평하고 싶다.

다만, 아쉬운 점은 문학 서점의 추천 도서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하고자 했던 가이드와 달리 작가 북토크 형식의 행사를 겸했던 서점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영상 콘텐츠에 대한 독자의 관심 유발 혹은 지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고요서사 또한 독자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작가나 외부인 섭외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순전히 운영자나 서점원의 목소리로 책을 소개해보는 작업을 해보고 싶었다. 결과적으로는 서점의 책 추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독자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앞으로의 문학주간에서도 ‘문학서점 스테이지’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들었다. 2022년에는 기획위원의 역할을 하지 않겠지만 ‘작가 스테이지’와의 차별성을 위해서라도 ‘문학서점 스테이지’는 각 문학서점의 추천 도서가 중심에 위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게 될길 기획자로서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정성껏 준비하는 문학주간을 통해 독자가 다채로운 문학 프로그램을 즐길 뿐 아니라 좋은 문학 도서를 발견하게 되는 양 축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다시, 사회적 약자와 문학사각지대의 만남을 준비하며

- 2021 문학주간에 대한 단상

최창근(극작가, 연출가, 2021 문학주간 기획위원)

불현듯 시나브로 미래사회가 도래한 걸까. 2020년 벽두부터 거세게 휘몰아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전 지구촌을 팬데믹의 혼란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진원지가 중국이라고 해도 그 대상 국가는 어느 한 나라에 그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구촌은 비로소 운영 공동체의 현실을 자각하고 피부로 실감했다. 20세기 초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지구 종말의 위기를 경험했다면 21세기 초는 그것이 전쟁이 아니라 바이러스라는 게 다를 뿐 세계 시민들에게 던져주는 불안과 공포는 비슷하다고나 할까.

사회 전반이 종잡을 수 없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그 누구도 미래에 대한 전망과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도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생계와도 연결된 창작 작업을 이어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 코로나 초창기인 2020년은 코비드 상황이 심각해지면 공연이 중지되거나 다들 낫 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한 해가 지난 2021년은 그나마 비정상적인 환경에 적응해보려고 노력하던 시기였다. 문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미 문학 역시 작가가 쓴 텍스트를 독자가 단순히 읽는 시대가 지나고 문학을 중심으로 한 각종 콘서트나 공연이 동시다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대이므로 그 문학공연을 포괄하고 응집하는 역할을 해오던 문학주간 역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2020년부터 비대면 체제로 전환해서 각종 행사를 치렀고 그래도 2021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독자나 관객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지만 코로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은 거의 모든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국을 통과하면서 몇몇 중요한 문학 페스티벌을 독자나 관객과의 만남 없이 치러본 경험이 있었기에 2021년 문학주간의 기획위원을 맡은 나로서는 이러한 고립무원의 난감한 상황이 전혀 낯설지 않았다. 나를 비롯한 각 분야의 장르별 기획위원들이 다 같이 제대로 만나 문학주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해본 것은 단 한 번뿐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줌을 통한 회의로 대체되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개막식을 비롯한 작가 스테이지, 문학서점 스테이지,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의 모든 주요행사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ARKO 유튜브나 네이버 TV 혹은 팟빵이나 인스타그램, 네이버 오디오클럽 같은 작가자체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열렸다.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코비드19 상황을 감안해서 설정한 2021년 문학주간의 주제는 ‘다시 ON 문학, 우리를 켜다’였다. 다분히 미래사회의 코드에 적합한 이 주제 아래 공감, 공동체, 다양성, 돌봄의 문학, 미래의 문학, 새로운 매체, 인권, 코로나 극복, 쿼어, 탭탭(Tab-tab), 페미니즘, 플랫폼 문학 같은 키워드들이 모여들었다. 6회째를 맞는 문학주간이 전국 규모의 국민 참여형 문학축제가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새로운 축제 환경에 맞추어서 위탁운영과 홍보를 진행해야 하는 대행사의 고충도 남달랐을 터이다.



기획형과 자유형으로 구분해서 두 차례에 걸쳐 창작자와 창작단체들의 응모와 기획위원들의 열띤 토론의 과정을 거쳐 추천된 작가 스테이지 프로그램의 경우 무엇보다 비상상태를 맞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환기할 수 있는 대중성이 강조되었다. 특수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나 참신한 기획도 큰 호응을 받았다. 반면 기존의 프로그램과 형식과 내용이 비슷하거나 특별한 주제의식 없이 관성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낭독하거나 보여주려고 한 경우는 아쉽게도 대부분 선정되지 못했다. 문단에서의 지명도보다는 신선한 도전과 실험정신을 내세운 신인작가나 단체들에게 더 기회를 주려고 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개인적으로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의뢰를 받아 진행하던 한류문학 영상제작사업을 문학주간의 기획협력프로그램의 하나로 소개하게 됐다. 기획프로그램은 2021년에 단편영화로 만들었던 조해진 작가의 장편소설 ‘단순한 진심’에 대한 제작기와 뒷얘기를 원작자와 감독, 출연배우가 모여 도란도란 털어놓는 자리였는데, 네이버 쇼핑라이브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선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작인 책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익숙하지 않은 매체였지만 사회자의 역할을 겸해서 최대한 사랑스럽게 세 사람의 진심을 담아 보여주어서였는지 독자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솔직담백한 중구난방 토크쇼를 지향해서였는지도 모르겠다.

협력프로그램으로는 김숨 작가의 장편소설 『떠도는 땅』을 발레극으로 만들어 네이버TV로 먼저 공개하고 원작자와 총괄 프로듀서, 안무가가 참석해서 제작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코로나 시국에 무용수들이 모여 연습을 하는 것도 힘들고 극장을 빌려 공연을 하는 것도 힘들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되풀이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압구정 로데오거리 근처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안무가가 털어놓은 젊은 예술가와 창작자의 고민이 관계자들의 마음에 와 닿았다.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정확하고 예리하게 진단한 그의 말은 문학광장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한 여러 독자들의 마음도 움직였을 것이다. 그만큼 호소력이 강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하성란 작가의 단편소설 『여름의 맛』을 동명의 단편영화로 제작한 후기는 11월 마지막 주에 독자들을 만났다. 발레극처럼 영화가 네이버 TV로 먼저 공개되고 그에 관한 토크를 진행했다. 촬영과정에서의 일화, 편집을 포함한 후반작업의 지난함에 대해서 원작자와 감독, 배우가 이런저런 토로를 한 다음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자리였다. 지난여름의 무더위와 싸우며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몸소 겪으며 찍은 영화였지만 감독의 입장에서는 맘먹은 대로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 짙은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었기에 미처 형상화하지 못한 영역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인해 영화를 향한 애정고백은 생각보다 훨씬 길어졌다.

9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약 85일간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가 여러 플랫폼을 통해 소개됐지만 모두가 비대면으로 진행된 터라 직접 눈으로 보고 현장에서 라이브로 체험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그만큼 프로그램에 관한 확실한 피드백이나 구체적인 실감이 없었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문학주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게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물론 인터넷 상에서야 뜨거운 반응도 있었고 격렬한 환호도 있었겠지만 그것도 해당 플랫폼에 접속을 해야 느낄 수 있는 극히 한정된 것이었다.

덧붙이자면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행사에 독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듯 싶지만 그것은 엄연한 착각이다. 작가 스테이지의 예를 들자면 프로그램마다 편차가 존재하겠지만 심한 경우는 누적 조회수가 50회도 채 안 되는 행사도 많았다. 작가들이 공들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성심껏 만든 노력에 비하면 너무나 불품없는 수치인 셈이다. 그러니까 창작자들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할 때는 아무리 소소한 행사라 하더라도 참여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치열한 마케팅과 홍보를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이후 지구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해졌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관계자와 담당자들에게는 2022년의 문학주간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도 커다란 숙제로 남게 됐다. 시정거리가 불명확한 이 답답한 안개정국 속에서도 그러나 분명한 점은 여전히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와 문학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자들을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매개하고 연결시키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외롭고 고단한 시대를 건너가는, 문학과 예술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소명이므로.



3. 모니터링

목적

- 문학주간 목표 달성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 프로그램 모니터링 실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주대학교, 조선대학교 협력의 일환으로 MOU 체결 후 대학생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대학생 모니터링단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일반인 모니터링단 추가 모집

개요

프로그램명	2021 문학주간 모니터링단 운영
기간	9월 17일(금) ~ 12월 20일(월)
내용	역할 · 2021 문학주간의 개막식 및 세부 프로그램 참관 후 원고, 사진, 영상 등을 활용한 후기(리뷰)를 작성 및 배포 참여방법 · 1인 월 2회(최대 6회 이내) 참여 · 세부 프로그램 일정을 참고하여 주치 측과 협의, 참관 프로그램 선별 후 프로그램 참여 후 후기(리뷰) 작성 · 작성한 후기(리뷰)는 모니터링단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배포 활동 사례비 · 작성 콘텐츠 1건당 3만원 지급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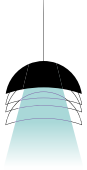
참여현황

연번	소속	참여자 (이름)	플랫폼	프로그램명
1	광주대학교	김00	인스타그램	하이퍼링크로 연결되는 미스터리 추리게임! <시인 K 자살사건>
2		김00	인스타그램	『은둔기계』 김홍중 저자 강연
3		김00	인스타그램	몸이 보이는 라디오
4		김00	인스타그램	2021 문학주간 온라인 개막식
5		김00	인스타그램	제3회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온라인 전시
6		김00	인스타그램	문학주간 ON - 네이버 쇼핑라이브 (1탄)
7		김00	인스타그램	2021 문학주간 온라인 개막식
8		김00	인스타그램	제3회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온라인 전시
9		김00	인스타그램	문학주간 ON - 네이버 쇼핑라이브 (2탄)
10		김00	인스타그램	침 튀겨도 괜찮았는지
11		김00	인스타그램	곳곳 프로젝트
12		김00	인스타그램	나의 첫 챗 출간기
13		박00	트위터	지역 아동과 함께 하는 신나는 동화읽기와 글쓰기
14		박00	트위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동화 산책
15		배00	인스타그램	포토문학극장
16		배00	인스타그램	우리를 다시 켜다
17		배00	인스타그램	문학으로 할머니들다
18		이00	트위터	시로 윈크하다
19		이00	트위터	나의 삶이 당신에게 이야기가 될 때
20		이00	트위터	동백이 연꽃에게 - 너른송이에서 하미마을까지, 당신과
21		임00	블로그	단편소설의 메시지를 춤으로 이야기하다 - 문학과 현대무용의 융합 퍼포먼스
22		임00	블로그	비평 덕후들의 웹툰, SNS문학 비평 설명서
23		임00	블로그	가을 밤, 우리 곁에 시
24		임00	블로그	컴의 캠핑 브이로그 & 낭독회
25		임00	블로그	2021 문학주간 온라인 개막식
26		임00	블로그	제3회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온라인 전시



연번	소속	참여자 (이름)	플랫폼	프로그램명
27	광주대학교	임OO	블로그	문학주간 ON - 네이버 쇼핑라이브 (2탄)
28		조OO	블로그	한국문학의 새로운 영토를 찾아서
29		조OO	블로그	삶의 심표가 되는 음식 소통 토크쇼 감정맛집
30		조OO	블로그	2021 문학주간 온라인 개막식
31		조OO	블로그	제3회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온라인 전시
32		조OO	블로그	문학주간 ON - 네이버 쇼핑라이브 (3탄)
33	조선대학교	강OO	인스타그램	캣츠아이세이
34		김OO	인스타그램	아근하면서 읽는 시
35		류OO	인스타그램	독자에게 전하는 예술 선물 <다채>
36		박OO	인스타그램	재즈피넛 블렌딩 메타버스 팝업 스토어
37		박OO	인스타그램	어흥! 부산 랜선 여행
38		박OO	인스타그램	애육의 한국소설
39		양OO	블로그	38분 동안 지구멸망소설 릴레이 쓰기
40		오OO	블로그	빔프로젝트 - 그림책 작가들의 작당
41		정OO	블로그	그림책 사회학 - 그림책과 그래픽 노블안에 깃든 문화다양성 이야기
42		정OO	블로그	언어의 맛 : 복수의 문학, 언어의 이합집산
43		권OO	인스타그램	카를 차페크 <로봇> 100주년 기념 - 2021년에 읽는 1921년의 SF 희곡
44		권OO	인스타그램	<우리 유니버스> 이토록 풍부한 여성영화의 세계
45		권OO	인스타그램	Anne Carson Day!: 짧은 이야기들과 유리, 아이러니 그리고 신
46		권OO	인스타그램	선명한 산책
47	일반	권OO	인스타그램	키워드로 맛보는 한국문학 (キーワードで読む韓国文学)
48		김OO	인스타그램	가까워 톡 - 나의 고양이가 되어주렴
49		김OO	인스타그램	시로 소통하는 멀티컬처(MultiCulture)
50		김OO	인스타그램	신동엽, 별들과의 대화
51		박OO	인스타그램	문학, 회진(回診)가다 - 마동댁, 詩로 쓰는 레시피
52		변OO	블로그	우리가 사랑한, 사랑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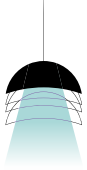
연번	소속	참여자 (이름)	플랫폼	프로그램명
53	일반	변OO	블로그	그녀의 스트립쇼 혹은 ‘너’라는 악령 쫓기
54		변OO	블로그	시, 내 삶에 입맞추다
55		송OO	인스타그램	제3회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온라인 전시
56		송OO	인스타그램	문학주간 ON - 네이버 쇼핑라이브 (2탄)
57		오OO	블로그	소설가 최진영의 『비상문』 낭독회
58		오OO	블로그	산지등대 제주詩지
59		오OO	인스타그램	한마음문학회
60		오OO	인스타그램	포스트 코로나 희망의 시 콘서트
61		오OO	인스타그램	진심을 밝히는 문학들
62		윤OO	페이스북	완서학, 비서구 젠더 이론을 위하여
63		윤OO	인스타그램	비평의 새로운 영역과 기능
64		윤OO	인스타그램	생방송 북트레일러
65		윤OO	페이스북	김현 시인 초청 낭독회
66		임OO	블로그	제주 문학 팟캐스트
67		임OO	블로그	미래 산책 연습 <한국문학 산책>
68		임OO	블로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낭송
69		조OO	인스타그램	제3회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온라인 전시
70		조OO	인스타그램	문학주간 ON - 네이버 쇼핑라이브 (1탄)



진행결과

구분	작가 스테이지
프로그램명	그림책 사회학 - 그림책과 그래픽노블 안에 깃든 문화다양성 이야기
작성자명	정OO(조선대학교)
작성플랫폼	블로그
내용	11월 21일 문학주간 작가 스테이지 '그림책 사회학'이 진행되었다. 출판사 우리나라의 한소원 대표가 진행을 맡았고, 박건웅 작가와 박주현 작가가 참여했다. 그림책과 그래픽 노블 안에 깃든 문화 다양성 이야기라는 소재목에 맞게 이야기는 진행되었다. 박건웅 작가는 20년 정도 만화를 그렸으며, 주로 근현대사에 대한 만화를 그리고 있으며, 한국 현대사의 숨은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짐승의 시간』, 『제시 이야기』, 『악마의 일기』 등이 있다. 박주현 작가는 만화가이자 그림책 작가로 일하고 있다. 대표작은 그림책인 『그레고와 병아리』와 그래픽 노블인 『빛 뒤에 선 아이』가 있다. 두 작가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현대 사회의 우울 등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과감하게 녹여내고 있다. * 그래픽 노블은 만화와 소설의 중간 형식을 취하는 작품이다. 사실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했다. 박건웅 작가는 대학 시절 혼란한 사회를 겪으며 왜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냐에 대해 큰 고민을 했다고 한다. 그런 생각으로 만화를 그렸고, 왜라는 궁금증이 가장 큰 작업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박주현 작가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보는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소수자들, 평범함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 다루고 싶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고정될 수 있는 두려움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 박주현 작가는 당연히 그런 걱정이 있다고 한다. 작품을 할 때 신경을 쓰는 부분이 너무 걱정만 하지 않는 것, 할 말을 못하게 되지는 말자라고 했다. 『빛 뒤에 선 아이』를 쓸 때도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한다. 박건웅 작가는 작품을 쓰면 쓸수록 다른 걸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단추를 하나씩 꿰다 보니 현대사에 대한 작업물만 쏙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생각해 보면 현대사에 대해 하고픈 이야기가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많았던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작가님들의 단단함을 엿본 것 같아서 이 질문과 답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박주현 작가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유독 설레 보였는데 평소에도 동물을 아주 좋아한다고 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주인공을 비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존재라고 했다. 『빛 뒤에 선 아이』의 주인공 유진이 반점이 난 핑크 돌고래를 보는 장면처럼 말이다. 박건웅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악마의 일기』 같은 작품은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고, 그런 장치를 숨겼을 때 의도와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역사적, 사회 정치적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재밌게 가공해 보여주면 쉽게 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장르적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들의 차기작 계획도 들어볼 수 있게 되었다. 박건웅 작가는 역사를 다룬 판타지 장르를 도전하고 있다고 한다. 내년 초에 출간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주현 작가는 구상하고 있는 건 여러 개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한다. 간단히 알려주자면 이유 없이 혐오하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림책 사회학’을 듣고 나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담아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결코 나와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내 주변, 혹은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분	문학서점 스테이지
프로그램명	몸이 보이는 라디오
작성자명	김OO(광주대학교)
작성플랫폼	인스타그램
내용	문학살롱초고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진행된 “몸이 보이는 라디오”. 처음에는 무슨 몸이 보인다는 거지? 하는 의문과 호기심이 생겼다. ‘몸이’ 보이는 라디오? 몸이 ‘보이는’ 라디오? 무슨 내용일지 궁금해하며 라이브를 지켜봤다. 결론은 ‘몸이!’ ‘보이는!’ 라디오였다. 보이긴 하지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라디오였고, 몸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 프로그램은 아니고, 이 시국에 맞는 키워드 (다양성, 인권, 코로나19극복)와 관련된 책을 소개하는 내용이 주였다. 총 세 권의 책이 소개되었고, 그 중 나는 『살갓 아래』라는 책이 가장 흥미로웠다. 『살갓 아래』는 영국의 15명의 작가들이 각자 다른 몸의 일부를 맡아 그에 대한 에세이를 쓴 책인데, 책의 추천사는 박연준 시인이 썼다. 이미지 속 내용이 추천사 중 일부인데, 몸의 일부로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통해 이런 짧은 문학이 탄생했다는 게 신기했다. 나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신체 일부를 소재로 글을 써보고 싶어졌다. 그리고 이 책도 실제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일단 기획부터 너무 흥미롭다... 요즘 학교에서 웹진을 만들어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기획에 더 많은 관심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더 이 책이 끌리는 것 같다. 『아침의 피아노』는 철학자가 암선고를 받은 뒤,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일기를 담은 책이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투병일기인 것은 아니다. 철학자로서 수없이 말했던 삶과 죽음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쓴 시선집이다. 라이브 중 읽어주셨던 것들 중에서 마음에 남았던 세 가지를 들고 왔다. 그 중에서 131번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데, 나는 불안이 심하고 자아가 비대해질 때마다 ‘조용한 날들이 돌아올 거라는 걸’ 과연 생각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떠올려보았다. 분명 시간이 지나면 이 불안은 어디론가 쓸려갈 테고, 지난날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워질 것이다. 하지만 불안 한가운데서 있는 나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 외면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모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나의 삶이 다시 조용해질 것이고, 비대해졌던 자아는 다시 돌아올 것이며, 언제 그랬냐는 듯 나의 삶은 평온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꾸준히 상기시켜야 한다. 『희망 대신 욕망』도 흥미로운 책이었다. 변호사인 작가가 쓴 책인데, 많은 챕터 중에 ‘5. 나는 야한 장애인이고 싶다’의 한 단락을 소개했다. 장애인도 당연히 사람이니 당연히 욕망이 있을 텐데,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다. 나도 어쩌면 그들을 그저 사회의 손길에 필요한 불쌍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나 보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해준 책이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자신의 불편함을 도움 받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목소리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처럼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별 생각 없었던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하고, 잘못된 편견을 깨부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지금도 충분히 많이 있겠지만, 관심을 가질 계기조차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 같다. 한 시간 가까이 진행된 라이브는 이름답게 잔잔하게 들기 좋았다. 몰랐던 책, 관심 없던 분야의 책을 소개받는 것도 좋았고, 그 책의 한 단락을 읽어주는 방식도 좋았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책도 도전하기 힘들었는데, 조금 더 시야를 확장해 보다 다양한 책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분	기획 프로그램 - 문학주간 ON
프로그램명	문학주간 시선집
작성자명	김OO(광주대학교)
작성플랫폼	인스타그램
내용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 시집을!(신용목/신미나)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 시집을 판매하는 광경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2021문학주간에서 독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한 것 같다. 문단에서든 시를 사랑하는 독자에게든 입지가 확고한 두 시인, 신용목 시인과 신미나 시인이 출연해 주셨다. 본인의 시집 혹은 본인이 편집에 참여한 시선집을 홍보하셨는데, 두 분 다 쑥스러워하시면서도 곳곳이 홍보를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두 분 다 시인이다 보니 말씀도 유려하셨는데, 쇼핑라이브지만 작가 초청 강연회 맛보기 같은 효과도 있었다. 시를 보다 잘 읽는 법, 시집을 엮는 과정, 시인이 시를 쓰게 된 계기 같은 내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시인을 모시면 빠트리기 아쉬운 낭독회도 있었다. 사실 시집이 쇼핑라이브에 나온다 해도 홍보 효과가 얼마나 될까 의구심이 있었다. 그런데 두 시인의 낭독을 듣고 나니 생각이 확 바뀌었다. 낭독해 주신 두 편의 시가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이다.(「안목에는 있고 안도에는 없는」, 「젖은 옷을 입고 다녔다」) 밑에 있는 시집 판매 배너를 자연스레 누르게 되었다.

구분	개막식
프로그램명	2021 문학주간 온라인 개막식
작성자명	조OO(광주대학교)
작성플랫폼	블로그
내용	이번 문학주간은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행사 진행은 시집 『당신을 이름을 지어다 며칠은 먹었다』,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으로 알려진 시인 박준이 맡았다. 그동안 문학은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과 만나왔다. 이번 페스티벌은 활자를 넘어 영상과 음성으로 즐길 수 있게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 행사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전에 축사를 맡아준 분들이 있다.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김호운,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이상국, 한국시인협회 회장 나태주, 국제PEN한국본부 이사장 김용재,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이광복.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얘기한 것은 바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한국 문학 페스티벌의 의의다. 그런 의의를 잘 표현하는 이번 ‘2021 문학주간’의 주제는 [다시 ON 문학, 우리를 켜다], ‘문학이라는 불빛을 켜서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추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또한 ON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 손 위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문학을 손쉽게 즐길 수 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2021 문학주간’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행사 프로그램을 소개해보려 한다. 작가 스테이지 & 문학서점 스테이지 첫 번째는 작가 스테이지와 문학서점스테이지다. 작가 스테이지의 소개는 작가이자 카피라이터인 ‘김하나’가 맡았다. ‘요산문학관’에서 이뤄졌다. 이번 작가가 가족, 공감, 우정이라는 시대를 초월하는 세 가지 주제와 코로나19, 제주 4.3이라는 과거와 현재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로 기획된다. 또한 문학서점 스테이지는 전국 15곳의 지역서점에서 진행되며 국내외 도서 추천, 온라인 북토크, 낭독의 시간, 책 모임 등의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평소 서점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작가와의 만남을 좋아했다면 이 스테이지를 보기를 추천한다! 제3회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두 번째는 제3회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이다. 제3회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은 작가이자 독립출판 제작자인 ‘안리타’가 맡았다. 소개는 서울 본점에 이어 제주에 본점을 낸 ‘이후북스’ 독립서점에서 진행됐다. 이번 스테이지는 독립문예 창작자와 독자가 독립출판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독립문예 활동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보기 위해 기획됐다. 특별한 점은 참여 독립출판사들의 출판물들을 온라인 VR 전시장에서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대형 출판사들이 아닌 독립출판사들의 작품과 활동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이 스테이지를 추천한다. 기획 및 협력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기획 및 협력 프로그램이다. 소개는 작가이자 유튜버인 ‘김겨울’이 맡았다. 장소는 은평구 도산동의 ‘도서관마을’에서 진행됐다. 도서관마을은 아파트와 빌라들을 개조해 도서관으로 만든 곳이다. 이 스테이지에서는 ‘세계 한글 작가대회’,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 ‘EBS 김새벽과 황인찬의 시로 만난 세계’ 특별 방송이 진행된다. 스테이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스테이지를 추천한다. ‘2021 문학주간’은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오히려 그것을 살려 집에서든 쉽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지금은 종료된 행사지만 아래 SNS 채널에 들어가면 다시보기 등을 통해 생생하게 다시 경험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참여를 부탁한다!



구분	제3회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프로그램명	제3회 독립 문예·출판 페스티벌 온라인 전시
작성자명	임OO(광주대학교)
작성플랫폼	블로그
내용	온라인 전시회 오픈! 언택트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저는 막연하게 줌으로 뭔가를 하겠거니, 라이브 방송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온라인 전시관이라는 신선한 프로젝트를 선보이셨더라고요. 온라인 전시관이라니 말도 많이 듣고 국립박물관이었나, 사이트를 방문해서 영상물로 감상하는 경험은 해봤는데 이렇게 문학주간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메타버스 메타버스-말 많이 나오기 시작할 무렵에 벌써 이런 온라인 전시관을 만들어서, 진행했다는 게 놀랍게 느껴져요. 아무래도 글을 쓴다거나 창작을 하는 것이 창의력을 요하고, 어려운 작업인 건 맞지만 디자인이라던가, 기술이라던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딱히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학에 기술을 접목하니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생기네요. 다시 ON 문학 온라인 전시회에는 누구나 접속을 하실 수 있어요! 전시관 초입에는 지난 개막식 게시물에서 언급한 바 있는 안리타 작가님의 책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모바일로 볼 때는 조금 더 선명했는데, 17인치 이상 되는 넓은 화면으로 보니까 조금 흐릿하게 보이고, 캡처상으로도 그렇네요. 책 표지 옆에 네임 태그를 누르면 작가의 인스타 계정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밖에도 여러 게시물들이 있는데 네임태그를 눌렀을 때, 다시서점 홈페이지에 연결되는 것도 있었어요. 저는 다시서점이라는 사이트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뜨길래 신선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획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았고 저도 다시서점의 구독자가 된다면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자주 사이트를 들어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이트를 구경하면서 다시 ON 문학 개막식에서 안리타 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떠오르더라고요. 서점을 소개해 주시면서 새로운 시도들로 가득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취향이라 그런지 마음이 웅장했었어요. 아무튼! 요즘은 워낙 참여형이 많으니까 책을 읽고 활자를 사랑하는 일에도 조금 더 능동적으로 굴면 사람이나 기관과 컨택할 수 있는 게 무척이나 늘어나는구나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ON 문학은 그 취지도 좋지만 언택트 시대에 맞춰 진행되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무척 낮다는 것 그게 굉장히 두고두고 좋은 것 같아요. 인스타 라방처럼 휘발되는 게 아니라서 뭔가 생각이 날 때 다시 들어가서 곱씹으며 감상할 수 있고, 이렇게 기록물로 남겨두었다가 이후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문학주간 '다시 ON 문학'이라는 키워드로 쓰여진 블로그 기록들이 태그를 타고 서로서로 닿게 돼서, 문학을 향유하는 이웃님들과 연이 닿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2021 문학주간 백서

다시 ON 문학,
우리를 켜다





2021 문학주간 백서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행인	박종관
발행일	2021년 12월
기획/구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정대훈 부장, 박헌일 과장, 이솔미 대리

2021 문학주간 “다시 ON 문학, 우리를 커다”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주관	국제PEN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관협회,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작가회의
협력	EBS, 한국문학번역원
운영/홍보	(주)아이디어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소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대표전화	061-900-2100
홈페이지	www.arko.or.kr
전자우편	arko@arko.or.kr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